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9년 8월

교육학석사(교육행정)학위논문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찬반논리 및 한계 분석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박재형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찬반논리 및 한계 분석

An Analysis on Opposition and Agreement's Logic
and Limitations of Independent Private School Policy

2009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박재형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찬반논리 및 한계 분석

지도교수 송 경 오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교육행정)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9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박 재 형

목 차

ABSTRACT	v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연구방법과 제한점	3
II.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등장 배경 및 현황	5
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등장 배경	5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운영 현황	9
3. 최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정책의 방향	18
III.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개념적 특징	23
1. 학교 운영의 자율성	23
2. 교육활동의 다양성	26
3. 학부모 및 학생의 학교선택권 부여	38
IV.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정책의 찬성 논리분석	42
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정책의 찬성 논리	42
가. 고교평준화정책의 대안	42
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44
다. 사학의 교육경쟁력 강화	49
라. 학교선택권의 보장	54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정책 찬성논리의 한계	58
가. 고교평준화 정책 대안의 한계	59
나. 교육과정 다양화 주장의 한계	61
다. 사학의 교육경쟁력 주장의 한계	63
라. 학교선택권 주장의 한계	66
V.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정책의 반대 논리분석	71
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정책의 반대 논리	71
가. 고교평준화 정책 해체 초래	71
나. 고등학교의 서열화	72

다. 사교육비 증가	75
라. 사학의 자생력(전입금 및 납입금의 문제)신장에 대한 의문	80
마. 공교육체제의 시장화	84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정책 반대논리의 한계	87
가. 고교평준화 정책 해체 가능성 주장의 한계	87
나. 자립형 사립고가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의 한계	89
다. 사학의 자립도에 대한 의구심 주장의 한계	90
라. 공교육체제 시장화 주장의 한계	93
 VI. 요약 및 제언	
1. 요약	95
2. 제언	97
 참고문헌	101

표 목 차

<표 II-1> 국·공·사립고등학교의 설립별 현황	6
<표 II-2> 자립형 사립고 일반현황	10
<표 II-3> 학교별 입학 전형 방식	11
<표 II-4> 학교별 건학이념 및 구현방법	12
<표 II-5> 교원 확보 현황	13
<표 II-6> 연간 학생 1인당 납입금 수준 및 비율	16
<표 II-7> 연간 학생 1인당 연간 수익자 비용 부담액	16
<표 II-8> 세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및 등록금 비율 현황	17
<표 II-9> 장학금 수혜 현황	17
<표 II-10> 다양화 300 프로젝트	18
<표 II-11> 사립고 유형별 비교	29
<표 II-12> 자율형 사립고 지정 요건	21
<표 III-1> 자율성 측면에서 본 사립고와 자립형 사립고 비교	25
<표 III-2> 교육과정 특성화 노력	30
<표 III-3> 자립형 사립고 특기·적성교육 현황	33
<표 III-4> 자립형 사립고 재량활동 현황	34
<표 IV-1> 전국 6개 자립형 사립고 주요대학 합격자수	49
<표 IV-2> 교육과정 편성시 학생특성 반영 방식	62
<표 IV-3> 신입생 전형시 국·영·수 반영 비중	65
<표 V-1> 연간 교육비·사교육비 지출	76
<표 V-2> 자립형 사립고 학부모 수입 및 학비 현황	78
<표 V-3> 문리계 사설학원 추이	78
<표 V-4> 학생 1인당 납입금 수준 및 비율	81
<표 V-5>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	81
<표 V-6> 세액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및 등록금 비율 현황	83

<표 V-7> 학생 1인당 교육비 부담 수준 83
<표 V-8> 자립형 사립고 확대시의 지역별 재정지원 절감액(2006년도 결산기준) 92

ABSTRACT

An Analysis on Opposition and Agreement's Logic and Limitations of Independent Private School Policy

Park Jae-Hyung

Advisor : Prof. Song Kyoung-Oh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intend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harter school policy o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public education through analysing the opposite and agreement logics and their limits. To achieve the goal, this study surveyed and analyzed; first, what are conceptual characters of independent private school? Second, what are opposite assertion and limits to independent private school? Third, what are agreement assertion and limits to independent private school? For this, analyzing the vast majority of documents was important method to write this master's thesis.

To understand the conceptual characters of independent private school, this study analyzed the appearance background and present management condition of six independent private schools. On the base of this analysis, this study divided three areas such as self-control, diversity, option of school.

Through this methods, analyzed results of study follow as;

First, the equalization policy of high school encourages extension of secondary education, easing order of schools and normalization of middle school education. However, it resulted in limitation of parents and students' school option, taking place

standardization of education due to violation of private school. The independent private school appeared for alternative so as to maintain the equalization policy of high school and complement a various of problems.

Second, present management condition of independent private schools followed as. There were two methods which pursuit diversity to select the students. Each school hoped to manage a curriculum with special idea of foundation school. It also called in good teachers and professors to realize the curriculum. To extend specificity of teachers, each schools supported them with a various ways. School expenses had to be within three times as general high school's one and a foundation should charge 20% scholarship comparison to school expenses. A scholarship had to be charged to 15% students.

Third, the government intended to promote '300 project of varying high school'. Authority wanted to found school which was estimated by students and parents' option, so it granted self-control right to more schools.

Forth, in conceptual characters, authority allowed each charter school to have right such as selecting students, school finances, rate of scholarship, a transparent of school management, education matters and so on. On other side, independent private school was not only permitting diversity and activities through special class forms contrast to other schools but also permitted school option to students and parents.

Fifth, the supporting group stated that the policy of independent private school promoted the diversity to curriculum and the alternative of the equalization policy of high school which caused downward of performance. This coul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private schools through ensuring their foundation idea and characteristics. But there was few evidence that the equalization policy of high school was the major cause of downward of performance, there was a limit that charter schools were going to be an entrance institute which focused on entrance exam without changing the social recognition and academic clique culture. Many schools

with financial difficulties would turn to absurd ones, so that the burden would be given to students and parents. School options could not be permitted to every student, just to students who could afford the expensive school expenses. The the gulf between rich and poor would appear and circulate in education, so that it collapsed the public education.

Sixth, opposite group states that the policy of independent private school would disband the equalization policy of high school. The policy would deepen the order between schools and academic clique culture. It also encouraged the students and parents to spend expense to private education, so that it could be a major cause to increase private education expense. But the policy of charter school was not a abandon of public education as well as the equalization policy of high school, it would solve the a few problems. If independent private school increased, the supporting finances which would use for charter schools could invest money to public education and promote the quality of public school. Most important thing, every educational problems caused in our educational environment were not due to independent private school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우리 교육계에는 바람 잘 날 없다는 말과 같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이슈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 교원평가, 국제중과 같은 자립형 사학의 설립, 일제고사 실시, 3불정책등 그 어떤 것 하나 단순 토론으로 그 끝을 쉽게 알 수 있는 현안들이 한 가지도 없다. 그중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평가를 받는 새로운 형태의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을 포함한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통해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자율성과 다양화를 지향하고 고교 평준화 정책을 보완 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각 계층에서의 교육주체들 간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논란은 더욱 뜨겁기만 하다.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2002년 민족사관고등학교, 광양제철고등학교, 포항제철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이듬해인 2003년 해운대고등학교, 현대청운고등학교, 상산고등학교가 추가로 지정되어 운영되어져 오고 있다. 2010년부터 서울의 첫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가 또한 추가 지정되었다.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은 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학교 선택권 확대, 학교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또한 새로운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학의 자율성 신장시키도록 한다. 아울러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지닌 다양성의 부족등과 같은 공교육의 한계 극복, 사학의 건학이념 및 특수성을 보장하여 사학 그 본래의 취지에 근거하여 다양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등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정일환·김경선, 2002). 즉, 자립형 사립고 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에서의 주장의 핵심은 교육의 자율화, 특성화, 다양화로 귀결된다.

반면,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자립형 사립고 역시 일반계 고등학교라는 점 때문에 우리의 대학입시 상황에 큰 변화가 없는 한 그 한계가 명백하다는 점, 계층 간 교육기회가 더욱 불평등하게 되어 사회적 위화감을 강화시켜 나갈 위험성의 여부,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보다는 입시에 대한 강조가 더욱 강화되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보다 선발효과만을 가지게 된다는 점,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사교육비가 증가, 시범운영 결과 자립형 사립고의 실체가 귀족형 입시 명문고라는 이유 등을 들고 있다(성기선, 2005).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며 어느 한쪽이 옳고 그른지 한국적 교육

상황 속에서는 쉽게 속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을 둘러싼 이러한 일련의 찬반주장은 결국 교육의 수월성이 우선인지 평등성이 우선인지를 저울질 할 뿐이다. 이는 가시적 성과를 단기간에 보여 줄 수 없는 교육의 속성상 수많은 혼란만 부추기는 이념적 대립으로만 비춰질 수 있다. 실제로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을 찬성하는 측은 최근 국제중 설립에서 볼 수 있듯이 그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현실적인 부작용의 예를 무시한 채 무리한 정책추진을 판단하려 한다. 하지만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역시 빠르게 발전하며 변화하는 사회에 발 맞추지 못하고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폐해를 알면서도 대안 없는 반대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 및 그 확대 방안은 결국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연구와 그 대안으로 나온 결과물이다. 이는 곧 ‘수월성’과 ‘평등성’이라는 두 이념이 동시에 배려될 수 있는 교육정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듯이 자립형 사립고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한 올바른 연구가 선행되고 그 파급효과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고 추진하고 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자립형 사립고와 관계된 여러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자립형 사립고가 과연 무엇인지 그 개념적 특징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고 이로 인해 자립형 사립고의 찬반을 주장하는 양측의 논리는 소모적인 이념적 논쟁만을 가져 왔으며 그 실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아울러 양측의 주장에 대한 논리와 근거의 부족을 야기했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와 관련된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학교교육과정, 즉 공교육에 끼치는 그 영향에 대한 연구 및 그로 인해 파급되어질 여러 현실적인 문제점등에 대한 고찰 없이 단순한 정책 밀어붙이기 또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반대는 우리의 교육환경 특성상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

교육은 百年之大計라는 말이 무색하리 만큼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널뛰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학교교육은 뒤로 한 채 새벽까지 학원가에서 힘들어 하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의 정책이 우리나라의 현실적 교육상황 속에서 과연 공교육 정상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에 대한 연구와 고찰이 없이는 끊임없이 교육주체들 간의 반목과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념적인 관점보다는 우리나라의 사회적·교육적 상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문헌의 분석을 통해 자립형 사립고의 개념적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그 개념을 정리해 보고, 찬반에 대한 양측의 핵심주장이 어떤 논리 하에 있으며 그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립형 사립고의 개념적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자립형 사립고의 찬성의 논리주장과 근거 및 그 한계는 무엇인가?

셋째, 자립형 사립고의 반대의 논리주장과 근거 및 그 한계는 무엇인가?

3. 연구방법과 제한점

본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찬반 논리주장에 관한 문헌분석이다. 무엇보다 자립형 사립고에 관한 개념적 특징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립형 사립고에 관계된 정책을 분석한다는 것이 설문지법을 통해 이루어질 경우 개인의 교육학적인 주관과 편견, 그리고 교육적 이념이 개입되어 그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객관적 접근이 가능한 문헌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자립형 사립고 정책에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찬반 논리주장에 관하여 양측이 주장하고 있는 논쟁점과 그 근거를 분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론적 문제에 관한 감론을박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립형 사립고의 개념적 특징을 분명히 밝혔을 때만이 그와 관련된 정책을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기에 그 등장 배경 및 6개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 현황은 주로 그 정책추진을 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여러 연구보고서와 시범운영 평가보고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인사관리, 납입금과 전입금, 장학금등의 부분으로 재분석한 각종 논문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자립형 사립고의 정책 추진방향은 각종 공청회 자료집 및 신문기사를 토대로 표와 함께 제시하였다.

자립형 사립고의 개념적 특징은 제도적 측면에서의 자율성과, 교육활동 측면에서의 다양성, 수요자 입장 측면에서의 학교선택권등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물, 각종 이문서, 시범운영 평가보고서 및 정기간행물들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찬성 논리와 반대 논리를 분명하게 밝히고자 고교평준화 정책, 사립학교의 교육경쟁력과 자생력, 학교선택권, 공교육과의 관련성, 마지막으로 사교육비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회, 교육행정학연구회 등

에서 발행하는 학술논문과 한국개발연구원등과 같은 각종 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아울러 자립형 사립고의 정책추진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여러 현실적인 현안들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각종 파급효과에 관하여 최근 언론기사와 통계청의 각종 자료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자립형 사립고의 정책에 대한 찬반주장에 관한 것을 주제로 한 논문이며 현재 시범운영중인 6개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그 학교 수가 너무 적어 분석을 위한 광범위한 자료를 추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불과 10년이 채 경과되지 못한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 결과와 그 분석을 통해 향후 자립형 사립고가 우리의 교육현실과 사학에 어떠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공교육과 공존해 나갈 것인가? 학벌중심사회에서 귀족학교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립형 사립고가 과연 그 폐해를 최소화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추진이 교육예산과 사교육비등의 증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에 관한 예측과 그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II.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등장 배경 및 현황

이장에서는 자립형 사립고의 등장 배경 및 현황을 다루고자 한다. 자립형 사립고에 관한 개념적 특징에 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그 찬반 논리주장에 관한 실증적 분석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공립과 더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학과 자립형 사립고 정책과의 연관성을 알아보아야 한다. 또한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하게 변화해 온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서 그나마 중등교육의 근간을 이루며 지속되고 있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관한 찬반 논란의 중심 속에 왜 자립형 사립고 정책이 등장했는지에 대해 그 이해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재 시범운영중인 6개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현황을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현황, 인사관리 운영현황, 재정 운영현황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등장 배경

자립형 사립고의 등장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의 교육현실 속에서 자립형 사립고의 모체가 되며 국·공립학교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역사적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사학의 역사는 갑오개혁 이후부터 시작되었는데, 민간인의 사학은 대체로 그리스도교 선교에 의한 학교설립이라는 대세와 당시 사회의 요청인 개화열에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교육열과 함께, 사학의 설립이 곧 교육구국운동이라는 양상으로 표출되었고, 이러한 양상은 곧 일제 탄압기에 3·1운동과 6·10만세운동, 문자보급운동과 신사참배 거부 등 항일 구국활동에서 커다란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사립학교의 설립은 자주독립운동의 한 방법으로 여겨져 전국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되었으며, ‘황성신문’에서는 1907년부터 1909년 4월까지 민중들이 세운 각종 사립학교의 수가 무려 3,000여 학교에 달한다고 보도하였다. 그 후 일제의 통계에 의하면 1910년 5월 말까지 학부(學部)의 인가를 받은 학교 수는 종교 계통학교 823교, 각종학교 1,402교, 보통학교 16교, 고등학교 2교, 실업학교 7교 등 합계 2,250교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 근대학교의 설립과정은 사학이 관학보다 먼저 세워졌고, 이 시기의 사학은 목적의식이 뚜렷했으며, 그 수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도 높이 평가받을 만하였다.

70년대 중반 사립고등학교의 수는 567개로 4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게 80년대 812개로 50%, 90년대 910개로 49%를 차지할 정도로 사학의 비율은 국·

공립학교와 비슷하였다(교육통계편람, 2001). <표 II-1>은 현재 사립고등학교가 국·공립 고등학교와 더불어 일반계 및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사립고등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거의 45%가 육박하고 있다.

<표 II-1> 국·공·사립고등학교의 설립별 현황

	사립학교			국립학교			공립학교			계		
	학교수	교원수	학생수	학교수	교원수	학생수	학교수	교원수	학생수	학교수	교원수	학생수
일반계 고등학교	655 (43.8)	38,588 (44.6)	654,531 (46.1)	13 (0.8)	692 (0.8)	10,361 (0.7)	825 (55.2)	47,220 (54.5)	754,594 (53.1)	1,493	86,500	1,419,486
전문계 고등학교	286 (41)	16,010 (43.9)	231,971 (47.5)	5 (0.7)	456 (1.2)	5,410 (1.1)	406 (58.2)	19,940 (54.7)	250,111 (51.3)	697	36,406	487,492

주: ()안은 %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08년도 교육통계연보를 재구성하였음.

이처럼 사립학교는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왔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게 팽창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는 교육수요의 상당부분을 충족시킴으로써 공공재정을 보충하고 중등교육의 보급 확대를 통하여 민주교육의 기초 확립에 이바지 하였다. 또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사립학교는 산업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고급 인력을 양성·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해 온 것이다. 즉 교육 기회의 확대와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사립학교의 중요성과 그 기여도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반면 우리 사회에 근대적인 공교육제도가 도입된 것 역시 1895년 갑오개혁을 전후한 시기이다. 1880년대 중반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근대적인 학교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대한제국기를 거치면서 미션스쿨과 민족계 사립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각각 선교활동과 민족자립을 목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었지만, 일제가 한국에 식민지 공교육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곧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1908년 ‘사립학교령’(칙령 제62호)을 공포하여 명목상으로는 사립학교로 하여금 본연의 교육목적을 실현하게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는 학교시설 및 설립인가규정을 강화하여 새로 신설될 학교는 물론, 기존의 사립교육기관을 통제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동양 고전을 내용으로 삼던 전통적 교육체제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서양의 제도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우리의 손으로 국민교육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은 1945년 해방 이후의 일이며 한국전쟁 이후 가장 못살던 나라가 지금 수준의 경제력을 보유하게 된 데에는 공교육의 역할이 컸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인적자원 외에는 별다른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불운한 환경 속에서 한국의 공교육은 인력의 경쟁력 있는 지식 능력 보유에 지대한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교육적 요구가 반영된 주장이 표출되어 왔다. 즉 새로운 세기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적어도 공교육에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과 같은 공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계층 재생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현실적 요구에 의해 시행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74년부터 도입·실시되어 2009년 현재 시행 3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 정책은 찬·반 논의가 팽팽한 가운데 도입되어 지금까지 논란을 거듭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정책사상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오랜 세월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대표적인 교육 정책중 하나이다.

고등학교 평준화를 전격 단행하게 된 주요 원인중 하나는 해방 이후 나타난 학교교육의 ‘팽창’으로 인한 입시과열이었다. 학생들은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입학에 위한 과열 경쟁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 도입이 이루어졌다. 둘째는 일류 고등학교 입학에 위해 중학생들의 입시준비로 인한 교육과정의 파행과 고입 재수생의 누적 문제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인구 집중 현상과 관련된 사회적 배경도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었다. 즉 대도시에 위치한 일류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열망은 도시 인구 집중 문제와 무관하지 않았다. 이러한 교육적·사회적 배경 속에서 고등학교 입학시험 제도를 바꾸려는 노력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으로 이어졌다(김정래, 2001).

평준화 정책은 전반적으로 중등교육의 기회 확대를 가져왔고, 학교간 서열화 현상의 완화,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향한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현행 학생배정방식이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 사립학교운영상의 자율권 침해로 인한 교육의 획일화, 이로 인한 학생의 학교교육만족도 저하 및 공교육에 대한 불신 초래등 새로운 과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부처 내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평준화 정책의 기초를 유지하

면서 고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반면에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경제 부처에서는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요구하는 인력자원을 충분하게 마련하는 방안으로서 고교평준화 정책을 폐지하고 자립형 사립고 및 자율형 사립고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즉 평준화 정책의 폐해를 들어 이 정책을 견지하면서도 평준화 정책을 일시에 폐지하는 것보다는 평준화를 유지하면서 그 보완책을 탐색하고자 한 대안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제안으로 자립형 사립고 제도 도입이 바로 그것이다.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운동을 위한 교육재정의 확보와 교육여건의 개선,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지원 시스템구축 및 학교체제의 다양화와 특성화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논의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많은 대안 중에 자립형 사립고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현저하게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상 사학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공교육 정상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 및 확대방안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둘째,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은 공교육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학에 대한 적극적 조성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사학은 재정적 부담능력이 부족하여 공교육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국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측면이 크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사학은 공교육체제의 한 구성요소로서 기능해 왔기 때문에 독자적 건학이념을 실현 할 수가 없었다(김성열, 2000). 더불어 사립학교의 자율성 측면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발권에 대한 제한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교육기본법과 사립학교법의 이념에도 배치된다고 인식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국가주도의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한 교육내용이 교육의 획일성을 조장하고 수월성의 추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학 고유의 정체성의 확립 및 건학 이념의 구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 자립형 사립고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된 것은 당시 상황에서 무시험 전형을 기조로 하는 2002년 대입전형제도가 1998년 가을에 발표된 이후 많은 대학들이 다양한 형태의 대입전형방법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자립형 사립고 제도 도입이 곧 입시명문학교 출현’이라는 등식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즉 대학이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선발을 하고자 해도 고등학교 교육이 획일화되어 있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시각이 대두되었다. 다양한 형태의 교육

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단순히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변화에서 찾아진 것은 아니다. ‘교실붕괴’와 같은 문제와 기존의 학교제도를 부정하는 탈학교 운동과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확산은 자립형 사립고 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논거를 제공하였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성행하게 된 조기유학의 붐은 거꾸로 국내 고등학교의 경쟁력 여부를 반성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적 문제와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자립형 사립고 제도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김정래, 2001).

자립형 사립고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그 배경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등과 함께 지난 1995년 5·31 교육개혁방안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정부에서는 고교 교육의 근간을 이루면서 그 동안 교육기회의 형평성 보장에 기여하여 온 평준화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교육의 경쟁력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평준화의 구조적 한계를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라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그간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평준화 정책과 배치되고 이른바 “귀족학교”로 변질되어 과열입시경쟁을 초래하며 계층 간 위화감을 심화시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다분히 우리 사회의 정서를 거스르는 점이 있다고 여겨졌다. 한편으로 자립형 사립고 도입의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인 여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1995년 자립형 사립고 제도 도입에 관한 제안 이후 수년 동안 그 시행이 미루어져 왔다. 이러한 방안을 정책의 수면 위로 다시 떠올린 것은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시범 운영 제안이 있는 다음이었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2000년 7월 11일 대통령에 대한 교육 정책 보고에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 계획을 넣었다. 이후 논의들을 모아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 7월 20일에 그 시범 운영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8월 20일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2008년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이라는 목표를 포함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고교 다양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자립형 사립고는 찬반논란의 뜨거운 핵심으로 다시 떠오르게 된 것이다.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운영 현황

자립형 사립고는 1995년 5월 31일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안에서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학교운영을 위해 제안되었으며, 2000년 7월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도 조속한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2001년 8월 7일 교과부는 ‘자립형 사립고교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였고,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시범학교 운영 신청을 접수받았다. 그러나 서울시 유인중 교육감은 다음날인 8월 8일 자

립형 사립고는 과거 중 3명과 같은 고등학교 입시 과열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현재와 같은 입시위주의 교육풍토가 개선되지 않는 한 서울지역에서는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국교육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학부모회 등 일부 교육관련 단체들도 입시 귀족학교가 될 우려가 있는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철회하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2001년 9월 10일 시·도 교육청별로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 신청을 마감한 결과, 당초 10개교 정도의 학교만이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신청 마감 날 서울지역에서 무더기로 신청하여 전국적으로 27개 학교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1년 10월 21일 교과부는 2002학년도에 민족사관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와 2003학년도에 부산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등 총 5개교를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로 확정하였다. 2002년 5월 4일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 추가모집을 하였고, 그 결과 전주 상산고 한 곳만 신청하여 5월 28일 2003학년도 시범학교로 지정되었다.

이들 학교들은 신입생 선발에 있어서 학교별 선택에 따라, 전국단위, 지역단위 또는 전국·지역단위로 병행 선발할 수 있게 되었다. 전형방법으로는 국, 영, 수 위주의 지필고사를 금지하고 학생의 소질, 적성, 창의성 등을 반영 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방법의 다양화, 특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게 되었다. 또한 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56단위 외에는 학교 자율로 편성할 수 있으며, 학생납입금 대 법인전입금 비율이 8:2 이상이 되도록 법인에서 부담하게 되었다. 더불어 건학이념, 학교발전계획 등이 명시된 학교헌장을 제정·공개해야 하고, 학교재정 운영 및 학사행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게 된다.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교육청 실정에 따라 납입금은 당해지역 일반계 고교의 3배 이내이며, 장학금은 저소득층의 진학기회 확대를 위해 외부, 내부 장학금을 포함하며, 장학금 지급시 전액면제로 환산하여 15%이상 학생에게 지급이 되어야 하는 등의 지침을 따르도록 하였다. <표 II-2>는 현재 시범운영중인 자립형 사립고 6개교에 관한 일반현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II-2> 자립형 사립고 일반현황

구분	광양제철고	민족사관고	상산고	포항제철고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개교	1986.3.3	1996.3.1	1981.3.4	1981.3.3	1980.3.1	1981.3.1
위치	전남 광양	강원 횡성	전북 전주	경북 포항	부산 해운대	울산 동구
학교규모	33학급 1,176명	30학급 450명	36학급 1,105명	39학급 1,383명	18학급 556명	18학급 538명
교직원	86명 (교원 70명, 직원 9명)	94명 (교원 78명, 직원 16명)	105명 (교원 87명, 직원 18명)	96명 (교원 81명, 직원 15명)	45명 (교원 39명, 직원 6명)	61명 (교원 56명, 직원 5명)
교사당학생수	16.8명	5.76명	12.7명	17.0명	14.2명	9.6명
납입금	1,042,000원	2,817,600원	3,900,600원	1,151,466원	4,415,400원	2,831,320원
시범운영	2002.3.1	2002.3.1	2003.3.3	2002.3.1	2003.3.1	2002.3.3

자료: 김주후(2005)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평가보고서 및 각 학교 홈페이지 참조. 한국교육개발연구원

현재 시범운영중인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8월에 중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5년 7월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현장방문평가단’에서 현장방문평가를 수행하여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현장방문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외에도 2002년도에 제출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운영 보완 방안 연구’도 초기에 시작한 3개교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전교조와 민주노동당에서 별도의 자료를 토대로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다양한 자료가 축적되어 왔다. 이상의 연구와 자료들을 근거로 현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중인 6개교의 현황을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현황, 인사관리 운영 현황, 재정 운영현황등의 4개 영역으로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생선발

6개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에서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자격기준 및 전형방법을 달리하여 선발 방법의 다양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특별전형에서는 영역별 특기자들, 일반전형에서는 내신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를 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학교별로 점차 특별전형 비율을 늘려 가고 있는 추세이며, 대부분의 학교들이 내신 성적, 학생생활기록부 등 서류 심사 외에도 학생들의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성기선,2005). <표 II-3>은 학교별 입학 전형 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3> 학교별 입학 전형 방식

구분	평양제철고	민족사관고	상산고
자격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 포스코 직원 자녀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 특별 : 비직원 전남 거주자 자녀(내신 5%이내, 경시대회수상, 한국정보올림피아드참가자, 토의 700점 이상, 영세주민자녀 또는 예체능특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 토폴 260 이상, 민족사관고 수학경시대회참가자 - 인문 : 토폴 220 이상, 민족사관고 수학경시대회참가자 - 자연 : 각종경시대회 수상자 및 참가자 · 지역균형선발제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 중학교 졸업(예정)자 · 전북 지역 선발 : 일반전형 정원의 25% 내외로 선발 · 특별 : 수학생적우수자, 영어성적우수자, 대회입상자(국어, 수학, 과학, 정보, 태권도)
모집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 297명(73%) · 특별 : 110명(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 15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 234명(75%) · 특별 : 126명(35%)
모집단위	· 전남	· 전국	전국
전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전형- 지원 분야에 따라 수상 실적이나 성적순 · 일반전형- 학교내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서류전형 · 2차 영재판별검사: 인문, 사회/수리, 과학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전형 : 학교 내신과 특기자 전형 · 일반전형-학교내신과 심층

		· 3차 면접, 인성면접 : 중학교 전 과정에 해당하는 학업능력 측정	면접 (국, 영, 수 교과면접)
구분	포항제철고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자격조건	· 일반 : 포스코 및 계열사 임직원자녀 · 특별 : 경시대회수상자, 한국정보올림피아드참가자, 내신 3%이내인자, 영세주민자녀, 체육특기자, TOEIC 700점 이상, TEPS 650점 이상인 자	· 일반전형 실시	· 일반 : 제한 없음 · 특별 : 학업성적우수, 영재교육수료자, 재능우수자
모집인원	· 일반 : 273명(60%) · 특별 : 182명(40%)	· 일반 : 180명(100%)	· 일반 : 134명 이상(75%) · 특별 : 46명 이내(25%)
모집단위	· 경북	· 전국	· 전국
전형방법	· 특별전형- 지원 분야에 따라 수상 실적이나 성적순 · 일반전형- 학교 내신과 논술	학교내신, 가산점, 심층면접 (수학구술평가)	· 특별전형- 학교 내신으로만 선발 (재능 우수자는 서류전형과 심층면접 실시) · 일반전형- 1차 서류전형, 2차 학업적성검사

자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방문평가 보고서 및 각 학교 홈페이지의 2009년도 입시전형을 참고함.

2) 교육과정 운영 현황

현재 시범운영중인 6개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각 학교마다 독특한 건학이념을 실현하고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보기 힘든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현황은 <표 II-4>와 같다.

<표 II-4> 학교별 건학이념 및 구현활동

학교	건학이념	구현활동
광양제철고	자주인, 도덕인, 창의인의 실현	1학 1특성화, 창의성개발, 특기적성개발, 정직성 함양교육, 정보화, 독서 토론교육, 교육현장의 개혁운동, 쇄부리 문화축제,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운영
만족사관고	민족주체성, 영재교육	전통음악 지도, 국궁지도, 삼대 민족 체육대회, 매일 아침 전통무예(태권도, 검도 중 택1), 전통 예절교육, AP코스 운영. 건학이념 공유를 위해서 각종행사시, 학생의 교훈(건학이념 포함)암송
상산고	지성, 덕성, 야성	각 분야의 명사초청 특강, 음악특강, 개인연구(토론, 글쓰기), 교과중심 교사배치, 태권도 지도, 동물애호심을 갖도록 진돗개 분양, 방송문화(3년마다 혼화집 발간)

포항제철고	자주인, 도덕인, 창의인의 실현	HSP 운영으로 수학, 과학 분야 심화 탐구과정을 운영,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 자주 조회와 종례(매월 1회)를 통해 건학이념 이해도를 확인 점검
해운대고	미래의 지도자 양성	자치법정, 예절 교실을 운영, 수준 높은 독서지도, 해외 문화체험과 체험·수련활동을 강화, 학교 홈페이지와 학교 소식지, 교직원 게시판(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건학이념 공유
현대청운고	인간화, 세계화	청운 능력 인증제(봉사활동 외 3개영역 이상: 독서, 한자, 영어, 정보 등) 실시, 명사초청 특강, 해외 체험활동, 그룹스터디 활성화, 울산대와 교류프로그램을 운영, 설립자 정신 계승교육을 실시(아산정신학 시간), 현대 계열사 CEO 초청 특강, 지역사회 학교를 운영하고 학부모의 날(연 2회)을 운영하여 건학이념 공유

3) 인사관리 운영

6개 학교의 인사관리 운영에서의 현황을 교원확보,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현황, 학생납입금 현황, 법인전입금 현황, 장학금 지급 현황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원 확보

6개 자립형 사립학교 모두 건학이념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는 우수 교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듯 하며, 특히 심화학습과 개별 연구 및 AP과목 강좌를 위해 초빙된 교수들과 산학 겸임교사가 있다. 각 학교의 교원 확보 현황은 <표 II-5>에서 제시된 바와 같으며, 산학겸임교원은 광양제철고, 상산고, 포항제철고등 3개 학교에서만 활용하고 있다. 민족사관고를 제외한 교원들의 자격증 소지비율은 9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5> 교원 확보 현황

구분	교장자격여부	교원수 (A)1)	유자격 교원수(B)	자격증소지 비율(B/A)	비정규직 교원(C)2) (비율=C/A)	산학겸임교원 (전체 교원 대비 비율)
광양제철고	유	70	70	100%	13(18.5)	3(4.2%)
민족사관고	유	66	37	56.0%	4(6.0)	-
상산고	무	85	75	83.3%	9(11.0)	4(4.7%)
포항제철고	유	96	89	92.7%	27(28.1)	4(4.1%)
해운대고	유	54	52	96.2%	13(24.1)	-
현대청운고	유	63	62	100.0%	9(14.3)	-
전체	-	434	385	89.0%	75(16.0)	

주1. 산학겸임교사제외, 2. 기간제교사, 전임강사, 시간강사, 원어민교사, 외국인 교사, 계약제 교사 등
 자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방문평가 보고서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전직 교육부장관, 상산고등학교는 전직 서울대 부총장을 교장으로 영입하여 보다 넓고 참신한 안목으로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고 있음.

광양제철고등학교는 산학 겸임교사를 제외한 전교원이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축구부 활성화를 위해 산학 겸임교사 3명을 임용하였다.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원어민 교사 1명을 초빙하였다.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산학 겸임교사는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영재 교육을 위한 심화학습과 개별연구 및 AP과목 강좌를 위하여 박사학위 소지자로 분야별 전문가를 다수 임용하고 있다. 영어회화 교육을 위해 원어민 교사 4명을 임용하였다. 상산고등학교는 산학 겸임교사로 대학교수 3명(국어, 수학, 음악), 대학 강사 1명(일본어)을 초빙하였다.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원어민 교사 5명을 임용하였다. 심화학습과 수준 높은 강의를 위해 초빙한 박사학위 소지자가 8명이다. 또한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사립고등학교 재정지원 정원 73명보다 9명 많은 82명의 교원을 확보하고 있다.

포항제철고등학교는 산학 겸임교사 4명을 초빙하였다. 러시아 출신 영재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수학 영재를 교육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출신 체조지도자 2명을 초빙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H.S.P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포항공대 교수 4명을 초빙하여 수학, 과학 과목을 지도하고 있다.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첼로, 오보에, 비올라, 베이스를 전공하는 음악과 시간강사 4명을 임용하였다. 해운대고등학교의 경우 산학 겸임교사는 없으며 고급수학과목 지도를 위해 대학 강사 1명(박사학위 소지자)을 임용하였다. 우수교사 확보를 위해 계약제교사 채용 시 호봉을 현실화 하고 있다(경력 인정). 아울러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원어민교사 2명(영어, 중국어)을 임용하였다. 현대청운고등학교는 산학 겸임교사는 없으며 설립자 정신 계승교육의 일환으로 ‘아산정신학’강좌 개설 및 전담교사 1명을 배치하였다.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등과 연계하여 교수·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수학).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원어민 교사 2명을 임용하였고, TOEFL 전담교사 1명을 배치하였다. 법인 산하 5개교에서 우수 교사를 최우선으로 임용하였다. 또한 기숙사 사감 5명을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임용하였다.

(2)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현황

자립형 사립고별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대체로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이 연수에 국한되고 있다. 교원연수의 내용도 건학이념의 공유 및 구체화와 관련된 경우는 많지 않은 듯하다. 반면 광양제철고와 포항제철고의 교사 연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민족사관고의 전교원 교원연구비 지급, 현대청운고의 교수-교사간 교과협의회 운영 등은 특색 있는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교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2005년도의 각 학교별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연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광양제철고등학교는 모든 교사에게 2년에 60시간 이상의 연수를 권장하고 있으

며, 장기적으로 교원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연수비 지원에 있어서 국내 직무연수는 30만원, 해외연수는 최고 3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계 및 동계방학을 이용해 전체 집단연수를 실시한다. 영어과 교사에게는 영어권 국가 연수비를 지원하고 있다(평균 1인당 300만원). 현장 연구대회 참가시 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교원 전체 직무연수 2회, 개인 직무연수에 45명이 참가 하였다. 학교부담 직무연수 20건, 교과교육 연구회활동비 2,205천원, 현장연구대회 1,200천원, 개인 직무연수비 4,237천원, 교사 해외연수비 3,000천원 등 총 12,532천원 지원되었다. 민족사관고등학교는 교사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여 전문성 신장을 위한 동기유발을 꾀하고 있다. 지급액은 최고 49,866천원에서 최저 3,090천원까지이다. 실적으로는 2004년에는 교원전체 직무연수 2회, 개인 직무연수에는 13명이 참가 하였고, 학교부담 개인연수는 7회, 10명이 참가 하였다. 상산고등학교 역시 많은 교사들이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듯 하며 이를 위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전체 집단연수비로 10,000천원, 교직원 해외연수비로 11,310천원 지원되었다. 또한 부별 협의회, 과별 협의회, 학년협의회 등을 통해 전문성을 신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2006년도 지원 예산은 부별 협의회비 4,800천원, 교과 협의회비 3,440천원, 학력 증진비 52,000천원이 지원되었다.

포항제철고등학교는 교사들의 연수를 적극 권장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신임교사, 기간제 교원 등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제공). 또한 최장 3개월의 국내연수, 32일간의 영어교사해외연수, 10일간의 교원 특별 해외연수 등이 학교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적으로는 교원 전체 직무연수 7회, 개인 직무연수에는 76명이 참가 하였다. 연수비로 27,867천원, 개인 연구비로 1,500천원이 지원 되는등 활발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운대고등학교는 전교원이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체 집단연수가 많이 이루어졌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등 외국어 회화 위주의 연수를 실시하고, 연 1회 전교직원의 1/2이상이 해외체험 인솔 및 교육자료 수집을 위해 해외를 다녀온다. 전체 연수는 7회 실시되었고 교직원 어학연수로 영어 15명, 일본어 9명, 중국 13명이 참여하였다. 개인 직무연수에는 9명이 참가하였다. 교원 연수비로 어학연수 경비 1,000천원, 각종강연 초청 연수비 1,500천원, 교과 협의회비 4,004천원이 지원되었다. 특히 교과 협의회를 통해 학과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이 많이 이루어졌다. 현대청운고등학교는 전교원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워크샵, 직무연수 등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적극 참가하고 있다. 동일법인 산하 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교수·교사 간 교과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 상담 기법 연수 등을 실시하였고 학교부담 개인 직무 연수에는 3명이 참가하였다. 실적으로 교원 전체 직무연수 2회, 개인 직무연수 7명, 해외연수 5명이 참가하였다. 전 교원이 동남아시아, 중국, 유럽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다. 교과 연구비 1,300천원, 공개수업 및 교과 경영 연구비로 1,800천원 지원되었다.

4) 학생납입금 현황

학생 납입금의 경우 실제 학생들이 학교에 납부하고 있는 납입금과 그 외 교육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수익자 비용 부담액과 같은 2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학생 납입금 수준

자립형 사립고가 모두 학생 납입금을 소재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3배대로 징수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특히 포항제철고와 광양제철고는 지역소재 일반계 고등학교와 거의 같은 수준이며, 현대청운고는 2배 수준이다. 학생 1인당 납입금 수준 및 비율은 <표 II-6>와 같다.

<표 II-6> 연간 학생 1인당 납입금 수준 및 비율

(단위 : 원)

	광양제철고	상산고	민족사관고	포항제철고	해운대고	청운고	평균
일반계 평균	1,012,000	1,300,200	906,493	1,082,466	1,471,800	1,415,660	1,198,103
등록금수준 (비율)	1,042,000 (1.03)	3,900,600 (3.0)	2,817,600 (3.0)	1,151,466 (1.1)	4,415,400 (3.0)	2,831,320 (2.0)	2,693,064.

자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방문평가 보고서

(2) 납입금 외 수익자 비용 부담

학생 납입금이 소재 지역 일반계 고교의 3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그 외의 수익자 부담 경비는 <표 II-7>과 같다. 기숙사비를 제외한 학생 1인당 연간 수익자 비용 부담액은 광양제철고가 1,458,340원, 민족사관고가 4,979,018원, 상산고가 2,120,500원, 포항제철고가 1,566,964원, 해운대고가 3,084,525원, 현대청운고가 1,951,925원으로 나타났다.

<표 II-7> 연간 학생 1인당 연간 수익자 비용 부담액

(단위 : 원)

	광양제철고	상산고	민족사관고	해운대고	청운고	포항제철고	평균
기숙사비 미포함	1,458,340	2,120,500	4,979,018	3,084,525	1,951,925	1,566,964	2,526,879
기숙사비 포함	-	5,480,500	12,569,163	5,484,525	2,293,925	-	6,457,028

자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방문평가 보고서

주: 1) 민족사관고는 기숙사비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음.

2) 광양제철고와 포항제철고는 기숙사가 없음.

5) 법인전입금 현황

6개 자립형 사립고 모두 학생 납입금 대비 20%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의무 부담금 외에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된 이후 많은 시설투자로 인하여 등록금 대 법인 전입금 비율은 평균 37:63으로 나타났으며, 세입 총액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은 평균 44.4%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을 살펴 볼 때, <표Ⅱ-8>과 같이 의무부담금 외에도 법인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Ⅱ-8> 세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및 등록금 비율 현황

(단위 : 천원, %)

	광양제철고	상산고	민족사관고	해운대고	청운고	포항제철고	평균
법인전입금 규모	3,886,931	2,862,347	2,841,684	435,000	1,172,733	4,575,400	2,629,016
등록금 규모	1,124,697	2,738,520	378,524	1,495,128	720,409	1,480,005	1,322,881
등록금 : 법인전입금	22:78	49:51	12:88	77:23	38:62	24:76	37:63
법인전입금/세입총액	64.4	28.8	44.4	11.2	55.1	62.5	44.4
등록금/세입총액	18.6	27.5	5.9	38.3	33.8	20.2	24.1

주: 1) 등록금 규모는 수업료 + 운영회비(육성회비) 총액
 2) 상산고는 2003년 시설비전입금 3,871,461천원을 포함한 2년간 평균 수치임.

6) 장학금 지급 현황

장학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장학금 수혜 학생의 비율로 보면 최저 21.1%(상산고)에서 최고 98.5%(광양제철고)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납입금 대비 장학금 비율로는 평균 46.3%로 나타났다. 이는 전액 면제로 환산하여 15%이상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학금 수혜 현황은 <표Ⅱ-9>과 같다.

<표 Ⅱ-9> 장학금 수혜 현황

(단위 : 원, 명, %)

	광양제철고	상산고		민족사관고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평균
		수업료	운영비					
1인당 장학금	945,700	510,218 599,398	89,180 (15.1)	1,433,421	730,380	659,550	933,690	883,690
장학생수 (수혜비율)	1,119 (98.5)	147 (27.1)	82 (15.1)	63 (41.7)	152 (42.9)	66 (24.26)	1,116 (83.2)	- (51.9)
장학금총액/납입금총액	90.8	15.4		50.9	16.5	23.3	81.1	46.3

자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방문평가 보고서

3. 최근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방향

<표 II-10> 다양화 300 프로젝트

● 원칙과 전략

○ 학생·학부모의 선택이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력을 살립니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시작으로 사교육이 필요 없는 다양한 고교를 만들겠습니다.

○ 이렇게 하여 현재 학생당 월 45만원에 달하는 일반계 고교의 사교육비(연간 총 7조원)를 절반(총 3조 5천억원)으로 줄이겠습니다.

● 실천방안

(1)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 농촌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교 지정
- 해당 지역 학생들을 우선 입학시키고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준비
-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 등에 다른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
-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음

(2) 마이스터고교 50개

-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진학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전문계 특성화고교 50개교 집중육성
- 학비면제는 물론, 외국어 교육, 해외연수 및 취업·진학 지원
- 커리큘럼과 교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학교단위 자율성 보장
- 산업체, 시민단체 등도 협약을 통하여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통로 마련

(3) 자율형 사립고 100개

- 자율운영과 창의교육을 하는 사립고 100개 전환
- 국가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평가를 받는 새로운 형태의 사립고교 모형
- 현행 자립형 사립고의 재정규제(법인전입금)를 낮추면 최소 100개 고교 전환 예상
- 연간 2천5백억원 수준(100개교 전환 시)의 교육재정(사학결손보조금) 절감 효과, 이를 다른 낙후지역과 저소득층학생지원 재원으로 활용

(4) 고교 특색 살리기 플랜

-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는 1859개 고교에는 연간 운영비의 10%(학교별 1억5천만원 규모)를 추가 배정 지원
- 고교별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재량으로 집행
- 교원보강, 행정지원 인력 확충, 교과연구, 시설관리 등에 활용하거나 논술이나 예체능 과목 등 학생의 수요를 학교에서 제공

(5) 학생별 맞춤형 장학지원 시스템

- 돈이 없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못 가는 경우가 없게 맞춤형 장학제도 마련
- 기숙형 공립고교의 기숙사비, 영재·과학고교·자율형 사립고의 납입금 등을 학생의 가정형편에 따라 장학금으로 지원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표 II-10>와 같은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라는 정책 달성을 위해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현행 자립형 사립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한층 확대한 학교 모델인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 운영 모형’과 같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표 II-12>와 같은 4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로서 기존에 전국 6개의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02.3~’10.2)에서 나타난 학생선택권 확대등 성과는 확대하고 높은 전입금으로 인한 사립학교 참여 제한, 사교육비 유발 등의 문제점은 최소화하는 모델인 것이다.

1) <표 II-11 > 사립고 유형별 비교

구분	일반 사립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사립고
개수	655	6	설립예정
학생모집	학군·광역시도	전국 또는 지역	광역시도
지정권자	교육감	교과부장관	교육감
제정납입금	시도교육감 결정	일반계고 3배 이내	시도교육감결정
법인전입금	기본재산수익의 80%	학생납입금총액의 25%	납입금의 3~5%이상

자료: 정일환·김경선(2002) 참조

현행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법인 전입금(등록금 수입의 25%)과 장학금(전체 학생의 15% 이상) 비율이 높게 책정돼 있는 등 까다로운 기준이 많아 자율성이 떨어지고 참여할 수 있는 사학이 한정돼 있다는게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그렇다 보니 수요에 비해 학교 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이어지므로 학교설립 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학교들이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방침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 운영에서의 자율성도 한층 확대된다. 일단 학교 선정 주체부터 자립형 사립고는 교과부 장관에게 있으나 자율형 사립고는 시도 교육감에게 일임되고 학교 형태도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무학년제, 다학

1) 여기에서 용어의 대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데 일반 사립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사립고에 관한 차이점을 이야기 하자면 <표 II-11>와 같다. 우선 학교 지정권자부터 다르다. 자율형 사립고는 시도 교육감이 학교 지정권자다. 자립형 사립고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다. 학생모집도 다르다. 자립형 사립고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지만 자율형 사립고는 지역제한제가 적용된다. 광역 시·도별로만 모집할 수 있다. 교과 운영에서도 자립형 사립고는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자율형 사립고는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일부 자율로 할 수 있다. 결국 자율형 사립고는 자립형 사립고에 비해 전 영역에 걸쳐 좀 더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발전된 모델이다.

년제 등 다양한 학년 운영도 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자율형 사립고 역시 재정결함 보조금(정부지원금)이 없고 등록금도 일반고의 3배까지 받을 수 있다. 재단 전입금은 학생 등록금의 10%이고, 정부의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정원 30%)이 대폭 지원될 예정이다. 자립형 사립고 보다 학교의 자율성을 더 확대한 모델로, 예컨대 학사 운영을 현행 2학기 대신 3학기, 4학기 등으로 바꿀 수 있다. 교과 편성 등도 학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기존 자립형 사립고는 희망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자립형’은 ‘자율형’으로 명칭이 통일된다. 물론 법인 전입금 비율을 25%로 계속 유지한다면 명칭은 ‘자율형’으로 바뀌지만 전국단위 학생 모집 등 기존 ‘자립형’ 사립고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표 II-12>에서 제시된 자율형 사립고 4개 모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형Ⅳ는 통일된 법인 전입금 비율 기준을 두지 않고 시·도 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법인 전입금은 등록금, 정부 재정보조금 등과 함께 사립학교의 예산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현행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법인 전입금 비율(등록금 수입의 25%)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등록금은 모형Ⅰ~Ⅲ 모두 ‘일반학교의 3배 이내’로 제한했으나, 모형Ⅳ는 시·도 교육청 자율로 정하게 했다. 학생선발 방식의 경우 과열입시 경쟁을 막기 위해 4개 모형 모두 지필고사는 금지하되 선발 범위는 모형Ⅰ~Ⅲ은 광역단위로, 모형Ⅳ는 전국 또는 광역단위로 선발하게 했다. 또 모형Ⅱ는 평준화 지역에 한해 내신 선발과 추천제를 병행하고 모형Ⅲ은 평준화 지역에 한해 선지원 후추첨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4개의 모형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이 중 하나를 정부안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곧 획일적 관치 교육의 탈피와 학교 운영의 자율화를 통한 교육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2009년 3~5월에 시도 교육청 별로 자율형 사립고 심의·지정 절차를 진행해 30개교를 지정한 뒤 2010년 30개교, 2011년 40개교를 추가 지정해 100개교의 자율형 사립고를 만들 계획이다.

<표 II-12> 자율형 사립고 지정요건

구분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법인 전입금	· 등록금 수입의 15%이상	· 대도시 : 등록금 수입의 10% 이상 · 중소도시 이하 : 등록금 수입의 5% 이상	· 등록금 수입의 3%이상	· 시·도교육청 자율	
등록금	· 일반학교 3배 이내 * 일반학교 1인당 연간 등록금 평균 : 144만원			· 시·도교육청 자율	
재정보조	· 없음	· 차등 지원	· 시·도교육청 자율 결정	· 시·도교육청 자율	
학생선발	· 광역단위(시·도) 선발	· 광역(시·도)단위 선발	· 광역(시·도)단위 선발	· 전국/광역단위 선발	
	· 평준화, 비평준화 지역 : 학교 자율 선발 (지필고사 금지)	· 평준화 지역 : 내신 선발과 추첨제 병행 · 비평준화 지역 : 학교 자율 선발 (지필고사 금지)	· 평준화 지역 : 선지원 후추첨제 · 비평준화 지역 : 학교 자율 선발 (지필고사 금지)	· 평준화, 비평준화 지역 : 학교 자율 (지필고사 금지)	
교육과정	· (고교 1학년) :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국민공통기본교과 56단위 중 80%(45단위)만 이수하고, 나머지 20%는 학교 자율 · (고교 2~3학년) : 일반계 고교 필수교과 136단위의 100% 학교 자율				
장단점	장점	· 학교 자율성 대폭 확대	· 모형 I에 비해 사교육비 감소	· 사교육비 유발 최소화	·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학교 육성
	단점	· 높은 법인전입금을 부담할만한 학교가 적음 · 사교육비 증가 및 평준화 해체 논란	· 내신 사교육은 여전히 발생할 가능성 존재	· 학생선발 자율권 제약으로 사립학교 참여율 저하 예상	· 다수의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08. 10. 2)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 100개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최근 서울시 교육청은 2008년 12월 31일 하나금융의 학교법인인 하나학원이 신청한 ‘하나고 설립계획’을 최종 인가했다. 하나고는 2010년 3월 서울 은평 뉴타운에 들어서며 국내에서는 일곱 번째이고, 서울에선 처음인 자립형 사립고이다. 기존 자립형 사립고와 마찬가지로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반영하여 국제경제와 금융 분야를 특성화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가지고 성적우수자 5%를 포함하여 정원의 60%를 일반전형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하나금융 임직원자녀를 각각 20%씩 선발한다. 하지만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처럼 전국단위의 학선 선발이 아니라 일부 특별전형은 제외하면 서울지역 학생만 지원 할 수 있다. 물론 지필평가는 학생선발

방법에서 제외된다. 법인전입금은 완성학년기준 수업료 총액대비 약 44%를 학교에 전출예정이며, 수업료는 일반고교의 3배 이내로 책정한다고 한다. 기존 자립형 사립고와 같이 귀족학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학생정원의 15%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되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우선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이와 별도로 저소득층 우수 학생 15%에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어서 모두 30%의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과정 역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이외에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정부는 하나고의 자립형 사립고 지정에서 보여 주듯 자율형 사립고 지정 요건의 여러 유형과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사학에 자율성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통해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각 학교의 교육경쟁력을 발전시켜 공교육의 내실화를 꾀하려 하는 것이다. 최근 자율형 사립고를 중심으로 공청회가 지속적이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단위학교에 더 많은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 정책은 그 중심에서 논의 되고 있는 것이다.

III. 자립형 사립고의 개념적 특징

다분히 이 시대 국가교육정책의 화두는 ‘다양화’, ‘특성화’이다. 고교평준화 존폐 논쟁에서도 획일성이 아닌 다양화가 그 핵심 쟁점이며, 대학의 서열화 관련 문제에서도 다양화, 특성화는 그 주요한 해결방향의 하나로 제시되곤 한다. 이미 발표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서의 핵심어도 고교교육의 ‘다양화’이다. 따라서 다양화와 특성화를 그 특징으로 하는 소위 ‘명문학교’로 그 위상이 부각되어 있는 자립형 사립고의 개념적 특징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자립형 사립고와 관련된 각종 정책에 대한 분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에 이장에서는 자립형 사립고의 개념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립형 사립고는 재정적 자립능력과 더불어 학교 나름의 건학이념이라는 전제 위에서 거론된 학교였다. 그런 점에서 건학이념과 이를 구현할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야말로 자립형 사립고라는 새로운 제도의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립형 사립고가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을 독점하여 입시명문화 할 것이라는 우려를 생각하면 자립형 사립고의 개념을 어떤 방향으로 규정해야 하는 가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본 연구에서는 자립형 사립고의 개념적 특징을 3개 영역 즉 자율성, 다양성 및 학교선택권으로 분류하여 현행 일반 사립고와의 차이점을 통해 정의 내려 보고자 한다.

1. 학교 운영의 자율성

자립형 사립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영역이 학생선발, 학교재정, 학교운영의 투명성, 교원자격 및 학사운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립형 사립고는 기존의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와 달리 자율성을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생선발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학생 선발시 기존의 고교평준화 정책에 구속받지 않고 학교별 다양한 기준과 선발방식을 통해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 현행 국·공립학교를 비롯한 일반 사립고에서는 학생 선발시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이 바로 그것이다. 평준화 지역의 경우 학군별로 학생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다.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시·도별로 각 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하도록 되어있다.

반면에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지침’

에 그 방법이 제시되어져 있는데 학사운영에는 신입생 선발 방법과 지켜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지침에 의하면 ①신입생 선발시기는 전기학교로 하고, ② 학교별 선택에 따라 전국단위, 지역단위 또는 전국·지역단위로 병행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③전형방법은 학교의 자율에 따르되, 지필고사(논술은 제외)는 금지하며, ④입학전형 방법을 다양화, 특성화하고 ⑤입학전형 계획을 사전에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⑥학생선발에 관해서는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존중한다고 되어있다.

무엇보다 학생선발 기준의 다양화를 위해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자격기준 및 전형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학생 선발시 국·영·수 교과위주의 지필고사는 실시하지 않고 중학교 내신성적, 봉사활동, 학생생활기록부등 서류 심사 외에도 학생들의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한 실기고사, 면접고사, 적성검사, 인성검사, 자격증 소지자, 검정고시 합격자, 학교장 및 종교단체 등 각종 추천자, 수학·과학·영어·컴퓨터 등 각종 경시대회 입상자와 각종 수상경력자들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아울러 농·어촌 또는 취약계층 자녀 우대 등을 그 주요 방법으로 하고 있다.

2) 학교재정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무엇보다 학생등록금의 징수를 기존의 학교보다는 3배 이내에서 할 수 있다는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납입금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납입금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103%부터 300%까지 자율적 책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시범학교 6개교중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를 제외한 4개 학교는 기숙사비를 함께 징수하고 있다. 일반 사립고의 경우 시·도교육청 재정결함 보조를 받고 있으나 자립형 사립고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시·도교육청 실정에 따라 목적지정 특별사업 등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3) 학교운영의 투명성

학교운영의 투명성 역시 자율성을 부여 받았다고 보다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자립형 사립고도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학사관리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현장을 제정, 공개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필수화하여 등록금 수준의 결정 등 학교운영상 중요 결정과정에 학부모, 교원 및 지역인사들이 참여해야 하는 등 학교 재정운영 및 학사행정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4) 교원자격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교원자격이 없는 인사들을 채용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 받았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교원자격은 반드시 필요하며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①교장은 자격이 없어도 경영능력이 있으면 임용가능하고, ②교감과 교사는 자격이 필요하며, ③산학겸임교사를 교원 정원의 1/3까지 임용가능하고, ④자격 미소지 교장과 산학겸임 교사에게는 특별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교원자격증으로 인한 우수 교원 확보에 따른 제약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5) 학사운영

자립형 사립고는 학사운영에 있어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지는 못하나, 기존학교들에 비해 교육과정 및 교과서 선택, 그리고 수업일수 확보에 부분적인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은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이수단위 수를 조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정, 검·인정 교과서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간 수업일수는 220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자립형 사립고는 ①국민공통기본교과 교육과정 56단위 외에는 학교 자율로 편성 가능하나 입시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②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거쳐 운영하고, ③시·도교육청은 이의 일관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④시·도 교육청 지정 교육과정은 자립형 사립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교과용 도서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과목 외에는 국정, 검인정 교과서 이외에 학교에서 자율로 사용하도록 하여 특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년도, 학년제, 수업연한은 일반 학교와 같으나, 연간 수업일수는 198일 이상으로 하고 있다. <표 III-1>은 자율성 측면에서 본 사립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부문별로 비교분석한 내용이다.

<표 III-1> 자율성 측면에서 본 사립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비교

구분		사립고교	자립형 사립고(시범학교)
성격		일반 사립고교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재정이 건실한 학교 중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학생선발	모집단위	평준화 지역 : 학군별 배정 비평준화지역 : 시·도별 모집	전국, 지역단위 또는 전국·지역병행 가능(학교자율)
	방법	평준화 지역 : 학생배정	학교별 선발(시행령 105조)

		비평준화 지역 : 학교별 선발(시행령 제77조, 제84조))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는 불허
교원자격		교원자격 필요(법 제21조) 산학겸임교사, 강사등 활용(법제22조)	학교장은 자격 불필요(법 제61조) 한학겸임교사(교원정원의 1/3)등 활용(시행령 제35조)
교육과정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이수단위 수를 조정, 운영(법 제23조)	국민공통과정 외에는 자율적으로 조정, 운영(법 제 61조)
교과서		국정, 검·인정 교과서 사용(법29조)	국민공통과정 과목 외에는 자율(법 61조)
수업일수		220일 이상(시행령 제45조)	198일 이상(시행령 제45조)
재정관리	법인전입금	수익용 기본 재산 발생 수익의 80%이상	학생납입금대비 8:2이상
	등록금	시·도교육감이 정함(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2조)	자율(당해지역 일반계고의 3배 이내에서 학교장이 결정)
	장학생비율	규정 없음	학생 15%이상 장학금 지급 의무화
	재정결합보조	보조할 수 있음	없음
학교현장		제정할 수 있음(규정 제14조)	제정·공개 의무화
학교평가		평가실시 가능(법제9조)	매년 평가 및 결과발표회 개최

2. 교육활동의 다양성

자립형 사립고의 또 다른 개념적 특징은 다양성으로서 교육활동 측면에서 기존 학교와는 좀 더 차별화된 각 학교의 특성과 건학이념에 맞는 교육과정과 수업방식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영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기본적으로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 지침에 따라 6개 학교 모두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56단위는 준수하고 있으며 학교 재량활동 12단위, 특별활동 12단위(1학년 4단위, 2~3학년 8단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자립형 사립고가 특별활동 지도 영역으로서 교육부가 고시한 5개영역의 활동과정을 모두 편성 운영하는 것을 큰 틀로 하고, 그 안에서 학교 나름대로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꾀하고자 한다. 자립형 사립고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고1 과정인 ‘국민공통 기본교과’는 배우되, 나머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수업일

수가 198일로 일반 고등학교의 220일보다 적어서 나머지 시간을 자율활동, 특별활동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각 학교마다 특징적인 교육과정을 확보하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의 교육과정에서의 다양성은 6개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 특기·적성 교육, 재량활동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 정규 교육과정의 다양성

(1) 광양제철고등학교의 사례

광양제철고등학교는 논리학 4단위를 편성 운영하고, 영어, 수학 교과외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정 특성화 노력 부문에서는 특별활동에서 5대 사회과제(환경파괴, 안전 불감증, 잘못된 장묘문화, 저출산, 지역감정)를 강조하고 있으며, 주 1회 이상 주제 일기를 쓰도록 하고 있다. 토익 연구반 운영, 독서인증제 실시, 정보화 교육 차원에서 1인 1자격 취득을 목표로 지도하고 있다. 또한 학생회를 통한 학생 자치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생을 초청하여 대학 및 대학 진학 정보 제공, 지역연합 특별활동 발표회, 한빛제등 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들의 인성발달을 돕기 위해 방학 중 사회복지 시설 및 공공기관 일손 돕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동아리의 경우 30개 반으로 편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사례

민족사관고등학교 토론 및 독서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과학영재 교육(발명반, 과학탐구반 등), 조기졸업제도, 대학 과정을 고교 과정에서 이수하는 AP제도(유학반 학생들이 수강하며, 외국어, 수학, 역사, 지리, 물리 등 10개과가 개설되어 있다)가 있다. 아울러 학생 수요에 따른 선택과목 개설을 최대로 보장하고 있다(다양한 전문교과목 개설 운영). 일반계열과 국제계열을 분리 운영하고 있으며, AP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총 80단위). 특히 민족 주체성 교육의 일환으로 국악, 무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 계열의 교육과정은 크게 1학년의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과 2~3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민공통 기본교과과정은 1학년 때 이수하고 1학년 2학기부터 AP 선택 교과를 이수하기 시작해 3학년 1학기까지 학교에 개설된 AP 16과목(영문학, 미국사, 미국정치, 유럽사, 세계사, 심리학, 미시·거시경제, 물리B·C, 미적분, 화학, 생물, 환경, 컴퓨터, 통계) 중 8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다. 국제 계열 대부분의 과목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한다. 교과과정 이외에 학생들이 연구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여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간의 연구 활동을 통해 학생 논문으로 작

성하도록 지도한다. 교육과정 특성화 노력 부문에서는 건학이념에 맞춰 국악 1인 1기 교육, 전통무예 1인 1기(검도, 태권도, 국궁)교육, 혼정신성의 생활화 및 일상의 생활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민족 6품제(영어품, 심신수련품, 예술품, 봉사품, 독서품, 한자품)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 봉사활동(독거노인 봉사활동, 헤비타트, 공부방 운영 등)을 통해 총 80시간 봉사활동에 대한 봉사품 인증을 하고 있다. 또래 상담과정 운영 및 또래 학습도우미 운영을 위한 MPT(Minjok Peer Tutoring)제도 활성화하고 있으며, 학생자치위원회와 학생 법정의 운영하고 있다. 계발활동으로 동아리는 83개(학생 1인당 평균 4개 동아리 활동)로 토요일 오후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3) 전주상산고등학교의 사례

상산고등학교는 월 2권의 책을 필독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을 초청해 1주일에 1회 강좌를 연다. 생활영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수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눠 지도하며, 1~2학년 대상으로 원어민 강사가 영어회화를 1주일에 2시간 수업한다. 또한 저명한 수학 교수를 초빙해 매주 1회 2시간씩 수업하며, 15명 내외의 수학경시대회 및 올림피아드 대비반을 별도로 운영한다. 또한 학생 수요에 따라 선택 과목 개설을 최대로 보장하고 있다(1학년 말 수요조사, 소수 학생 선택반 개설). 모든 학문 연구에 기본이 되는 논리력 향상을 위해 수학 특강, 과학 특강(대학교수 초빙)을 실시하고 있다. 1학년 2학기부터 필요 시 수준 별 이동수업(수학)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정 특성화 노력으로는 원어민 강사 5명을 초빙하여 주당 2시간씩(1,2학년) 영어회화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독서 프로그램으로 양서읽기 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주당 2시간씩(1,2학년) 수업시간을 편성하여 토론, 주제글쓰기, 발표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학교수(국문과)를 초빙하여 주제 설명, 토론, 글쓰기, 첨삭지도로 진행이 되는 개인연구 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태권도를 교기로 선정하여 주당 1시간씩, 2년간 지도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이 2단 이상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서함양을 위해 2학년을 대상으로 음악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성악전공 교수 초빙). 상산고의 경우 타 학교와는 구별되게 봉사 및 체험활동으로 음성 꽃동네 체험활동 실시(1학년)하고 있으며, 행사활동으로 카일라이 축제, 체육대회, 스키 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계발활동으로 44개의 동아리를 운영(격주 토요일 3,4교시 및 점심시간 활용)하고 축제 및 사은 행사 시 발표회를 갖는다.

(4) 포항제철고등학교의 사례

포항제철고등학교는 영어, 수학,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2외국어로 일본어, 중국어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 특성화 노력으로 수학, 과학 분야에

서 HSP반을 운영 하고 있다(포항공대 교수진과 연계교육). 검도, 골프 중 택1하여 지도를 받으므로 1인 1기 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다. 광양제철고와 같이 5대 사회과제 해결을 위해 교육하고 있다. 적응활동으로 명예교사, 학부모, 지역인사를 활용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발활동으로 50개의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5) 해운대고등학교의 사례

해운대고등학교는 3년 동안 세 가지 스포츠를 연마하게 하는데, 1학년 수영, 2학년 볼링, 3학년 양궁 등이다. 대학입학을 위한 심층면접에 대비해 논술 수업을 특별 편성했다. 또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며, 2~3학년은 선택과목(과학탐구영역, 사회탐구영역 중)에 대해 탐구와 토의, 조사, 체험, 실험 등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하게끔 배려한다. 예·체능 시간을 적절히 확보,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1, 2교시를 활용하여 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정 특성화 노력으로 학생자치법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내 사법고시를 실시한다. 독서지도, 고급수학, 고급과학교과를 개설하여 수업하고 있다. 원어민 영어회화 수업, TOEFL지도, 원서강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성화교육으로 1학년에서 수영, 2학년에서 볼링, 3학년에서 양궁을 지도하고 있다. 적응활동으로 초청강연을 실시(학기당 2회)하며, 봉사활동으로 학급단위로 양로원이나 고아원 등과 자매결연 하여 학생들의 활발한 활동을 유도한다. 계발활동으로 30여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6) 현대청운고등학교의 사례

현대청운고등학교는 외국어 교육을 중시해, 영어 교과 시간을 늘리고 원어민 교육을 확대했다. 재학 중 봉사활동과 독서, 한자, 정보화 능력, 영어 능력 등에 한해 일정 수준을 이수해야 졸업자격을 준다. 교육과정 운영에 상대적으로 자율권이 많은 자립형 사립고답게 현대청운고는 ‘제2의 정주영 명예회장 육성’을 교육비전으로 삼고, 수월성교육과 국제화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수월성교육의 일환으로 대학 선이수학점(AP) 강의를 개설하고, 수학과 과학의 전문교과 과정을 운영해 40단위 이상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 1~2학년 과정 동안 고교 교육과정을 모두 배우는 ‘속진수업’을 진행해 3학년이 됐을 때 대학입시 변화에 보다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수능시험을 비롯해 논술과 심층면접을 3학년 때 철저히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진학에 크게 유리하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일부 국내 대학과 연계된 특별전형을 활용한 조기졸업도 가능하다. 국제화교육을 위해서는 1학년부터 공통교육과정 외에 재량활동을 통해 영어 TEPS, TOEFL 수업과 원어민 외국어 수업을 지속적으로 받게 한다. 1학년 신입생 전원이 방학기간을 이용해 해외체험을 하는 기회도 제공되며, 2학년 중 20여명 내외를 선발해 한

달간 미국 현지 어학연수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스 칼러십(GLS) 해외연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 2005년부터 국제반을 개설해 SAT, AP등의 시험에 대비하고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150여개 대학에 대한 진학 정보도 갖고 있다. TOEFL교과로 4단위를 배정(1, 2학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특성화 노력으로 전통음악, 전통미술, 전통체육(택견)을 지도하고 있으며, 청운능력인증제(봉사활동인증, 독서인증, 한자능력인증, 영어능력인증, 정보소양인증)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일제 클럽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봉사활동으로 100시간 이상은 필수이며, 계발활동으로 38개 동아리를 운영(학술·문예, 보건·체육, 여가·문화 등)하고 있다. ‘가방 없는 토요일’운영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각 학교의 교육과정 특성화를 위한 노력을 <표 III-2>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III-2> 교육과정 특성화 노력

학교명	건학이념	특성화 프로그램	내용	운영방식
광양 제철고	자주인 도덕인 창의인	5대사회과제 해결	· 5대 사회과제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자료집 · 관련 교육 및 교과내 수행평가실시	· 관련교과, 특별활동에서 5대사회과제 강조
		주제일기 쓰기	· 연간계획에 따라 주 1회 이상 주제일기를 작성하고 국어교사가 지도, 수행 평가에 반영 · 각 주별로 학교차원에서 주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 관련교과와 연계
		영어교육	· 토익연구반 운영 · 토익목표점수 : 1학년(400점), 2학년(500점), 3학년(600점)	· 관련교과, 특별활동을 통해 실시
민족 사관고	민족주체성 교육 영재교육	전통문화 학습	· 국악 1인 1기(국악기 1기 선택 집중 학습) · 전통무예 1인 1기(검도, 태권도, 국궁) · 혼정신성의 생활화 및 일상의 생활예절 강조 · 전통의례실천(관례, 계례, 조희, 입학식, 졸업식)	· 관련교과와 학교 행사 및 일상생활을 통해 실시
		민족 6품제 실시	· 영어품 : 일반계열 CBT 235, 국제계열 CBT 265, EOP(English Only Policy) 실시 · 심신수련품 : 태권도와 검도의 단 · 예술품 : 무형문화재 전수자로부터 사사 · 봉사품 : 봉사시간 80시간 이수 · 독서품 : 국내서 50권, 영어원서 50권 · 한자품 : 한자인증시험	· 관련교과, 특별활동을 통해 실시
		통합교과 프로그램	· 사회과 통합교과 · 환경과 통합교과 · 통합교과운영에 따른 공동교수 실시	· 관련교과와 연계
		개인연구	· 학습자 주도 학습 함양을 위해 학생 수요에 따	· 창의적 재량활동

		(Individual Research)	라 과목 개설, 2005년 1학기 현재 33명의 교사가 179개 과정 개설 · 학생 신청을 기반으로 개인 연구 심화학습, 과제 연구, 보충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 조기졸업을 위한 학점 이수 가능	
		성공적인 국제제열 운영과 AP 과목 개설	· 영재를 위한 수월성 교육을 목표로 대학 수준의 교과를 17개 강좌 개설 · 교과연구실제와 수준 높은 교사진의 역량이 뒷받침되어 있음	· 선택교육과정
상산고	지성 · 덕성 · 야성이 조화된 인재 육성	수학교육 중시	· 수학담당 전임교사 15명 확보 · 토요일 격주 2시간을 이용하여 수학적강 실시(1학년대상, 수학 원리와 응용에 대한 수업, 입시위주 수학교육이라고 할 수 없음) · 고급수학과목 개설(입시와 맞물려 선택수요 적음) · 인문사회과정에서도 학생선택에 따라 수학2 개설 운영	· 특강 · 선택교육과정
		영어회화 일상화 추구	· 원어민강사 5명 초빙 · 24개반(30명기준)을 수준별 48개반(15명기준)으로 분반하여 교육 · 강의전담교실 활용 · 1,2학년 주2시간 실시 · 일정한 교재사용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업진행	· 관련교과와 연계
		양서읽기	· 학생 개인시간표에 명기하여 실제적으로 운영 · 토론, 주제글쓰기, 발표 등으로 진행됨 · 강의 전담교실 활용 2개반 합반 수업 · 1, 2학년 대상 주 2시간 실시	· 창의적 재량활동
		개인연구	· 학생 개인시간표에 명기하여 실제적으로 운영 · 외부 전문가를 활용(전북대 글쓰기 교육연구팀, 조교2명 포함) 토론 및 첨삭지도 · 강의전담교실 활용 3개반 합반 수업 · 1,2학년 대상 주 1시간 실시	· 창의적 재량활동
		태권도교육	· 태권도를 교기로 모든 학생이 2단 이상 취득 목표 · 주당 1시간씩 2개 학년에서 운영	· 교과수업 · 교과재량활동
		음악특강	· 성악 교수 초빙 특강을 통해 가곡 가창지도 (1학년 대상)	· 교과재량활동
		명사특강	· 금요일 5교시를 외부 특강으로 명시하여 실질적으로 운영(1학년 대상, 격주실시) · 각 분야의 대표적인 인사의 초청 강연 실시	· 교과재량활동 · ‘철학’ 교과와 연계 운영
		포항제철고	자주인, 도덕인,	HSP반 운영

	창의인		거처 선발되어 운영. 연간 50시간 이상 운영 · 포항공대 연구진, 수학과 공대 연구진(교수와 대학원생 포함)과 연계하여 운영	
		1인 1기 교육	· 검도, 골프 중 택 1	· 1학년 전원, 주당 1시간 교육
		5대사회과제 해결	· 학교 건학이념인 '5대 사회과제 해결'을 학교 교재를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운영(10학년, 2단위)	· 창의적 재량활동
해운대고	나라사랑	학생자치법원	· 교내 사법시험을 통해 10명 선발	· 특별활동
		독서지도 강화	· 국어 시간에 '백범 일지 연구' 수업	· 관련교과
	창의적 · 합리적 리더십	과학전문교과	· 고급수학, 고급과학	· 교과
		외국어 교과	· 원어민, TOEFL영어문법, 원서강독	· 교과
		특성화 과정	· 1학년(수영), 2학년(볼링), 3학년(양궁)	· 교과
현대 청운고	인간화 세계화	아산정신학	· 10학년 교양교과 2단위 운영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 (교양)교과와 특별활동
		TOEFL	· 영어교육특성화 일환으로 TOEFL 강좌 개설	· 창의적 재량활동
		전통음악/ 전통미술	· 2학년 창의 재량활동 2단위 운영 (시조창과 문인화 및 서예 교육 운영)	· 특별활동과 창의적재량활동
		전통 체육	· (택견) 월 2시간 배정 운영	· 특별활동
		청운능력 인증제	· 봉사활동 인증, 독서 인증, 한자능력 인증, 영어능력 인증, 정보소양 인증	·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전일제 클럽활동	·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일제 클럽활동 운영	· 특별활동

자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방문평가 보고서(2005)

나. 특기적성교육의 자율성

두 번째로 특기·적성교육에서도 자립형 사립고의 다양성을 위한 시도를 엿볼 수 있는데, 특별활동의 양적 측면은 학교간에 큰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발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계발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 흥미와 요구를 폭넓게 수용하려고 하는 다양성이 엿보인다. 자립형 사립고의 특기·적성교육의 현황은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특기·적성교육 현황

학교	특기·적성교육 현황
광양계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교과(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위주로 편성 운영하고 있음 · 평일 보충수업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민족사관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수요조사 후 개설, 2005년 1학기 현재 33명의 교사가 179개의 과정 개설 · NIES 상 기재 가능한 교과목을 적극적으로 개설하고 한 학기 동안 정기적으로 진행할 경우 학점을 부여하기도 함(학업성취별로 조기졸업이 가능하도록 함) · 운영 방법은 튜터링, 보충, 심화, 연구 세미나, 자습 등으로 내용과 방법별로 다양화하여 개설하고 있음. 고학력 수준의 학생에 맞는 자기 주도적 학습시간과 적절한 튜터링으로 구성되어 매우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판단됨 · 화, 수 목, 5-6교시, 토요일 3-4교시 등 매주 8시간 운영
상산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주요교과 중심이지만, 다양한 강좌 개설 · 평일 3시간 야간 교육으로 운영 · 교재 내용은 주로 해당 교과 관련 문제풀이로서 입시위주의 교육의 성격이 강함 · 특히, 타 지역 학생의 사교육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함
포항계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와 비교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특기·적성교육 : 주요교과 보충학습으로 운영,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특기·적성종합시간: 1학년 목요일 계발활동과 연계하여 1차시 운영 · 2005년 현재 특기·적성 개설교과 24개반 운영 (92개까지 운영함) · 수학, 과학, 문학, 컴퓨터, 논술, 지리, 환경 체조 등 분야에서 전국대회 등 다수의 입상자 배출
해운대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 방과 후 8개 정도 과목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개설강좌가 주교과 위주로 다양하지는 않음 · 논술, 영어, 수학, 생물, 화학, 물리 등이 개설됨 · 학생들의 참여 정도는 절반 수준에 가까움
현대청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완성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운영 실시하고 있음 · 평일 8교시 보충학습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2005년 1학기 현재 1학년은 12개 강좌 운영하고 있음 · 일반학교와 유사하게 주요 교과 중심의 내용으로 보충학습 성격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음

자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방문평가 보고서(2005)

학생들의 특기·적성 계발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평일 및 주말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되고 있다.

다. 재량활동상의 자율성

마지막으로 자립형 사립고의 다양성은 특성화된 재량활동에서도 시도되는 듯 하다. 현재 대부분 학교가 교과재량활동에서는 기본과목 또는 선택과목을 심화·보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와 과학 중심의 심화보충, 개인연구, 음악, 진로와 직업, 한문, 영어 회화 등 국·영·수 중심의 심화보충과 차별화되는 활동을 운영

하고 있다, 창의적 재량활동도 특성화 프로그램과 연계하거나 건학이념과 연계하여 편성 운영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표 III-4> 자립형 사립고 재량활동 현황

학교명	구분	프로그램 내용
광양 제철고	심화보충 재량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과학 각 2단위 편성 운영 · 10학년 국민공통과목에서 사회와 과학의 비중을 영역별로 골고루 편성하기 위해 연간 2단위를 증배하여 운영하는 효과를 가짐. · 한문 6단위 운영(10학년) · 국·영·수 중심의 심화보충과는 차별되는 사회와 과학 중심으로 심화보충 재량활동을 편성 운영하고 있음.
	창의 재량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학년 '정보사회와 컴퓨터'교과로 2단위 편성 운영
민족 사관고	심화보충 재량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연구(Individual Research) 시간으로 편성 운영
	창의 재량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학년 2단위 편성 오전 심신수련활동
상산고	심화보충 재량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화보충 수학(2), 과학(2), 영어(6), 음악(2)으로 운영
	창의 재량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연구(4), 양서읽기(4)
포항 제철고	심화보충 재량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화보충으로 수학, 과학, 영어 6단위 편성운영 · 진로와 직업 4단위 편성 운영
	창의 재량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대 사회과제와 성교육 2단위 편성 운영(10학년) · 본교에서 제작한 교재 '5대 사회과제 실천사례집' 및 '5대 사회과제교육'을 교사용 지도 지침서로 활용
해운대고	심화보충 재량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화보충 재량활동은 주지교과 위주로 운영 - 영어(원어민 회화), 수학, 과학 10학년 2단위 운영 · 교과 선택 : 한문 1학년 4단위 운영
	창의 재량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시 - 인성교육 1학년 2단위 편성 운영 - 'TV동화 행복한 세상' 등 시청각 자료 활용
현대 청운고	심화보충 재량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회화, 수학 1 각 2단위 편성 운영
	창의 재량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EFL 4단위(10, 11학년) 운영 · 음악/미술 11학년 2단위 운영

자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방문평가 보고서(2005)

2) 수업방식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수업방식에 있어 다양성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각 교과별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수교원을 초빙하여 수업의 질과 수준을 높임으로써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신장을 돕고 무엇보다 학생중심의 토론식 수업을 통한 논술교육을 그 목표로 하는 듯 하다. 다음은 각 학교별 다양한 수업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가.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수업방식

민족사관고등학교는 국내 명문대학의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계열과 해외 명문대학으로의 진학을 목표로 하는 국제 계열로 나뉜다. 국어와 국사를 제외한 수업과 학교의 일상생활에서 국제 공통언어인 영어를 사용한다. 영어사용 정책은 일반적인 개념의 English Zone과는 달리 교내 전 구역에서 영어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단, 국어와 국사 이외에, 수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우리말 수업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한문, 음악, 체육, 미술 등에 있어서는 우리말 수업을 하고 있다.

민족사관고에서는 타 학교의 8시간 수업과는 달리 하루 6시간의 교과 수업과 2시간의 자기 주도적 개별 연구 활동 시간으로 하루 일과가 이루어지는데 학생들은 개별 연구 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즉 주제 탐구 연구 활동, 교과목 선생님께서부터의 개별 지도, 인격 소양을 위한 예체능 활동, 독서·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민족사관고의 가장 특별한 수업방식은 기존의 강의 일변도 수업방식에서 탈피하여 강의(Lecturing), 개별지도(Tutoring), 논쟁식 토론(Debating)의 3단계로 진행된다. 학습자 중심의 토론식 강의, 수준별 수업을 위한 개별 학습지도,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논박할 수 있는 논쟁식 토론수업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나. 전주상산고등학교의 수업방식

전주상산고는 설립자의 정신을 이어받아 수학이 학교 설립의 정신적 자산이며, 중요성 면에서도 모든 학문의 비교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학교과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한다. 상산고의 특색 있는 수업방식은 ‘개인 연구’수업에 있다. 매주 한 시간씩 마련되는 개인연구 시간은 학생들의 자기탐구능력 향상과 표현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1학년부터 준비를 하게 되는데 지정도서 50

권, 권장도서 50권을 읽고 15명씩 조(組)를 짜 토론을 나누게 되며 이때 책을 읽지 않은 학생은 토론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1학기에는 합리적 글쓰기의 기초를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사회 쟁점에 대해 논술문 쓰는 연습을 한다. 2학기에는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연구 및 표현 능력의 향상을 추진해 학생 한 사람당 논문 한 편씩을 작성하게 된다. 개인 연구 시간이 종래의 논술 교육과 다른 점은 종합적인 사고 및 표현의 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막연하게 글쓰기 훈련만하는 게 아니라 글에 무엇을 어떻게 담는 것이 효과적인지 하는 부분들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표현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연구는 주제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 강의와 서로의 생각을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토론, 글쓰기와 대학원 과정의 강사들로부터 첨삭을 받는 과정으로 구성되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다. 해운대고등학교의 수업방식

해운대고등학교의 수업 과정은 인문과 자연 과정으로 나뉘어 있어 일반 고등학교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자립형 사립고의 취지에 맞게 독자적 교수학습 방법 도입, 운영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해운대고는 자립형 사립고의 장점을 100% 살려 전문가를 초빙해 계열별 전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3학년에는 고급수학·고급과학 같은 심화된 전문 교과가 많이 편성되어 있고 1·2학년에는 토플 수업을 진행해 인문과 자연의 조화로운 수업을 주도하고 있다. 우선 탐구, 토의, 조사, 체험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남다르다. 지식 암기 위주의 강의식 수업을 최소화하고 대신 토론, 공동학습, 참여 학습 등 다양한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 형태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교과는 70분 또는 100분 연속 수업을 하고 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일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이 학교의 교육철학이다. 그래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수업은 학생의 수준과 능력에 따라 나누어 진행된다. 특히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교과는 모두 수준별 교과 교실제가 도입돼 이동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 정보화와 국제 이해 교육도 중점 노력 사항이다. 전교생이 재학 중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자격 이상을 취득할 수 있게 했고, 외국인과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원어민 교사를 통한 외국어 회화 교육을 한다. 학년별로 외국어 능력시험 수준제를 시행해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도 특징이며 학교가 앞장서 방학 동안 자매결연 맺은 외국 학교 학생들의 집에 홈스테이할 수 있도록 추천해주기도 한다. 논술 과목을 정규수업으로 편성하는 한편 각 과목마다 논술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있다. 사회과학 논술·언어논술·수리논술 등 학교 수업에

만 열중해도 대입 준비가 충분히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라. 현대청운고등학교의 수업방식

현대청운고는 자기 주도적 학습에 따라 학습량을 차별화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학년 여름방학이면 일반 고등학교의 모든 과정을 끝마친다. 스터디그룹 활동으로 교사 1인이 스터디그룹을 담당해 학생의 활동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주말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통합교과형 논술 특강을 진행한다.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1주일에 한 번, 2시간씩 교사들이 번갈아가면서 때로는 같은 시간에 여러 교사가 공동으로 논술수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 논술에 필요한 배경지식을 익히도록 하고 수능 및 교과 수업보다 더 흥미로운 내용을 가지고 더 깊게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지적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논술의 기본은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에 있다는 청운고의 운영 방침에 따라 매주 수요일 야간에는 시사토론, 일요일에는 토론학습을 통한 심층면접 대비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 학교는 학생들끼리 서로 과외수업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교사와 학생, 선배와 후배를 일대일로 묶어주는 ‘개인교수제도’는 현대청운고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학생들은 전담교사와 선배의 지도 아래 철저한 개별학습을 하고 있다. ‘청운 PTP(Peer Tutoring Program, 학생 상호 과외봉사)’는 남보다 뛰어난 재능이나 교과별 우수한 학업 능력을 가진 학생이 또래를 대상으로 해당 영역에 대한 개인별 과외지도를 하는 것으로 지난 2006학년도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멘토(Mentor)외에 친구 및 선·후배 간에도 적용하며 Tutor(개인 과외 교사)에 대한 인증이 따로 없어 누구든지 자신 있는 교과나 뛰어난 재능을 또래에게 전수한다. 교습 장소는 기숙사인 ‘청운학사’를 포함한 학교 내에서만 가능하며 대상 인원은 Tutor 1명당 6명 이내로 하고 있다. Tutor 멘토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3회 5시간(기본시간)이상 교습을 하면 봉사활동 3시간을 인정받는다.

마. 광양제철고등학교의 수업방식

광양제철고등학교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영어와 수학교과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 이동수업은 심화반, 보통반, 기초반으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는데 학습의 효율성을 높여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과 후 수업은 선택형과 일제형을 혼합하여 학년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한다. 선택형 수업은 교사가 과목명과 수업교재, 수업계획서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과목과 교사를 선택하여 수업을 받도록 하고 있다. 2008학년도 현재 2, 3학년은 완전한 선택형 수업을 실시하고 1학년은 일제형 수업으로 공통 기초학력 신장에 중점을 두고 있

다. 입학생의 경우 상위권 학생들은 수준별 수업에서 심화반 편성, 자율학습 정독반 편성, 방과 후 수업시 전문교과 이수, 야간을 이용한 영어·수학 특별수업, 동아리 활동을 통한 통합 논·구술지도, 심층 면접 지도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바. 포항제철고등학교의 수업방식

포항제철고등학교의 수업방식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특성화 프로그램은 R&E와 HSP다. 'R&E(Research & Education)'는 포스텍 교수가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고 함께 연구하는 일종의 연구교육 과정이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가능성을 미리 개발해 조금 더 앞서나가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가동되고 있다. 교내 경시대회를 통해 선발된 이들 학생들은 매주 한차례 포스텍 전공교수의 특별수업을 듣고 대학원생들의 실험에도 참여한다. 이렇게 교육받은 학생은 포스텍 교수들의 지도하에 각각 논문을 작성하며 이들 논문의 수준도 대학생 이상이라고 알려졌다. 즉 영재를 위한 영재교육이 아니라 인재를 만들어내는 영재교육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를 뒀다. 교수 1인당 학생 3~4명으로 구성되고 무학년제로 운영된다.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영역별로 실험·실습 위주의 탐구학습이 이뤄진다. 학교에서 실험하기 어려운 경우는 포스텍의 실험실을 활용하기도 한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논문집을 만든다. 또한 'HSP(Honors Students Program)'는 대학 과목 선이수제도인 AP제도를 고교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이다. 교내 선발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국립대 수학과 교수들이 수준 높은 영재교육을 한다. HSP는 전문 통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사 과정을 밟는 포스텍 학생들이 수업을 돕고 있다. R&E나 HSP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은 수학, 과학, 영어 등 주요 과목에 대한 수준별 특강을 듣는다.

3. 학부모 및 학생의 학교선택권 부여

자립형 사립고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큰 개념적 특징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및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한 점이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자립형 사립고가 여러 부문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학교는 학생선발권을 가지게 되고, 이것은 곧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학교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특히 지역 간, 학교 간 교육여건이 완전히 평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학생은 좋은 여건에서, 다른 특정한 학생은 좋지 못한 여건에서 교육받도록 강제한 것이 과연 사회적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어왔고, 고등학교수가 적은 소도시의 경우 학력저하나 진학의 길이 막히는 사례가 생기게 되었다. 또 학군간 교육여건의 차이로 특정학군 선호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제약됨은 물론 학교간의 선의의 경쟁까지도 제한하게 되었다(이일용, 2004). 그러나 자립형 사립고의 등장은 학생들의 학교 지원 자격에 대한 일정한 제한 조건을 두긴 했지만, 시범운영중인 6개 자립형 사립고 모두 무엇보다도 평준화 정책 하에서 지양되던 전국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각 학교가 지향하는 인재양성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는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 수요자입장에서도 학교선택권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립형 사립고의 제도 도입은 현행 제도 하에서 이러한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데에 그 특징이 있는 것이다.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가기도 하며 자신의 처지와 개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이 천명하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학교선택권을 교육수요자에게 되돌려 준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첫째, 학교선택권의 부여는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각 학교에서 부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교육 공급자 중의 하나인 사립학교가 학생선발권을 갖는다는 것은 사립학교의 건학이념과 독창성에 비추어 학생을 선발함과 동시에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들의 처지와 개성 등을 고려하여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학교선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선택의 기회 확대로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는 데 기여하고,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 및 성장 욕구에 맞게 개별화 수업 등 특성화·다양화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정일환, 2003). 자립형 사립고를 통하여 학교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은 누구든 그가 받고 싶어 하는 교육을 마음껏 받게 함으로써 교육 체제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구현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기존의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 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통한 학교선택권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불가피하였다. 국민들의 교육 수요와는 별개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부문의 교육을 강조하고 이러한 교육을 위한 자원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학교선택권은 제약되어 왔던 것이다. 즉 학교선택권은 무제한적 권리라기보다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될 수밖에 없는 권리였으나, 자립형 사립고의 등장으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수요에 대한 불만을 줄여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소위 명문대 진학 및 해외 대학진학의 기회를 삼고자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의 학교선택권은 정당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자립형 사립고 확대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기유학 또는 교육이민 등으로 유출되는 막대한 외화 낭비도 막을 수가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초·중등학생들이 주요 선진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도 외국에서 유학을 올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 중 명문 학교가 생겨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권순환, 2005).

또한 자립형 사립고를 통한 학교 선택권의 도입은 당장 전체 교육 공급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 같지는 않으나 이로 인해 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그 다양성 속에서 예술, 과학과 같은 특정한 교과목을 특화시킨 학교도 있을 수 있으며, 기존의 공교육제도에 대해서 이탈한 학생들을 받아들인 학교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자립형 사립고는 학부모와 학교설립자 그리고 교사들 간의 협약에 의해서 독특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 더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은 학교선택권의 보장과 선택기회 확대를 통한 다양한 교육욕구 증대에 부응할 수 있는데 그 특징이 있다 하겠다.

둘째, 학교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전체 공교육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다른 학교와의 질적인 차별성을 띄게 되면 학교간 교육의 질 경쟁을 유도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결국 전체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은 평준화 정책처럼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 하나의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상품으로 여겨 경쟁을 유도한다.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와 관련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은 학부모의 기본권이며, 학부모는 행정당국보다 자신의 자녀에게 적합한 학교를 훨씬 더 잘 선택할 수 있다. 학부모가 자녀들의 학교선택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면 자녀들의 학교에 대한 인식이나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연스럽게 학교간 경쟁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으로 이는 서구에서 각국 정부가 학교선택권 강화를 표방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Walford, 1994).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특수목적고 확산 추세와 함께 자립형 사립고가 대폭 확대되고 공립 자율학교가 많아지면 학교 선택권이 크게 넓어지게 되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다양성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자립형 사립고를 통한 학교 선택권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와 같은 학교선택권 부여는 학생 및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게 하여 학교로 하여금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과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셋째,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학교별 교육의 책무성(Accountability in Education)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학교가 교육활동의 성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을 강화하여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의 기초는 학교교육이 공공성과 평등주의에 있어 환상일 뿐 소비자에 의해 사적인 상품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체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다. 학교 선택에 있어서도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학교 실패가 경직된 관료제와 정부의 통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교육에 작동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들은 시장의 원리에 입각하여 학부모와 학생을 수요자로, 정부, 교육청, 법인이나 사학재단, 그리고 교사들을 공급자로 여긴다. 또한 이러한 시장경쟁 하에서의 공급자의 책무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하에 자립형 사립고는 다른 일반학교와는 달리 확실적인 교육목표에 대해서 책무성을 갖기보다는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의 개인차를 배려하는 책무성을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다른 학교와는 다른 교육의 책무성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별 교육의 책무성이 강화됨에 따라 교육수요자들의 학교선택에 대해 증가하는 요구에 부응하고, 학교가 잘 운영되도록 격려하는 새로운 풍토를 조성하며, 학교 운영에 관한 결정에 부모들의 가치를 부여하고, 교육선택의 폭을 확대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을 통해서 관료주의적 경직성을 타파하고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 수 있으며, 그 결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통한 학교선택권의 부여는 고교평준화정책으로 인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교육선택권을 제한하여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장경제 논리에 부응하지 못해온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해소할 뿐 아니라, 그 동안 사학정책의 문제로 지적되어온 사학의 획일적·권위적인 통제와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그 의미를 갖게 된다(박찬주, 1997).

따라서 수요자 입장에서 학교 선택권의 보장은 지금까지 평준화 정책으로 막혀 있던 교육수요자의 권리를 되찾게 된다는 자립형 사립고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IV.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정책의 찬성 논리 분석

최근 자립형 사립고 정책은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려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강영혜(2000), 이일용(2006), 정일환·김경선(2002)등의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이 지지하는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찬성 논리는 고교평준화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며, 국가주도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아울러 사학의 자율성 신장과 건학이념 및 특수성을 보장함으로써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며 교육 수요자들에게는 학교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강영혜, 2000). 이 장에서는 이러한 찬성 논리에 대해 분석하고 그 논리에 한계가 무엇인지를 다루고자 한다.

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정책의 찬성 논리

가. 고교평준화정책의 대안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찬성론자들은 무엇보다 고교평준화정책의 폐해와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찬성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들의 논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찬성론자들의 첫 번째 논리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학력의 하향화를 가져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으로 교육의 수월성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즉, 학급내 학습 집단을 이질화하여 학습능력을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학업성취도를 낮추어 고교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이일용, 2004). 이는 다양한 학력을 가진 학생들을 한 교실에 모아놓고 수업을 전개한 데서 비롯되는데, 이른바 개인차 등을 고려한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야기된 현상이라는 것이다. 천차만별의 학력을 가진 학생들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편성한 학급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교사가 학습지도를 할 때 어디에 학습지도 수준을 정할 것인가도 지적된다. 평준화 체제는 다양한 학력 격차를 보이는 학생들의 능력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세계화, 경쟁력 등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미약하며, 기초능력이 부족한 학생까지 함께 수용하게 되어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곤란하게 만든다(이일용, 2006).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찬성론자들은 평준화 정책은 능력 차이가 뚜렷한 학생들을 한 학교에 수용함으로써 이질 집단에 따른 학습 및 생활지도의 문제ಗಳು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보완조치로써 교과·능력별 수준에 따른 이동 수업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실질적인 여건 등의 미흡으로 학습지도 곤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공부가 중심이 되지 않는 ‘노는 분위기’의 교실 풍토가 형성되어 학급활동과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끌어 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평준화 지역보다 평준화 지역에서 학교붕괴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가 낮아짐으로써 교실 붕괴를 야기하고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강영혜, 2005).

여기에서 논쟁의 핵심이 되는 학력 하향화라는 것은 이른바 “평준화(平鈍化)의 문제가 공교육의 붕괴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2001년 실시된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력 비교조사를 보면,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이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보다 1학년은 13점, 3학년은 15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준화 지역에서 최상층을 제외한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제시한다(강태중·성기선, 2001). 하지만 이러한 연구에는 적어도 두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하나는 평준화 지역은 대도시를 비롯한 도시 지역이라는 점이고, 반면 비평준화 지역은 읍·면 단위 지역이라는 점이다. 이는 평준화 지역이 문화적 혜택을 더 받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학력과 사회경제적 수준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높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이 학력이 높은 것은 평준화 때문이 아니라 평준화 이전의 가정 배경 변인의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성기선, 2004). 다른 하나는 평준화 지역의 학력 향상이 최상위층의 학생이 제외되고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만 적용되었다는 것은 평준화 정책이 교육의 수월성 추구에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김정래, 2001).

김태중·이명희·이영·이주호(2004)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자료의 분석을 통해 비평준화 지역의 학업성취도가 평준화 지역에 비해 높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태중(2004)은 2001년의 고1, 고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자료를 비교하는 작업을 이중차감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비평준화 지역의 평균 학업성취도가 평준화 지역에 비해 모든 학업성취도 수준에서 향상되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다시 말해, 평준화와 학력 하향화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있다는 논리이다.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찬성론자들의 두 번째 논리는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교육수요자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를 제한시켜 왔으나,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으로

질 높은 교육을 통한 교육수요자들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교 평준화 정책이 도입되던 1974년에 비해 현재 우리의 국민 소득은 크게 높아졌고 그로인해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교육의 질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현재와 같은 지역 간 학교 간 학력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무시된 고교 평준화 정책과 같은 획일적인 학교배정 제도는 그들의 욕구를 제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다변화·다원화를 특징으로 하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인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사회의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이고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현재의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학교와는 차별화를 둔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해외 조기유학의 경우도 교육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시 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해외로 조기유학을 떠나는 서울시내 초·중·고교생 수가 매년 증가해, 2004학년도에는 1만 2,317명으로 2003학년도의 1만 1,546명에 비해 6.7%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특히, 서울지역에서만 매일 평균 34명의 초·중·고교생이 유학을 떠나는 셈인데 일반계 고교의 경우 전 학년도 1,723명 대비 2,091명으로 21.4%나 늘었다는 것이다.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갈망하는 교육수요자들의 욕구를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동안 수많은 학생들과 엄청난 액수의 외화가 해외로 새나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언제까지 외면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오성삼, 2006). 하지만 자립형 사립고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제한되어져 왔던 학교선택권을 부여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교육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해외유학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학교교육 유형을 다양화·특성화해 나가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드러난 학력 하향화와 교육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한계점등은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그들의 논리를 살펴보았다.

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추진을 찬성하는 측의 또 다른 논리는 현재 평준화 정책으로 인한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즉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은 고교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평준화 교육으로 인한 획일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김성열외, 2000). 그들의 논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함으로써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인하여 기존의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보통 수준의 교육에서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화되고 특성화된 질적 수준이 높은 교육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켜 주며 그들의 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시켜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고 주장한다. 사회적으로도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정부와 교육당국의 통제와 주도에 따라 자율적인 교육체제로 전환을 유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찬성 논리의 핵심은 학습자의 적성과 진로는 각기 다르므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 및 성장 욕구에 맞게 개별화 수업 등 특성화·다양화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교육적 환경은 학습자 개인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반영하기에는 시설이나 환경 등 교육재정의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한다.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현재의 교육 현실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데 무려 320조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비용을 전액 공교육에서 떠안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못하므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학교의 설립을 통해 특성화하고 다양화된 질 높은 교육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찬성론자들은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이 다양하고 특성화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의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주장한다. 학교간 편차는 존재하지만 학교별로 특성 추구, 다양화(영재교육,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는 다른 공사립학교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실험학교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우선 시범학교 운영 중인 6개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학생들의 지적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 다양한 방면에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는 점, 학교의 교육과정을 압축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에서 공동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구적인 교육기회나 여건이 갖추어져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하루 일과의 활동을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민족사관고와 같이 조기운동이나 예절 실천, 일과 중의 동아리 활동 또는 교사와의 일대일 수업(비공식적 질의응답 형태)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립형 사립고는 학교별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하려는 노력과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에 따라서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는 독서지도, 체육특기활동(태권도, 택견, 양궁, 검도, 골프 등)의 시도는 나름대로 자립형 사

립고 시범도입 이후 새로운 노력이라고 할 수 있고, 일반계 학교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시도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박종렬, 2005).

찬성론자들은 시범운영 중인 6개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이를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이를 테면 민족사관고의 경우, 전문교과제와 AP과정을 도입 운영하고, 다양한 교과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도자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광양제철고의 경우 수준별 수업 모형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해운대고는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대청운고의 경우 설립자 정신 계승교육, 전통문화 체험 교육 등 다양한 특별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자립형 사립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학교 구성원들의 만족도와 자긍심이 높은 편이고, 면학분위기도 좋은 편이라는 평가를 한다. 교육활동에 있어서의 다양화의 추구는 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서도 알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민족사관고의 경우 학교의 교수·학습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영어, 수학교과를 중심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한다. 수업의 효율성과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교과교실제 수업을 실시한다. 토요일 수업은 일주일간의 학습내용을 형성 평가로 점검하고 학생들의 학습능력에 따라 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원활한 학습 지도를 위해 1학년 2담당제를 실시한다. 선진국의 최신 교육 이론 및 지식 습득을 위해 교원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입학 전 75일 합격자 관리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국·영·수 교과부 계획에 따라 입학 전 사전지도를 실시·평가하여 장학생 선발 및 편반 자료로 활용하고, 합숙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예비 고교생의 자질을 향상 시킨다. 정규 교육과정 외에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특색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자치법원을 운영하는 것이다. 교내 사법고시를 실시하여 합격한 자는 특별활동부서인 '법정 연구부'에 소속시켜 법정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양을 기르게 한다. 학생자치법원을 1개월에 1회 정도로 개정하고,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의 제반 위반사항을 심리, 판결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 더불어 학생들의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4개국 순방 계획을 실시한다. 지금까지 학기 중에 실시하였던 수학여행, 수련회, 소풍을 폐지하고, 1, 2학년 하계 및 동계방학을 통해 해외 수학여행을 실시함으로써 고등학교 재학 중에 최소한 4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도·농간 교류 체험학습을 실시하여 타지방의 환경과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사물놀이, 그룹사운드, 단축마라톤 등 다양한 레포트를 실시한다. 2학년을 대상으로 워드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업을 실시하며, 유명 인사 초청 강연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갖도록 한다.

전북 상산고의 교과활동의 주요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초 능력 신장을 위해 수학과목을 중시한다. 전교생에게 수학 I 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사회계열 학생들에게 확률과 통계를 선택과목으로 제시하며, 이공계열 학생들에게 수학 II 와 미·적분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한다. 영어회화의 일상화를 추구하기 위해 입학 전에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1~2개월 기간의 영어 이머전 프로그램(Immersion Program)을 운영한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기초영어회화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영어회화를 필수과목으로, 고급영어회화를 자유선택과목으로 지정한다. 더불어 고전을 즐겨 읽는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고전 100권 읽기 운동을 전개하고 1·2학년 정규 시간표에 고전읽기 시간을 편성한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 발맞추어 컴퓨터 활용 능력을 보장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다른 자립형 사립고와 마찬가지로 고급심화과정(AP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학에서 고등미적분 및 선형대수학, 영어에서 고급영어회화, 고급영작문, 시사영어 등을 자유선택과목으로 개설한다. 논문작성능력을 신장시켜주는 개인연구를 강조한다. 1·2학년에서 논문작성을 위한 개인연구시간을 편성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을 수행하며 각 학년말에 개인연구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한다. 학생들의 비교과활동 역시 활발하다. 전교생 태권도 유단을 의무화하고, 예체능 활동에서 1인 1기 습득을 의무화 한다.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 학생자치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봉사활동을 강조한다. 게다가 외국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숙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체육활동, 학술대회 개최 등 자립형 사립고 연합활동을 추진하고 외국 명문고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양제철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들과 학과 탐방 프로그램 운영, 진로설계학습장 ‘나를 찾아서’를 발간, 진로의 날 행사개최(선배와의 대화시간 운영), 동아리 및 계발활동 반 70개 운영, 학급활동시간을 이용한 진로교육과 반성 실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시범운영중인 몇몇 자립형 사립고의 사례에서 보듯이, 학생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학생자치법원제도 운영, SMS(학생관리시스템) 구축등 진로과목을 설정하거나 명사 초청 시간 운영, 선배와의 대화시간 등을 통해 다양한 진로안내와 진학지도를 하고 있다. 현대청운고의 서울대 등의 합격생 수는 작년보다 줄었지만, 의대 합격생은 졸업생의 23%에 달했다. 청운고의 경우 1~2학년은 영어·수학에 한해 상·중·하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방과 후 학교 수업의 경우 아이들은 원하는 교사와 수업을 신청해 들을 수 있다. 학생들은 2학년 때 고교 3년 과정을 모두 마치고, 3학년 때는 수능과 논술에 주력하게 된다. 해운대고의 경우 일반 인문계 고교와 다르게 고급수학, 고급물리, 고급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교과를 통해 학생들이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 정책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또 다른 근거는 대학입시라는 제도적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자립형 사립고는 나름대로 학생의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보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특기적성과 소질에 따른 직업관, 진로관을 갖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것이다.(박종렬, 2005).

이러한 자립형 사립고의 다양화·특성화의 노력으로 인해 2007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의 6개 자립형 사립고가 대약진을 예로 든다. <표 IV-1>는 6개 자립형 사립고 주요대학 합격자수를 나타낸다. 6개 자립형 사립고 졸업생이 2007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대학의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등 의학 계열에 합격한 수는 작년보다 60% 늘어난 218명이었다. 이는 자립형 사립고 졸업생의 13%에 해당한다. 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에 붙은 합격자 수도 전년보다 28% 늘어나, 자립형 사립고 졸업생 4명 중 1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준화 고교 때는 다른 수준의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획일적인 과정을 배워야 했고, 자립형 사립고로 바뀐 직후에도 학교 분위기가 평준화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수준에 맞고 자율적인 수업을 정착시키면서 학생들의 학력이 높아진 것이라 주장한다. 전주의 상산고, 부산의 해운대고, 울산의 현대청운고를 그 예로 들고 있다. 실제로 작년보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 대학의 의학계열에 붙은 합격생 수가 많이 늘었다. 상산고의 의학계열 합격자 수는 작년의 세 배가 넘는 70명이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합격자 수도 전년보다 83% 늘어난 128명이다. 해운대고의 의대 합격자 비율은 10명 중 3명꼴로 작년보다 48% 늘어났고, 서울대 등 3개 대학의 합격생은 35% 증가했다.

자립형 사립고의 이 같은 대입 성적은 특목고보다 불리한 환경 하에서 예상 밖의 일로 평가받는 것이다. 특목고 학생이나 자립형 사립고 학생 모두 내신에서 일반 인문계 고교에 비해 불리하다. 그러나 특목고는 어문 계열이나 과학 계열로 갈 경우 유리한 특기자 전형 등이 있지만, 자립형 사립고는 그런 혜택이 없다. 결국 자립형 사립고 학생들이 여러 여건이 불리한데도 좋은 대학에 많이 입학 할 수 있는 이유를 학교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관리하는데서 찾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2007.03.29 조선일보). 곧 자립형 사립고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그들의 진로를 탐색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표 IV-1> 전국 6개 자립형 사립고 주요대학 합격자수

학교	졸업생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대 합계	의예, 치의예, 한의예 합격자
광양제철고	369	8	15	13	36	13
민족사관고	150	7	25	6	38	7
상산고	354	21	45	62	128	70
포항제철고	449	18	43	32	93	20
해운대고	240	12	31	54	97	71
현대청운고	162	2	15	29	46	37
6개교 합계	1,574	68	174	196	438	218

주: 학교는 가나다 순서, 조기졸업 제도 있는 민족사관고의 졸업생은 고등학교 입학 당시 정원 기준. 민사고 정원 150명은 입학 당시부터 국내 대학 진출반 60명, 해외 대학진출반이 90명으로 시작했고, 조기 졸업생으로 졸업생은 더 적음. 합격자수는 학교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합격자수.

다. 사학의 교육경쟁력 강화

자립형 사립고 정책을 지지하는 세 번째 주장 논리는 자립형 사립고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학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곧 공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이다. 사학의 자율성 신장과 건학이념 및 특수성 보장 등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정책 추진의 논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학의 자율성 신장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찬성론자들은 무엇보다 자립형 사립고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고교 교육에서도 사학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정일환, 2002). 사학은 공학과 달리 교육의 공공성과 자주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고교 평준화 정책은 공사학 구분 없이 사학 나름의 특색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사학 재정의 주종을 이루는 수업료 수준까지도 공학과 동일한 공납금 정책에 따르게 함에 따라 많은 사학에서는 재정난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이일용, 2004).

이러한 행·재정적인 규제 하에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함으로써 학교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가지고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나 학생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하며, 새로운 교육방법을 실험적으로 적용하여 교육성과의 극대

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립학교라면 마땅히 누릴 수 있었어야 하는 자율권을 돌려주면서, 이 자율권을 바탕으로 사립학교들이 ‘가고 싶은’ 학교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김영철, 2002).

찬성론자들은 교육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과도한 지시에 의해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없는 창의적인 활동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학교관련 구성원들의 공동의 지혜를 모아 학교장의 책임아래 자율적으로 계획·집행·평가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일선학교에서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교육체제 운영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추세이며, 단위학교 책임경영제가 확대되면서 단위학교의 권한이 증대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사립고에 대해서도 평준화 정책을 기조로 하여 교육내용과 학사제도, 교원제도 전반에 대하여 준공립학교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해 왔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부 사립고들은 역할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사학 정책의 근간이 되는 사립학교법도 사학이 공공성 확보 측면에 과도하게 추진되어 왔으며, 그 결과 사학정책도 사학을 지원·육성하는 측면보다는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의 통제적 측면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한유경, 2003). 평준화 정책이 형평성 중심의 정책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이념은 자유 경쟁의 이념과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경우 사립고는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립형 사립고 정책 추진의 논리는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므로써 투입의 평준화를 지양하고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성상제, 2008). 학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학교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평준화로부터 학교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경주하는 평준화로 전환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정부가 학교교육에 투입되는 시설, 교원, 교육비 등을 학교간에 균등하게 배분한다고 하여 학교간의 질적인 형평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의 평준화제도하에서 학교 간 질적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정책을 고수하였으며 이제 정부는 개별 학교의 교육성과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동시에 모든 학생이 각자의 소질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교육기회의 균등을 강조하는 것이다. 기존의 획일화된 평준화정책에서 탈피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되 모든 학교에 일정 기준의 책무성을 요구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관하여 정부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단위학교 혹은 지역교육청에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교과서의 선택에 관한 권한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위 학교간의 교육의 질적 차이는 일차적으로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에서 기인한다. 그런 점에서 교원의 자질과 더불어 교육목적과 학생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교재의 활용은 질 높은 교육을 위해 특별히 주목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수준별 교육을 통한 개별화된 지도를 하거나 특별한 심리적 배려가 필요한 교육을 하는 학교, 국제수준을 공유하려는 학교들에게 교과용 도서의 자유로운 선정과 활용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런 점에서 이미 자율학교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자립형 사립고들도 교과용 도서를 자유롭게 선택,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율성을 통해 사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성열, 2000).

또한 명실상부한 자립형 학교로서 자율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학교의 교육목적에 따라 수업연한과 학년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법테두리 안에서 2년 만에 고교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영재 교육을 표방하는 학교나 국제적인 대학입학자격을 제공하려는 학교들의 경우 학년도나 수업연한, 연간 2학기제 등에서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김미숙, 2007).

따라서 찬성론자들의 경우 자립형 사립고 정책 추진논리는 사학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도 도입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해방이후 이제까지 우리나라 사학은 재정적 부담능력이 부족하여 공교육을 확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국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측면이 크다. 우리나라 사학은 이렇게 공교육체제의 한 구성요소로서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독자적 건학이념을 실현할 수가 없었다. 평준화가 가지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학의 본래적 의미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다(김용호, 2001). 비록 평준화라는 틀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사학을 사학답게 만들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을 통해 공교육체제의 비효율성도 극복하고, 다양한 특성과 능력을 가진 인간을 요구하는 사회의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학을 늘려 나가야함을 주장한다.

물론 자립형 사립고와 같은 사학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점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도 사실이나, 과거의 여러 사학의 비리로 인해 국민의 사학에 대한 완전한 자율권 부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제도적 장치와 관리를 통해 극복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립형 사립고의 지정조건 중에는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학사관리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이일용, 2004). 김주후(2005)의 평가결과가 이러한 학교경영의 투명성은 큰 문제없이 지정조건에 부합됨을 뒷받침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학생선발 및 정원관리와 관련하여서는 학교 홈페이지, 입학설명회, 자료 발간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또한 학교재정에 관한 정보는 예결산자문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홈페이지 공개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학교가 학교행정, 재정 운영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사립학교는 건학이념을 가지고 탄생한 교육기관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국가 재정에 보조를 받는 형태라면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건학이념과 교육이념을 실현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뒤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여 학교 납입금 상향 조정을 통해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건학이념과 교육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율적 학교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김정래, 2003).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추진 논리는 결국 우리나라 사학의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서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정착시켜 선진 외국의 유명한 사립학교와 견줄 수 있는 사립학교를 조속히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2) 사학의 건학이념 및 특수성 보장

자립형 사립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또 하나의 논리는 사학의 건학이념 및 특수성을 보장함으로써 사학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사학은 그 설립주체의 특색 있는 건학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사학의 독자성은 바로 이 건학이념의 개별성에 기초를 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존엄성이 인정되고 존중되는 민주사회에서는 반드시 지원되고 장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개인과 집단의 신념과 가치는 국가의 이념적 테두리 안에서 모두 공존·공영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학은 국·공립학교에서 추종할 수 없는 독특한 교육적 가치를 건학의 이념으로 창조하고 실천함으로써 교육에서 정당화됨을 주장한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사립고교의 독자적인 학생선발권을 불허함으로써, 사학이 나름대로의 건학이념이나 교육운영의 특수성을 살려 나가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평준화 체제하에서도 사립고교에 대한 지원은 공립고교에 비해 매우 열등한 수준으로 일관돼 학생당 높은 교육비, 실험실습시설, 교원당 학생 수 등 학교교육의 질과 직접 관련된 일체의 교육환경면에서 사학은 급속하게 경쟁력을 상실해 왔다고 주장한다(류성하, 2002).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 제도를 도입하면 사립학교의 건학이념과 경쟁력을 동시에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다. 사립학교가 조국의 독립과 근대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산업인력 등의 공급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은 결코 간과 할 없는 사실이며, 그것의 밑바탕이 되는 것은 사학의 건학이념이라는 것이다. 독자적인 건학이념이 목살이 되면 그것은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교육재정 등의 독자적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통제일변도의 사립학교만이 존재할 것이라 예측한다. 사립

학교의 발생과 변천, 팽창의 과정을 고려할 때, 사립학교는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가치체제가 인정되는 사회를 전제로 할 때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본다. 이런 전제 하에서 국가가 사립학교에 대하여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단지 공교육제도 하에서 사립학교가 사회적 책무성을 다해야 된다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통제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사학의 건학이념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사립학교 중에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학교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런데 평준화 정책 하에서 학생들을 추첨 배정한 결과 학생 자신이 종교적 신념과 무관하거나 반감을 갖고 있는 타종교재단에 의한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난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을 박탈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자립형 사립고 제도의 도입을 역설하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다양성과 수월성을 추구하는 무한경쟁의 시대이고, 지금은 산업사회를 뛰어넘어 정보화 사회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는 국가의 획일적인 교육체제로서는 감당할 수도 좇아갈 수도 없는 무한경쟁의 냉정한 생존전략을 요구하는 사회이다(이일용, 2006). 이러한 사회에서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로서의 경쟁은 개인 간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요구한다. 다양성과 수월성은 경쟁의 힘을 강화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면서 국가와 개인이 경쟁 상태에 있을 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이기도 하다. 이러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최소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자립형 사립고가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는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강영혜, 2000).

자립형 사립고의 건학이념 및 특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히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건학이념에 따라, 특성화, 전문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정규교사 자격을 가진 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교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지금과 같은 엄격한 자격주의를 탈피하여 개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교원임용이 가능토록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 교과 교원의 경우 자격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도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전문적 지식과 교육적 안목의 검비를 위해 교원자격증이 없는 전문 인사를 전임직으로 장기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외부의 단기 교원양성 프로그램 제공 기관 등과 협력하여 교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면 그 부작용을 줄여 나갈 수 있으리라 주장한다. 또한, 자립형 사립고가 진정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한다면,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평가 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는 노력은 물론,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평가기준을 개발, 활용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일용, 2004).

찬성론자들은 고등학교 평준화로 인하여 자율성이 극히 제한되고 있는 사립학교가 이제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학교운동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며, 학교교육을 다양화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공립과 사립의 차이를 인정해야 함을 역설한다.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은 전통 이념이 독특하고 다양한 학교들이 사학 그 본래의 취지에 근거하여 다양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인데, 새로운 교육철학의 구현이나 새로운 교육방식의 실험적 운영, 개척, 혁신 등은 이러한 자율성이 보장될 때 가능함을 주장한다. 실제로 외국의 많은 나라들이 사립학교에 의하여 진보적·대안적 교육이 개발·적용되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를 중심으로 모든 사립학교들이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학교를 독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조치해 준다면, 다양한 이념과 독특한 특성을 가진 사립고에서 다원화 사회에서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이다(정일환, 2002).

라. 학교선택권의 보장

자립형 사립고 정책을 지지하는 또 다른 논리는 교육을 서비스 분야로 분류하여 교육수요자의 욕구에 걸맞게 학교선택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되돌려 준다는 것이다. 즉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과 함께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학교선택권이란 학교교육과 관련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폭을 과감하게 넓히려는 주장이다(정희상, 2004). 그간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의 일방적 선택을 수용하고 따르는 것이 관례였으나, 근래에 이르러 교육 수요자로서의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에서 교사와 학교 사이에서 ‘잘 가르치기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제도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을 통한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교육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학교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평준화체제는 해제되어야 하고,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 제도가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력 있는 학교는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그 변화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 즉, 시장 논리적 접근이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서비스의 충분한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김정래, 2001).

지난 70~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교육의 양적팽창과 함께 교육기회의 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반면에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이제는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어 왔다. 그 결과 찬성론자들은 국가가 일률적으로 배정해 주는 학교 대신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하여 가고자 하는 학교선택권에

대한 요구가 강해졌으며, 사적 부담을 통해서라도 종류와 질에 있어서 차별화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음을 주목한다. 실제로 학제상 고교교육은 공통 필수적인 기초교육을 수행하는 초등교육 단계 또는 이 기초 위에서 학생 스스로 자신의 재능과 적성, 소질을 찾도록 안내하는 중학교 교육단계와는 달리, 파악된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그 토대 위에서 관련 능력을 심화시켜 주어야 하는 단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고교교육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소질에 따른 교육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은 교육과정의 운영을 획일화함으로써 교육내용이나 방법 등 전반적인 교육프로그램에서 다양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평준화된 고교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정책 자체에 역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원하는 학교를 자유선택하기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평준화 정책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 31조)를 제한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조항은 국민의 생활관계의 다양성과 지적 능력의 차이를 전제로 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규정한 것이다. 즉 이 조항은 개인의 능력과 개성의 차이를 무시하고 교육에 있어서의 획일적인 균등주의 내지는 평등주의를 추구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것이다(정일환, 2002).

찬성론자들은 현재 학교선택권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여러 부작용이 따르고 있음을 주장한다. 지역 간, 학교간 교육여건이 완전히 평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학생은 좋은 여건에서 다른 특정한 학생은 좋지 못한 여건에서 교육받도록 강제하는 것이 과연 사회적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고등학교수가 적은 소도시의 경우 학력저하나 진학의 길이 막히는 사례가 생기며, 학군간 교육여건의 차이로 특정학군 선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제약됨은 물론 학교간의 선의의 경쟁까지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일용, 2004). 따라서 학생 및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게 하여 학교로 하여금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과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교 평준화의 기초를 크게 흔드는 것이 아닌 한 ‘다른 성질의 학생들’이 ‘다른 종류의 학교’에서 ‘다른 내용과 방식의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그리 이상할 것도 나쁠 것도 없다는 것이다. 모든 학생들이 평준화된 학교에서 ‘평등한’(소극적인 의미의)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 아니,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전일국, 2004). 결국 자립형 사립고는 학생 및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선택기회 확대로 다양한 교육욕구 증대에 부응하게 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예를 볼 때, 학교선택권에 대한 논쟁은 Chubb와 Moe(1990)가 제기하였듯이, 정부 주도의 교육정책이나 제도는 관료적·통제 지향적이어서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도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수요자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학교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학교간 경쟁을 통해 학교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보면, 자유경쟁을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경쟁력과 교육경쟁력을 제고시키려면, 학교는 적어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아야 하며, 이 때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자율적 선택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이다(이일용, 2006).

특히, 미국, 영국 등 선진 외국에서는 학교선택 방안으로 특성화 학교(Magnet School), 자유취학제(Open Enrollment), 교육비 공제제도(Tuition Tax Credit), 교육비 지불보증제도(Voucher System), 협약학교(Charter School) 등이 도입·실시되어 왔고, 국가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학교선택모형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들 학교들은 학교의 재구조화, 학교선택권, 수요자의 요구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학교간의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각자가 가진 적성이나 소질,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 개개인의 능력 수준과 요구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을 선택하는 데 있어 현재의 획일화된 공교육 체제만으로 수용할 수가 없으며 국가는 정책적·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학교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정일환, 2002).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추진을 수요자의 입장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찬성론자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이는 고등학교 진학단계에서 교육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는 것은 학교 경영자에게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자율성, 납입금 자율책정권과 학생선발권을 부여받음을 의미하지만, 수요자에게는 교육과정이라는 상품과 그것을 구매하는 대가인 납입금이라는 가격을 준거로 하여 학교를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행 고등학교 진학단계에서 교육수요자들이 전혀 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선복수지원·후추첨배정의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들 중에서 어느 학교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특성상 구분되지 않은 ‘동일한’ 학교들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면 선택의 대상이 될 고등학교를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자립형 사립고의 추진은 바로 고등학교를 다양하게 만듦으로써 교육수요자

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립형 사립고와 같은 사립학교의 활성화는 학교공급자로 하여금 건학이념에 맞는 자율적 학교운영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주장한다.

학교선택론과 관련하여 비판받고 있는 ‘귀족학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자립형 사립고 정책 지지자들은 자립형 사립고의 납입금 수준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3배를 받는다고 해서 적절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정희상, 2007). 이는 해당 학교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운영목적이나 특별 프로그램에서 더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방향으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내실 있는 교과지도와 학사운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실례로 학생 납입금이 소재 지역 일반계 고교의 3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납입금 외 수익자 부담 경비를 과도하게 책정하여 학생에게 전가시킬 소지가 있으나 전혀 그러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기숙사비를 제외한 학생 1인당 연간 수익자 비용 부담액은 광양제철고가 1,458,340원, 민족사관고가 4,979,018, 상산고가 2,120,500원, 포항제철고가 1,566,964원, 해운대고가 3,084,525원, 현대청운고가 1,951,925원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프로그램의 다양화 정도, 특강 등 보충학습에서의 수강 학생 수, 학습의 질 등을 고려할 때, 사교육비 부담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정희상, 2007).

선진화 국가가 되어 갈수록 빈부의 격차로 인한 교육의 차별은 철폐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찬성론자들은 소득수준에 따른 학교선택을 도외시 하게 되는 경우 공교육의 획일성으로 인하여 교육수요자에 대한 학교선택권이 제약된다면 소비자에게 왜곡된 선택을 강요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소득수준이 낮은 소비자나 소득수준이 높은 소비자나 모두 고정된 수량의 획일화된 공교육만을 소비하게 강제된다면 소득수준이 높은 소비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효용이 극대화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되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없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 예상한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지 못한 소비자는 선택이 획일화된 공교육에 대한 소비의 증가는 포기하고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교육을 보다 많이 소비하거나 아니면 외국유학 등을 선택함으로써 공교육의 위기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교육적 선택권을 넓혀줌으로써 합리적인 교육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자립형 사립고 제도라고 주장한다. 만약 자립형 사립고 제도가 도입되어 소득수준이 높은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학교 선택권과 양질의 공교육을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소비자 개인에게는 자신의 효

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 소비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교육적 차원에서도 공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공교육의 위기 현상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리라 예측한다. 정부의 규제와 개입에 의한 이러한 비효율은 공교육의 획일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하게 되어 사교육시장의 확대, 공교육의 질적 저하, 조기유학의 증가, 입시중심교육체제의 만연 등의 부작용을 파생시킴으로써 사회적 비용의 발생과 공교육의 위기현상을 유발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환경(소득, 교육수준 등)을 고려해 볼 때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어 소비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여 원하는 학교를 선택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자립형 사립고 제도가 이해되어져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정희상, 2007). 또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나치게 비싼 납입금을 요구하는 학교를 얼마나 많은 학부모가 선택할지를 학교 측도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결국,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 문제는 경제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추진 논리의 또 다른 주장은 학교선택권을 교육수요자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학교선택권의 확대는 그 주체인 사학이 학생에 대한 선택권의 독점적인 권리로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의 권리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사학과 공학을 막론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우리 공교육의 발전으로 함께 갈 수 있으며,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고자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했을 때 이는 곧 공교육의 질적 향상에 초석이 된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논리인 것이다.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정책 찬성논리의 한계

자립형 사립고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찬성논리는 고교평준화정책이 가지고 있는 학력하향화를 막고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며, 건학이념 및 특수성을 보장하는데 있다. 또한 학교선택권을 강화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시장경제 논리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만으로 앞서 이야기한 찬성논리의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실증적인 증거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며 더욱이 우리나라의 대학입시 상황 속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은 입시에 초점을 맞추게 됨에 따라 그 한계가 명확하다. 또한 우리 국민의 경제적 양극화가 교육적 양극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논리한계를 다루고자 한다.

가. 고교평준화 정책 대안의 한계

자립형 사립고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가지고 있는 폐해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에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고교 평준화 정책의 틀을 깨고 자립형 사립고와 같은 능력별 집단편성을 시행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일관된 연구결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능력별 집단편성을 시행하게 되면 능력이 중간이거나 낮은 학생들에게 불리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Slavin과 Braddock(1993)의 연구에 의하면 능력별 동질집단편성은 능력이 우수한 최상위 3~5%의 소수 학생들에게만 학업성취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비록 능력별 집단편성이 최상위 소수의 우수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도움을 준다는 증거가 있을지 몰라도, 최상위 소수 학생들이 아닌 모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도움을 준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측면은 우리나라의 연구결과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김영철(1995)과 성기선등(2001)은 학교 차원에서의 능력별 집단편성(고교평준화와 고교비평준화)과 학생의 학업성취도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교 차원에서의 능력별 동질집단편성(고교비평준화)보다 학교 차원에서의 능력별 이질집단편성(고교평준화)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중앙교육진흥연구소(2001)의 연구결과에서도 학교 차원에서의 능력별 이질집단편성이 학교 차원에서의 능력별 동질집단편성보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평균 성적을 더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달효, 2006).

성기선(200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평준화 정책의 도입으로 학생들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적어도 평준화만의 탓은 아니며, 보다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학력저하’의 주범이 평준화라는 도식에 근거하여 또 다시 경쟁선발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평준화 정책 도입으로 얻을 수 있었던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간과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김기석(2005)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준화, 비평준화, 특목고 학생들의 성적 향상의 차이는 평준화 정책에 의한 영향보다는 다른 요인, 즉 학교가 위치한 지역이나 학교의 사회 심리적 환경과 같은 요인에 의한 영향이 더 큰 것이다

OECD가 주관한 PISA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영역의 성취 수준이 세계적이라고 보고하지만, 이는 평균성적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최상위급 학생들의 학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PISA 자료는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교육기능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미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생들의 학력저하가 평준화 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는 현 단계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보다는 비판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사실이다.

PISA국제 성취도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핀란드의 경우 학생들의 사회적 배경, 장애·비장애등을 가리지 않고 한 학교에 입학시키는 극단적 평준화 정책을 펴는 나라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OECD가 세계 각국의 학업성취도를 수년간 분석한 결과, 공부 못하는 학생들끼리 모여 있으면 성적이 내려가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끼리 모아놓으면 성적이 조금 오르며,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함께 모아놓으면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베르나르 위고니에르 교육 부국장의 발언)는 사실도 연구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오히려 OECD는 한국이 학교 간 격차를 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한다고 하여 학생들의 학력이 상향화 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국내외 연구에 의해 그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둘째, 자립형 사립고 정책 찬성 논리 한계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평준화 정책의 교육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학업성취도에 대한 효과에 제한되어 있으며, 학업성취도 이외의 정의적 영역과 심동적 영역, 교육활동 영역은 전무한 실정이고, 기타 사교육비를 포함한 사회문제 영역에 관한 연구도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국민의 교육관심이 비등한 것과는 정반대로 평준화 정책의 교육효과는 밝혀진 내용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학업성취도 영역의 선행연구들이 보고한 내용들이 평준화 정책의 교육효과를 타당하게 밝힌 것이었는가는 의심의 여지가 많다. 즉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인 한계를 갖는다. 첫째, 전국 수준의 대표적 표본을 분석한 경우가 드물다. 즉, 연구의 외적타당도를 확보한 연구가 드물다. 둘째, 연구 설계가 연구의 내적타당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결함을 갖고 있다. 셋째, 자료 분석 단계에서 평준화정책과 관련된 공변수와 혼재변수를 통제하는 방법에 결함이 있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의 교육효과에 대한 정확성과 타당성을 갖춘 연구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석 자료와 방법으로서의 적절성을 갖춘 연구들이 광범위하게 수행되어야 한다(강상진, 2005).

자립형 사립고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여 고교평준화 정책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학력하향화에 관한 논리는 앞서 언급했던 성기선(2001)과 김기석(2005)등의 학자들과 OECD의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그 타당성을 잃고 있다. 또한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함께 연구되어야 할 교육효과에 관한 객관적인 일반화 역시 그 타당성을 의심받고 있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한다고 하여 현재 고교평준화 정책의 한계로 지적받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논리의 비약이다.

나. 교육과정 다양화 주장의 한계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으로 인해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가능해 지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좋은 진학결과를 가져온다는 논리는 또 다른 자립형 사립고 정책 추진의 이유가 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의 자율화라는 측면은 평준화로 인해 획일화된 교육과정의 다양화라는 측면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의 실질적인 구현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교육과정의 자율화는 평준화로 인한 획일화를 극복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입시위주의 교육 현실로 볼 때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입시와 상관없이 진행될지는 의문스럽다. 이미 과학고나 외국어고에서 그런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과학이나, 외국어에 능력 있는 학생을 키우는 것이 본래의 의도지만 입시의 유리하거나 불리함에 따라 학사 운영의 파행과 자퇴, 전학소동을 겪은 바 있다. 학벌 위주의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교육과정의 다양화는 어떤 학교 제도를 도입해도 무용지물임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 예로 학교 현장에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명시되어야 하지만 광양제철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입시와 관련된 교과가 우선적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활동 192단위, 재량활동 12단위, 특별활동 12단위로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중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보면 영어교육강화에서 1학년은 8단위, 2~3학년에서 최대 20단위까지, 선택할 수 있다. 논설위원회 운영프로그램에서는 1학년 8단위, 2~3학년에서 최대 18단위까지 선택할 수 있고, 컴퓨터활용인증제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1학년에서 8단위, 2~3학년에서 4단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광양제철고등학교 학교현장). 이것은 일반고의 국, 영, 수의 편성과 차별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전북 상상고의 경우 3학년 이공계의 경우 국어관련 4시간, 수학관련 8시간, 영어관련 7시간등 총 19시간으로 전체시간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민족사관고 국제계열의 2학년 2학기의 경우 영어포함 외국어과목 11시간, AP전문 과정 10시간등 정상적인 보통교육과정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는 정부의 지정요건인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또한 대부분이 대학진학 준비에 맞춰져 있고, 그 외 특기적성교육 등은 일반 학교에 비해 뚜렷한 특성을 엿볼 수 없다(하병수, 2005). 결국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입시에 유리하도록 하는 것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2005년도에 실시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평가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립형 사립고는 자율적인 학교운영을 통해 새로운 사학의 운영 모형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 것으로 판단되나 자립형 사립고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특히, 각 학교 나름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한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과 입학과정에서 학부모의 경제력

이 미치는 영향력 측면에서 제한점이 발견되었다. 현실적으로 내신 성적 산출을 위한 일반계 인문 고등학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 운영은 학생중심이 아닌 학교의 판단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으며, 건학이념 실현을 위한 과목을 개발하여 편성 운영하거나 검인정 교과서 이외에 독창적으로 교과서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사례를 발견하기 힘들다.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있으나 교육과정은 일반고와 동일하다(김주후, 2005). 결국 국가교육과정과 현 입시경쟁구조에서 다양화와 특성화는 사실상 허울 좋은 이름에 불과한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교육과정 다양화에 관한 또 다른 논리한계는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학생중심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다. 이를테면 <표Ⅳ-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육과정 편성시 학생특성 반영 방식을 살펴보면, 자립형 사립고는 학력평가 결과와 교사들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다는 경우가 응답교사의 64.2%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3년도 사립고 및 지역사회 사립고 설문조사 결과인 57.4%와 58.9%와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더 강하게 교육과정의 편성에 있어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내 준다. 또한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반영의 경우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는 11.0%를 보여 지역사회 사립고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19.2%를 보인 2003년도 사립고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자립형 사립고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보다는 학교의 판단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다. 물론 선택중심교육과정 편성이나 특별활동 편성시에 학생들의 요구와 흥미를 반영하는 비율이 2003년도에 비해 점차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변화로 자립형 사립고의 프로그램 특성화와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표 Ⅳ-2> 교육과정 편성시 학생특성 반영 방식
(자립형 사립고등학교·2003년 연구·지역사회 교원)

(단위 : 명, %)

	학력 평가 결과 반영		교사들의 판단을 수렴하여 반영		교육과정 편성 담당자 의견 반영			학생·학부모 설문 조사 결과 반영		별도 반영하지 않음		무응답	전체
	결과 반영	수렴하여 반영	편성 담당자 의견 반영	학생·학부모 설문 조사 결과 반영	기타	반영하지 않음	무응답						
자립형 사립고	141 (40.6)	82 (23.6)	61 (17.6)	38 (11.0)	14 (4.0)	6 (1.7)	5 (1.4)	347 (100.0)					
2003년 연구	451 (30.3)	402 (27.1)	186 (12.5)	285 (19.2)	12 (0.8)	128 (8.6)	22 (1.5)	1,486 (100.0)					
지역사회	159 (41.1)	69 (17.8)	68 (17.6)	43 (11.1)	2 (0.5)	43 (11.1)	3 (0.8)	387 (100.0)					
계	751 (33.8)	553 (24.9)	315 (14.2)	366 (16.5)	28 (1.3)	177 (8.0)	30 (1.4)	2,220 (100.0)					

자립형 사립고 정책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논리한계는 자립형 사립고와 같은 학교체제의 새로운 변화가 교육과정 특성화와 수업 질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직결

된다라는 기대는 짧은 기간 동안 달성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Lunienski(2003)가 제시한 연구를 보면 좀 더 분명히 이해된다. 학교는 순수경쟁시장이 아니다. 따라서 경쟁이 도입되어도 가격(수업료)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없다. 또 학교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실의 개혁’은 시도되지 않는다는 점이 여러 나라의 연구에서 발견된다. 핵심과정인 교육과정에서 연구개발을 시도하는 것은 비용과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에 노출된 대부분의 학교들은 차라리 이미지 경영에 주력하게 된다. 오로지 좋은 학생을 뽑기 위한 홍보나 이미지 강화에 모든 자원을 쏟아 붓게 된다.

다양화와 선택이라는 것은 항상 대등하게 유지되지 않는다. 제도적으로 학교교육과정의 다양화가 어떻게 조성되든 실제로 선택되지 못하는 차원의 다양화는 실종되기 마련이다. 예컨대, 우리 사회에서 자립형 사립고의 선택이 대학 진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 이 가능성의 축이 사실상 학교교육과정의 다양화 스펙트럼을 결정하게 된다. 이 축은 수직적인 것이다. 대학 진학률이 좋은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의 위계가 다양화의 실지 모습이 된다. 온갖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다른 차원(예컨대 진로계열)의 다양화를 고집하고 학생들을 유인하더라도, 이 차원의 학교 다양성은 선택에서 차별적인 값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멸하게 된다. 이는 수요자들이 환영하는 명문 학교의 서비스가 과연 ‘공교육’에 합당한가 하는 점이다. 비유컨대 소위 입시 위주 교육이 전인교육에서 먼만큼, 그 학교 교육도 공교육과 거리가 먼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남게 된다. 즉 ‘사교육’에 학생을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공교육을 지켜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강태중, 2008).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 및 확대는 학교교육과정의 다양성과 특성화를 위한 길이 아닌 또 다른 입시학원의 설립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힘들다.

다. 사학의 교육경쟁력 주장의 한계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립형 사립고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으며 이는 사학의 교육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몇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 실제로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자율성의 전제조건인 재정의 자립도 측면에서 학교별 법인전입금이 낮아 교육경쟁력 강화가 어렵다. 하지만, 기업에서 운영하는 3개교(포철고, 광양제철고, 청운고)를 제외하면 줄곧 기업에서 운영하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족사관고, 재단이사장의 개인 투자로 운영되는 상산고의 경우는 지금까지 법인전입금이 양호한 수준이나, 법인전입금이 23%로 가장 비

율이 낮게 나타나는 해운대고의 경우 재정적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부분이 미흡하며 기숙사 건설 및 운영, 그리고 식당 운영을 아웃소싱(outsourcing)함으로써 법인으로부터의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이 별로 없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성기선, 2006).

둘째,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시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기대했지만 실제 운영 결과를 보면 오히려 입시에 대한 강조가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성기선, 2006). 또한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교과목 신설 및 교과서 개발 등의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김주후, 2005). 대부분의 학교가 국민기본공통교과목 중 일부 국어, 수학, 영어 등 특정과목의 수업시간수를 오히려 더 높게 편성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상산고등학교 3학년 이공계의 경우 국어관련 4시간, 수학관련 8시간, 영어관련 7시간 등 총 19시간으로 전체시간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지정요건인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또한 대부분이 대학진학 준비에 맞춰져 있고, 그 외 특기적성교육 등은 일반계 고등학교와 뚜렷한 차별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태는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라는 설립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인문계 고등학교는 1차적으로 대학진학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론을 제기하지만 사실 그런 이유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기존 교사진이 새로운 제도로 도입된 교육을 맡아야만 했던 시범운영 학교의 여건상 제약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야 하지만 변화에 대한 노력이 엿보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입시명문고화될 우려까지 낳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대단히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셋째, 학생 선발에 있어 정규 교육과정을 뛰어넘어 사교육이 없이는 불가능한 입시형태를 띠게 된다. 자립형 사립고의 학생선발 역시 자율성의 큰 영역중 하나인데, 현재 시범운영중인 자립형 사립고의 학생선발은 국·영·수 중심의 지필고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표 IV-3>에서 보듯이 외관상으로는 국·영·수 중심의 지필고사가 없는 듯 보이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영·수의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심층면접을 통해서 국·영·수 교과 관련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성적 위주의 선발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국·영·수 중심의 지필고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학교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이들 세 과목 성적을 중심으로 선발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특히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4개 학교의 경우 고난이도의 국·영·수 중심의 면접내용은 정상적인 중학교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각종 사교육기관에서 미리 입시반을 운영하는 등 입시교육열을 부추기

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전형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TOEFL, TOEIC, TEPS 등의 영어 성적, 국어, 수학, 과학 등 교과별 경시대회 등의 수상성적을 중요한 전형요소로 삼고 있다. 상산고와 포철고는 각각 TOEIC 성적 700점 이상 및 775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정도의 영어 능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 불허’, ‘소질 적성 및 창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입학 전형 실시’라는 방침에 위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면접내용의 일부가 주요교과에 대한 구술평가와 주관식 시험을 포함하고 있으며, 토익, 토플 성적, 경시대회 입상 실적을 중요한 입학전형 자료 중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어 국·영·수 중심의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사학의 건학이념과 걸맞은 학생선발이 아니다(김주후, 2005).

<표 IV-3> 신입생 전형시 국영수 반영 비중

구분	광양제철고	민족사관고	상산고
국영수 지필고사	미 실시	미 실시	미 실시
전형별 국영수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 전과목 내신성적 반영 (국영수 비율 31.6%) · 특별 : 주로 성적우수자와 대회입상자가 대상이 되므로 실제 국영수 성적에 의해 많이 좌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서류전형에서는 전과목 내신 성적을 고려 · 지원자격기준, 영재관별검사, 심층면접은 국영수와 밀접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영수 위주의 고난이도 교과면접(100점/400점만점) 실시 · 특기, 적성, 잠재력 판단을 위한 자료해석 위주의 면접 병행
구분	포항제철고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국영수 지필고사	미 실시	미 실시	미 실시
전형별 국영수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시험에서 수학영어 능력 중시, 논술고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층 면접시 심층적 원리 중심의 구술평가 및 주관식 수학시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층면접(교과면접, 시험)을 실시하고 있어 국영수 비중이 높은 편임.

자료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방문평가 보고서

결국 학생선발면에서 일반전형의 경우 내신우수자를 선발하고 특별전형의 경우 대부분이 도 단위 및 학교자체 경시대회 우승자이어야 지원할 수 있으며, 동 경시대회가 주객관식 필기고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지필고사를 거쳐 선발되고 있다. 이는 선발요강상의 지필고사 금지규정을 명백히 위해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선발 시 소질, 적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입학 전형을 실시한다는 정부의 계획과 어긋나는 것으로 ‘입시명문고가 되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통념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립형 사립고 추진을 통해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시

킨다는 것이 곧 사학의 교육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우수학생을 독점하고 이로 인해 입시 명문고화 될 가능성을 높이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라. 학교선택권 주장의 한계

자립형 사립고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그동안 빼앗겼던 학교선택권을 교육수요자들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것은 그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각 학교의 질적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공교육의 발전을 꾀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여러 가지 한계를 낳게 된다.

첫째, 자립형 사립고 정책이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되찾아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한계는 학교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이 매우 제한적이다. 비평준화제도 하에서 학생의 학교선택권은 실질적으로 성적이 최상위 권에 있는 소수 학생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불과하다. 물론 그 선택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이 아닌 성적에 따른 획일적 선택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선택권의 부여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보다 선발효과(screening effect)만을 갖게 된다는 비판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Liebman,1992). Liebman은 선택권이 부여된 학교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된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집단을 동질화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우수한 동일집단을 선발하여 교육시킴으로써 높은 학업성적, 입시성적을 내게 되어 귀족명문학교가 된다. 반면에 이러한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들이 대체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낮은 계층의 학생들이어서 학생들 간의 위화감, 계층의 고착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학교선택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특정계층에게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Bell(2005)이 분명히 지적하고 있듯이 학교선택권에 대한 주장은 상류의 고소득 전문직계층만을 위한 교육기회 부여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경쟁사회에서 학력의 중시는 불가피한 발현의 형태이고, 이러한 학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학교의 선택을 위해서는 평준화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학력주의가 갖는 병폐를 주목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앞서 학교선택권의 한계로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선택들이 모두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 일부 계층만을 위한 선택인 것이다. 학생들에게 있어 학교선택에 대한 출발 조건이 같아야 하지만 자립형 사립고와 같이 일반 고등학교보다 3배나 높은 납입금을 고려해 볼 때, 선택의 과정에서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주된 역할을 하게 되며 그러한 선택은 학교선택권에 관한 사회적 불평등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자립형 사립고는 정부의 지원 없이 학생

의 납입금과 재단 전입금만으로 운영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선택할 수 없는 학교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은 상위계층의 교육적 수요만을 고려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입시위주의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와는 거리가 멀 것이라는 한계가 지니고 있다. 공교육의 일차적 과제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보통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유지하고 일반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자립형 사립고를 통해 학교선택권을 교육수요자들에게 돌려준다는 사실이 설득력을 잃게 된다.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결과를 보더라도 그 한계는 여실히 드러난다. 장학금 수혜 학생의 비율의 경우 6개 자립형 사립고가 15%의 조건을 맞추고 있다. 학생납입금 총액 대비 15.4%에서 90.8%까지 분포하고 있어 장학금 지급에 관한 지정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15%의 학생은 학생 선발시 소외계층을 선발하고 그들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설정한 것이었지만 실제 운영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김주후, 2005). 중학교 내신성적, 면접, 경시대회 성적, 영어 성적 등 교과성적을 중심으로 선발하게 되면 자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장학금 15%를 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애초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 납입금과 수익자 부담 경비로 인해 취약계층의 진학 동기가 애초에 억제됨으로써 학생 구성에서 취약계층이 극소수에 불과하여 빈곤가정 등 장학금 지급 대상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노출되고 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성적 위주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원래의 취지를 왜곡 시키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성기선, 2005). 민족사관고의 경우 다산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보조가 필요한 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이지만 기숙사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복지장학금의 경우는 ‘본교 교직원 자녀’를 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생활보호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용어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점검결과 보고서에서도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영세민자녀의 경우, 상산고는 대상자 35명 전원을 지급함으로써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배려하고 있으나, 해운대고는 배려 전무(성적으로 지급)라고 되어 있어 계층 간 위화감 완화를 위한 어떤 제도적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고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숙사비와 급식비, 프로그램 다양화에 따른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성기선, 2006). 저소득층과 같은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금 제도는 결국 성적우수자를 중심으로 한 장학금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실제로 귀족학교라는 굴레를 벗어 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자립형 사립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부모의 경우 의료인, 교육자, 공무원, 법조인 자녀 30%를 넘고 있으며, 제조업, 농림수산업, 운송업 자녀는 매우 적게 분포되어 있다. 이들은 한해 2000만원이 넘는 교육비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교육부조사, 2004).

비교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 자립형 사립고와 같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학부모들은 해당학교의 위치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기준을 토대로 학교를 선택하게 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학부모들은 재정적 여건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면서 상대적 빈곤감을 더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학교간의 이미 존재하는 재정적 차이 및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차이를 더욱 심화·조장시킬 수 있다. 극단적으로는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은 고소득층 자녀를 위한 고액 입시학원을 공식적으로 공인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학교간의 입시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키게 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둘째,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학교선택권 주장에 대한 또 다른 한계는 학생 선발에 있어서의 각종 부작용이다. 자립형 사립고는 자유로운 학생 선발을 보장하지만, 타 학교와의 경쟁에서 탁월한 우위를 점해야 하는 바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학교들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입학시킴으로써 타 학교와의 경쟁력을 가지려 할 것이다. 따라서 개별학교마다 공정한 경쟁을 조장하기보다는 집단 간의 차별을 더욱 조장하여 기존의 성취수준이 낮은 학교로부터 많은 우수한 학생을 빼앗아 가는, 이른바 ‘우수학생 흡수효과’를 가져와 열등한 학교를 손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없게 만든다.

학교선택권은 교육권의 하나로서 되도록이면 허용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하지만, 선택권이 형식적으로 주어진다고 해도 모든 학생이 다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다닐 수는 없다. 평준화가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평준화가 폐지되는 날, 모든 학생이 다 자신들이 선택하는 학교에 다니리라 예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평준화제도 역시 학생들의 소원을 다 들어줄 수는 없다. 어차피 학교는 수용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입학을 원하는 학생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그런데도 마치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게 되면 다들 원하는 학교에 다닐 듯이 말하는 것은 현실을 덮어 가리는 일이다. 평준화제도도 모든 학생에게 선택권을 베풀고 있음을 재삼 강조될 필요가 있다. 1996년부터 학군 내에서 ‘선복수 지원, 후추첨방식’에 따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온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해도 학생의 선호와는 관계없이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배정되는 경우가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지만,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한다고 하여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는 평준화를 폐지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학교간의 교육여건의 차이를 없앴으로써 해결할 문제인 것이다.

김성진(2003)의 자립형 사립고의 정치·경제학적 특성의 관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도입을 통한 학교선택권의 부여는 경제력이나 문화자본이 우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요

령을 터득하게 만들어 준다. 즉, 선택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에 대한 해석 능력은 문화자본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류층의 학부모들은 학교 선택에 있어서 통학과 관련된 점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상류층 사람들은 통학에 따른 시간적 공간적 제약보다는 장래의 기대 수익과 같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결정한다.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하위층 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정신노동자에게 선호도가 높게 나오고 있으며,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에서도 학력이 낮은 계층은 의견 제시가 단순한 반면 학력이 높은 중산층 이상의 계층은 그 의견 제시가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강태중, 2003).

셋째, 학교선택권을 위한 물리적인 제반조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을 통한 학교선택권의 부여는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을 통해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 다양한 교육과정 등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그러한 다양한 학교와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경우 사회적으로 인정되는가의 문제도 생각되어야 한다(심성보, 2000). 지금 우리의 교육 현실로 볼 때 학교선택권은 대학 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학교를 선택한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미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활동을 위한 특수목적고나, 특성화고등학교 등이 있었지만 여기에 진학한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의 행동은 대학 진학에 유, 불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다. 학교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다양화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의 선택권이란 학력위주의 학교선택, 대학입시를 위한 학교 선택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다양성과 창의성, 개성 있는 교육을 지향하고자 도입된 특수목적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등은 모두 예외 없이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그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학교 선택권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학교마다 교육내용이 다양화되고 특성화되어야 한다. 교육하는 내용이나 학교문화, 생활지도 등 여러 측면에서 학교들 간의 변별력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시범운영중인 자립형 사립고와 함께 평준화에서 제외된 특수목적고등학교 조차 일반계 고등학교와 꽤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도 동일한 입시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일류대학 진학을 중시하는 학벌주의 사회풍토 속에서 학부모들이 선택하려는 학교는 대부분 입시준비에 주력하는 입시명문고로 학부모의 선택 욕구는 자녀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적 욕구에서 나왔다가보다는, 평범한 일반고와는 차별화되는 입시명문고에서 공부하는 혜택을 누리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학교선택권을 통해 자립형 사립고는 학부모의 욕구에 들어맞는 입시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내려고 더더욱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학교선택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자립형 사립고

를 통해 이를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구조적인 학벌문제의 시정,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의 강화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물리적 조건들이 성숙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선택권은 과거 비평준화 제도 하에서 학력만을 기준으로 입학할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고르는 선택일 뿐이며, 명문학교에서 우수 학생만을 선택하고자 하는 의도에 부합되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자립형 사립고를 통한 학교선택권은 소수의 특권을 보장하는 또 다른 불평등을 낳게 된다.

결국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게 되면 학교선택권에 대한 요구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교육적 관행과 구조 속에서는 서구사회와는 그 의미가 다르며, 오히려 대학입시에 좀 더 유리한 학교를 선택하고자 하는 중상층 계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립형 사립고 정책을 통해 교육수요자들에게 학교선택권을 되돌려 주는 것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의 제한, 학생 선발에 있어서의 부작용과 더불어 각종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은 공교육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공교육의 민영화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부실한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공교육을 포기한 채 교육을 시장 경쟁논리에 맡기고 있다. 공교육을 시장기제에 맡김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학교선택권이 강화되어진다고 낙관하고 있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공교육의 이념이 무너지고 교육의 책임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려 하는 한계에 직면한다.

V.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반대논리 분석

자립형 사립고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논리는 자립형 사립고 정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고교평준화정책은 해체되고, 사학의 자생력을 신장시킨다기 보다는 부실한 영리사학을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로 인해 공교육은 변질되고 사교육비는 증가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이장에서는 이러한 반대 논리에 대해 분석하고 그 논리에 한계가 무엇인지를 다루고자 한다.

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정책의 반대 논리

가. 고교평준화 정책 해체 초래

자립형 사립고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우려하는 점은 자립형 사립고 정책으로 인하여 고교평준화 정책이 해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은 1974년 이래로 지속되어 온 고교 평준화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려 또 다시 과열 입시 경쟁과 학력과 학벌의 망령이 되살아 날 우려를 자아낼 것이라 주장한다(김천기, 2002). 즉, 평준화제도의 도입 당시 정부가 밝혔던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학교간 격차 해소, 사학 및 실업 교육 진흥, 지역 간 균형 발전, 국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학생 인구의 도시 집중 억제와 같은 문제가 다시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평준화제도를 해체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다(강태중, 2003).

고교평준화제도의 근본취지는 과거 명문고 비명문고의 우열을 없애고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우리 교육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공한 교육정책의 하나이다. 따라서 반대론자들은 자립형 사립고가 도입됨으로서 학벌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이 국·영·수 중심의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재편성 될 것이라 우려한다. 실제로 지필고사를 시행하지 않지만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기준으로 학생선발을 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를 진학하기 위한 사교육 열풍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결국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은 입시경쟁 교육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로 진락될 것이라 예상한다. 그 결과 고교평준화 정책의 근본 취지를 뒤흔들 수 있는 고등학교의 또 다른 서열화를 형성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명문고를 만들게 되리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이다.

소수의 자립형 사립고로 인해 고교평준화 정책의 해체가 초래되어 질 수 있는가에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현재 시행중인 특수목적고의 경우를 지적하고 있다. 2007년 유기홍 의원이 전국 외국어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동일계 진학을 위한 어문계열 교육보다 입시에 유리한 자연계 과목을 과행적

으로 집중 편성한 것을 지목한다. 교육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명문대에 진학하는 지름길로서 특목고를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말미암아 고교평준화 정책의 근본취지인 학교간 선호도 차이와 서열을 없애는 것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결국 입시학원으로 전락해 버린 특목고와 마찬가지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선호가 확대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결국 반대론자들은 자립형 사립고도 애초 취지와 달리 명문대에 잘 보내는 입시기관으로 변질되며, 자립형 사립고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평준화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우려와 함께 이러한 경쟁 속에 성적에 따른 학교배정 방식은 평준화해체를 초래하게 되리라 주장하고 있다.

나. 고등학교의 서열화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두 번째 반대논리는 고등학교의 서열화로 인한 부작용이라 주장한다.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교육과정의 자율화는 결국 수직적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 수직적 서열화는 오히려 교육의 획일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것이다. 획일성이란 ‘다양한 심리·사고·행동을 무시하고, 일정한 틀에 박아 인위적으로 규격화하고 동질화하는 경향’으로 정의된다. 한국 교육의 체제와 교육활동의 실체는 위의 정의에서 나타난 획일성의 문제가 크다는 진단을 받아왔다. 즉 학생들의 흥미, 동기, 적성, 능력에 상관없이 규격화하고 동질화하는 경향이 있어왔다는 것이다(강태중, 2004). 동시에 경쟁체제 하에서의 학부모, 교사, 학생의 열망과 관행은 교육의 획일화에 기여하기도 하므로, 고교 서열화의 ‘완곡어법’인 다양화 프로젝트는 오히려 교육 획일화를 공고화할 것이라 주장한다. 자립형 사립고 정책은 교육과정의 다양성(curriculum diversity)보다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른 교육과정 차별화(differentiation, 이를테면 우열반 편성)로서 학교 간 수직적 서열화로 확대시키는 것이라 지적한다. 이러한 고등학교의 수직적 서열화는 우리 사회의 커다란 병폐 중에 하나로 지적되는 학력과 학벌 중심의 사회 구조 속에서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리라 예상하는데, 그 부작용의 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투자로 운영되는 자립형 사립고가 입시에서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초래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류대학의 입학자 수에 따라 고등학교를 서열화하고 중학교를 다시 입시준비기관을 전락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교선택이 결정되고,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사교육비 부담이 늘게 되면 자립형 사립고를 중심으로 신흥 명문 학교를 탄생시키고, 학교간의 적자생존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입시위주 교육의 무한경쟁 체제하에 고등학교 서열화로 1등급은 자립형 사립고, 2등급은 외국어고와 과학고, 3등급은 외

국어 집중과정 개설 학교 등의 학교군내 특성화 고등학교, 4등급은 일반계 고교, 5등급은 실업계, 농·어촌 고등학교가 될 것이라고 시사한다. 이는 자립형 사립고 진학을 위한 중학교의 과열된 입시상황을 유발하는 것으로 비판받는다(정일환·김경선, 2002). 이와 비슷한 주장으로서 김천기(2002)는 귀족적인 자립형 사립고, 영세한 사립고, 자율적 명문 공립학교, 슬럼화된 공립학교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반대론자들은 자립형 사립고의 등장이 일반 고등학교간의 등록금의 격차, 학생들 간의 성적 격차 등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이면서 모든 고등학교 교육을 부실하게 하여 서열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 주장한다. 몇몇 우수한 학생과 교사를 사립학교에서 데려가고 나면 나머지 학교와는 실력의 차이가 발생하고, 여기에 수업 방법과 진도를 맞춘다면 다른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와 서열화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공교육 전체를 부실화된다는 것이다.

둘째, 자립형 사립고로 인한 고등학교의 서열화는 부유층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귀족학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김천기, 2002). 자립형 사립고의 교육과정 운영이 특정 계층 출신 학생을 위해 특성화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학생 개개인의 가정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확보의 미비로 자립형 사립고 학생들이 특정계층에 속해 있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지만, 자립형 사립고 학생의 가정배경 분포를 보면 전반적으로 중류층이라고 할 수 있고, 학생의 학력 수준과 사회계층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중학교 재학 또는 그 이전부터 특수목적고 내지 자립형 사립고 입학에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서 학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상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실제로 자립형 사립고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51.9%가 연간 평균 883,690원의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어 지정조건인 ‘장학금 지급시 납입금 전액 면제로 환산하여 15%이상 학생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납입금 반액 면제인 경우 30% 이상의 학생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라는 지정조건을 대부분이 충족하고 있지만, 장학금 수혜자 대부분은 성적 우수자 중심으로 지급되고 있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되는 비율은 전체 평균 2%정도로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음은 자립형사립고에는 소외계층 자녀가 거의 재학하고 있지 않다는 간접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를 선택할 수 있는 계층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대부분의 상위 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경근(2001)의 자립형 사립고 진학 수요 결정 요인 분석에서도 사회계층별로 진학과 관계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학부모의 사회 계층과 자녀가 진학하는 학교의 특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로서, 일반적으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부모들일수록 상당한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자녀를 사립고에 진학시키는 경향

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계층별로 보면 중등교육단계에서의 학교 선택과정은 상이한 요인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류층의 학부모는 학교선택에 있어서 통학과 관련된 시간적, 공간적 요인을 우선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주거지로부터의 근접성을 선택의 주요 요인으로 보는 반면, 중산층 이상의 학부모는 제대로 된 학교를 선택하는 일에서부터 학교선택의 과정을 시작하고 자녀의 의사는 상대적으로 제한되게 반영한다는 것이다. 통학 거리와 같은 근접성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상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교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계층별로 볼 때 자립형 사립고의 선택은 경제력이나 문화자본을 많이 가진 집단일수록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연구이며, 자립형 사립고 진학 수요 조사에서 주된 고객이 전문 관리직에 종사하는 고소득 계층의 자녀가 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진학수요 결정 분석에서 학부모의 배경 변인별로 반응의 차이를 본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를 자립형 사립고에 보낼 의향이 높은 것으로 주장한다(성열관, 2008).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가 도입되면 전 국민에게 일반화 될 수 있고, 선택될 수 있는 학교가 아니라 일부 상류 계층의 선택이 유효한 학교가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럴 경우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 학교간 학생 분포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세습될 수 있음을 보여주게 되리라 예측하고 있다..

셋째, 자립형 사립고는 평준화 제도 하에서 다른 학교와는 달리 학생들을 자체 선발함에 따라 우수학생(그것도 부유한 가정의 우수학생)을 독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리라 주장한다(김천일, 2002).

자립형 사립고가 진정한 의미에서 가치 있는 교육 대안이 되지 못하고 대입 전략상 유리한 대안에 불과하게 되는 이런 교육여건 속에서 자립형 사립고는 그 교육의 내용이 달라서가 아니라 단순히 학교 이름이 달라서 학생을 끌어 모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대학 진학 성적이라는 측면에서 명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려들게 되고, 이 때 학교 교육의 가치는 실질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명목적인 것으로 전략하게 됨에 따라, 그 학교에 진학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가 초점이 아니라, 다만 그 학교 이름이 박힌 졸업장을 얻어 내는 것이 초점이 되리라 주장한다. 졸업생들은 ‘명문의 학벌’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의 엘리트로서 군림할 수 있게 되며, 자립형 사립고 출신의 졸업생들이 사회적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이 교육의 성과를 입증해주는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학벌을 지닌 사람들이 소위 사회적 지도자가 되는 경우, 그들이 진정한 뜻에서 지도자가 된다고 하여 사회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진정한 지도자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인지는 명백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상에서 반대논리를 살펴보았듯이, 자립형 사립고가 교육수요자를 위한다고 하

지만 그로인해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발생시켜, 그것은 실제 기득권의 교육적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 집 자녀 위주의 교육정책이 전락하게 될 것으로 주장한다.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은 국가의 공적 책임을 학부모의 부담이라는 수익자 부담의 교육 논리를 펴겠다는 것이며, 상류층의 자녀들에게 유리한 고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있는 사람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변질될 것이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교육격차를 넓혀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다수는 출발 선상부터 불평등하게 교육을 시작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제시한다. 장학금을 통한 할당제를 통해 소외계층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상류층 자체들만 모여 있는 자립형 사립고의 문화에 빈곤층은 쉽게 적응할 수 없기에 문화적 소외는 여전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한 쪽에는 ‘귀족학교’가 나타나고, 다른 한 쪽에는 ‘빈민학교’를 양산시키는 교육의 슬럼화를 낳아 계층대립을 격화시키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 이것이 자립형 사립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게 될 고등학교 서열화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반대논리의 요점인 것이다.

다. 사교육비 증가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또 다른 한계는 현재 서울 국제중이나 각종 특목고 열풍에서 알 수 있듯이 엄청난 사교육 열풍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다(강태중, 2008).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사교육비 전체 규모가 전년대비 4.3% 증가하여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조 9천억’으로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3천 원이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0%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들어 줄곧 영어 공교육 강화 등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교육비는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는 등 정부대책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해 영어 사교육비는 2007년에 비해 12%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아래서는 사교육비가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외국어고와 자립형, 자율형 사립고, 국제중 진학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 사교육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성균관대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는 그동안 사교육비 증가 추세를 토대로 볼 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교육비는 연평균 7.3%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자립형 사립고에 진학하는 학생의 경우 학업성적이 우수한 상위권 학생들임을 감안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기사는 자립형 사립고 정책 추진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문제와의 연관성을 유추해 본다. 학업성적이 상위권 학생의 경우 사교육비가 더 많이 지출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성적 상위 10%이내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

(31만5천원)가 하위 20% 이내 학생(12만9천원)의 2.4배였다. 이는 성적이 높은 학생은 주로 선행학습을 위해, 성적이 낮은 학생은 주로 학교수업 보충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자립형 사립고를 비롯한 특목고들의 일반고교와는 다른 학생선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중학생으로서 반드시 고등학교 이상의 선행학습을 필요로 하는 상위권 학생들의 사교육을 더욱 강요하게 될 것이라 전망한다(CBS 노컷뉴스; 2009.02.27).

<표 V-1>에서 알 수 있듯 2009년 3월 29일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육비는 39조 8771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 132억 원이 증가했다. 특히 사교육비는 19조원으로 전체 교육비 지출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 같은 교육비 지출은 지난해 전체 가계소비지출(국내) 534조 4989억 원의 7.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처럼 교육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경제난에도 자녀 교육비는 줄이지 않는 한국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추진은 명문대 진학을 위한 과열입시양상으로 인해 사교육비를 더욱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표 V-1>연간 교육비, 사교육비 지출

(단위: 억원)

	총지출 대비		교육비 대비	
	교육비	비중(%)	사교육비	비중(%)
2000년	175,453	5.4	61,620	35.1
2002년	228,926	5.8	93,258	40.7
2004년	283,439	6.8	128,559	45.4
2006년	355,729	7.1	156,571	46.6
2007년	368,639	7.3	173,935	47.2
2008년	398,771	7.5	187,230	47.0

출처 : 한국은행

반대론자들은 이처럼 학벌위주의 출신대학을 중요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자립형 사립고는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필수 과정이 되어 버렸고 이를 위해 수많은 학생들이 지금도 사교육 열풍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 및 확대는 사육비 경감 효과보다는 오히려 경쟁을 강화시켜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부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5년 실시된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결과에서도 자사고의 학생들의 경우 주변 사립고 학생들보다 사교육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중류층 이상 자녀들로 학생 10명 가운데 7명(68.2%) 정도가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반면 6개 자사고가 위치한 인근 지역의 일반계 사립고

학생들은 절반선인 54.8%만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민족사관고 학생들은 사교육비 1248만원을 포함, 1년에 2786만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성기선, 2006). 학교별로 보면 민족사관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모두 사교육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민족사관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도 방학기간에는 일반 사립고보다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편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자립형 사립고 도입으로 사교육비가 경감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경쟁을 강화시켜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부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평가 내릴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이다(성기선, 2006).

<표 V-2>에서 보듯 민족사관고의 경우, 학생 1명이 기숙사비, 현장학습비 등 1년에 학교에 내는 교육비(수익자 비용 부담액)가 1257만원이었다. 등록금 281만 7600원을 더하면 1년간 학부모가 부담하는 공교육비는 1538만원이었다. 여기에 월 평균 104만원의 사교육비를 쓰고 있었다. 그동안 민족사관고에 자녀를 보내려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나돈 입소문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자녀를 보기 위해 일주일에 한차례씩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때, 학원선생을 데려다 과외를 시키거나 주말을 이용, 자녀가 집으로 올 때 과외를 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나돌았었다. 대부분의 자립형 사립고 학생들은 해당학교의 운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사교육 감소효과가 있는지 묻는 조사에서 감소효과가 없다는 데 공감 을 표시했다. 또한 학부모의 월 평균 소득은 537만원으로 도시 근로자 월평균 가계 소득 329만원에 비해 훨씬 많았다. 직원 자녀들의 복지차원에서 설립된 3개 학교(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를 제외한 민족사관고, 상산고, 해운대고의 경우 월 700만원 이상의 소득 비율이 각각 35.4%, 21.6%, 19.6%에 이른다. 보고서는 학생의 가정배경 분포를 보면 전반적으로 중류층 이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거의 재학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게다가 자립형 사립고의 학생들 경우 이과계열 진학이 많았고, 좀 더 세분화하면 공학·자연·의학등 이과계열 진학이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한다. 포항제철고는 47.5%의 학생들이 이과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나왔다. 이밖에 광양제철고는 40.3%, 민족사관고는 45.8%(외국대학 진학은 제외)로 나왔다.

<표 V-2> 자립형 사립고 학부모 수입 및 학비 현황

(단위: 원)

비고	광양 제철고	상산고	민족 사관고	포항 제철고	해운대고	현대 청운고	평균
학부모 월수입	408만	586만	678만	459만	587만	460만	537만
등록금 (연간)①	104만2000	390만600	281만7600	115만1466	441만5400	283만1320	269만3064
특기적성+ 기숙사비②	145만8340	548만500	1256만 9163	156만6964	548만4525	229만3925	480만8903
총액 (①+②)	250만340	938만1100	1538만 6763	271만460	989만9925	512만5245	750만1967

자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방문평가 보고서

학력과 학벌이 가변적이지 않고 고착화되고 집중화되고 있는 우리의 교육적인 현실에서 자립형 사립고는 다양하고 인간적인 면을 학습하는 곳이 아니라 왜곡된 학벌주의의 그늘에서 더욱 늘리는 일이 되리라 예측한다. 대다수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더 좋은 학벌을 위해 과열된 입시 경쟁에 내몰리게 되고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해야만 한다. <표 V-3>에서 알 수 있듯 교육부가 조사한 전국의 문리계 사설 학원 추이를 보면 1997년 12,133개였던 것이 2002년에는 19,857개로 늘어나 63.6%로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표 V-3> 문리계 사설학원 추이

년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학원수	12,133	13,727	13,204	14,043	16,098	19,857

출처: 한겨레신문, 2002, 08, 16: 사회면

문리계 사설학원의 증가는 입시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학력이 높은 계층일수록 학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더불어 사회활동의 결정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으며, 30대와 40대의 과외비에 대한 부담이 높다고 인식되는 것은 정치경제적 의미에서 그들이 사회의 중심축에 있고 학벌에 대한 견고한 작동 기제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학벌 사회로 이끌지 않을 수 없음을 보여 줌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2002년 3월 10일 한국은행이 1990년과 2000년 치의 각 국 공식 자료를 비교해 발표한 ‘주요 경제 지표의 국제 비교’를 보면 2000년 중 우리나라 가계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9%로 선진국 최고

수준인 미국(2.4%)과 일본(2.21%)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1.4%)과 독일(0.7), 프랑스(0.6)보다는 3.5배~8.2배 높았다. 이것은 비밀과외 등의 비공식적 통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1997년 현재 초·중등교육의 사교육 부담률은 21%로서 OECD 평균 10%의 두 배를 웃돌고 있다. 고등교육의 사정은 더욱 심해서 1997년 현재 OECD 평균 23%의 3.4배에 달하는 수치다(김성진, 2003).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반대론자들은 과외비의 부담이 높고 가계의 소비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부담할 수 없는 집단이 학벌과 학력 취득의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음을 주장한다. 이것은 학벌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기회균등론이 허구임을 보여 주는 것이며, 실제로 서울대가 2002학년도 신입생을 조사한 통계를 보면 이것은 잘 시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대 신입생의 출신 지역별, 학부모의 직업을 보면 수도권 광역시 출신이 74%에 달하고 기타 도시 지역은 19.2%, 읍·면 지역 출신은 4.1%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전문직(관검사, 의사, 변호사, 교수 등)이 18.1%, 경영, 관리직(사장, 대기업 간부, 고급 공무원 등)이 20.6%, 사무직 24.1%인 반면 농축수산업은 2.3%에 그쳤다(한겨레, 2002. 8. 29: 18).

이처럼 자립형 사립고와 같은 더 좋은 학벌을 획득하기 위한 사교육비의 과도한 증가는 국가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길이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가계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가계소득이 낮은 가구는 점차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것은 학벌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어 세습적 위치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학벌 획득에 투입되는 경제의 규모에 의해 구분되어 진다면 그 사회는 불평등의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학벌이 가져오는 부정적 현상은 교육에 미치는 직접적 요인 말고도 다양한 측면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서울 강남구가 지역 주민 615명을 대상으로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상승에 대해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강남 지역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로 자녀 교육 등 교육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하기 때문이 44.4%이고 주거환경 양호는 26.7%, 투자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는 20.8%로 나타났다(한국일보, 2002. 9. 13 : 사회면). 강남 지역에 대한 선호는 주거환경에 대한 왜곡현상도 심화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강남 지역에 대한 선호의 이면에는 바로 학벌이라는 함수가 도사리고 있으며, 강남지역 즉, 8학군의 명문대 진학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게 되면 서 좋은 학벌 획득을 위한 왜곡된 현상은 우리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리라 예상한다.

라. 사학의 자생력(전입금 및 납입금의 문제)신장에 대한 의문

자립형 사립고 도입의 또 다른 반대논리는 전입금 및 납입금과 관련된 재정적 문제를 들 수 있다.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사학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전입금과 납입금에 대해 타사학에 비해 자율권을 부여하였으나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등록금 자율책정의 전제조건은 학교 재정의 투명성 확보인데,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학교 예·결산을 심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재정의 투명성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또 선정된 학교들이 당시에는 요건을 충족했다라도 학생등록금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를 이어갈지 보장할 수 없으며, 만약 그렇지 못할 때 법적으로 강제할 조항이 사립학교법에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 하고, 재단의 전횡을 견제하는 조항을 설치하기 전에는 ‘자립형 사립고’는 그것을 ‘비리 영리학원’이라고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어려울 것이라 주장한다(송현, 2005).

실제로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표 V-4>과 같이 학생 납입금은 동일 지역, 동일 계열의 300%이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법인 전입금은 학교 납입금 대비 8:2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학금의 비율은 15%이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재단 전입금 문제를 살펴볼 때,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930개 사립고교 가운데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는 37개교에 지나지 않고, 재단 전입금 20%이상을 충족할 수 있는 학교는 7개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1년 9월, 자립형 사립고를 신청한 27개교 중에 재정 결함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는 서울의 중동고, 한가람고, 민족사관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등 5개교 뿐이었음을 지적한다. 2003년 자립형 시범학교로 지정된 전북 상산고는 해마다 2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아 왔고, 현대청운고도 13억원의 보조금을 받아왔다. 이중에 상산고는 3년간(1999~2001) 법인 전입금은 총 3천 9백만 원, 즉, 매해 1천 3백만 원 재단이 투자했던 것에 비해,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재정결함보조금은 61억 5천만원에 달한다. 상산고의 재단 전입금 수준은 전라북도 61개 고등학교 중 41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립형 사립고의 신청은 책임은 회피하고 자율만 누리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되면 학생 납입금대 재단 전입금이 8:2가 되어야 하고 지정이 되면 재정결함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이럴 경우 사학의 부실 운영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지적하고 있다(김성진, 2003).

<표 V-4> 학생 1인당 납입금 수준 및 비율

(단위 : 원)

	광양 제철고	상산고	민족 사관고	포항 제철고	해운대고	현대 청운고	평균
일반계 평균	1,012,000	1,300,200	906,493	1,082,466	1,471,800	1,415,660	1,198,103.17
등록금 수준(비율)	1,042,000 (1.03)	3,900,600 (3.0)	2,871,600 (3.0)	1,151,466 (1.1)	4,415,400 (3.0)	2,831,320 (2.0)	2,693,064.33 (2.18)

출처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현장방문평가 보고서

<표 V-5>에서 알 수 있듯이 2004년 기준 지난 3년 동안 자립형 사립고의 학생 1인당 교육비(세출총액/재학생수) 평균 수준은 11,220,578원으로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인 4,6410,000원(2004년 기준)의 2.5배 정도였다. 이는 자립형 사립고의 학교법인이 지원하는 법인전입금 규모(연간 평균 26억 2,902만원)가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생 1인당 총교육비 부담 경비가 평균 9,412,528원(2,498,563원~15,386,763원)으로 일반계 고교 학생에 비해 3배 이상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 운영 기간(2002~2004)동안 6개 자립형 사립고 모두 재정지원 및 확보에 관한 지정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법인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며 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향후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납입금 징수 조건 폐지를 건의하고 있으나 자립형 사립고 납입금 수준을 자율화한다면, '등록금 대 법인전입금 기준'에 근거하여 학교법인은 전입금을 더욱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일부 학교에서는 "등록금 대 법인전입금 기준(8:2)"도 폐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설립자 부담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학교법인의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할 때 이는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표 V-5>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

(단위: 원,%)

	광양 제철고	상산고 수업료 운영비	민족 사관고	해운대고	현대 청운고	포항 제철고	평균
1인당 교육비	5,315,000	7,683,467	30,116,000	11,015,000	7,738,000	5,456,000	11,220,578
등록/세출 총액	18.6	33.6	5.99	38.3	34.2	20.2	25.15

주: 상산고는 재정결함보조금(2003년)을 제외하고 산출하였음.
출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현장방문평가 보고서

<표 V-6>과 <표 V-7>에서 제시하듯 광양제철고의 학교현장에 따르면 법인전입금은 학생납입금 대비 25%이상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광양제철고는 지난 3년 동안 등록금 대 법인전입금 비율은 평균 22:78로 법인으로부터의 지원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이다. 이는 자립형 사립고의 평균 비율인 37.63과 비교할 때 광양제철고의 법인으로부터의 지원노력은 자립형 사립고의 제도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도 64.4%로서 자립형 사립고의 평균 44.4%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광양제철고의 등록금 세입규모는 1,124,697천원으로서 세입총액 대비 등록금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18.6%이다.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지난 3년간 평균 법인전입금 수준은 2,841,684천원이고, 등록금 규모는 378,524천원이었다. 등록금 대 법인전입금 비율은 평균 12:88로 지정조건인 80:20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학교회계 세입 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도 지난 3년간 평균 44.4%로 자립형 사립고 평균 44.4%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민족사관고의 세입총액 대비 등록금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5.9%로서, 자립형 사립고 평균 24.1%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인데, 2004 이후(파스퇴르 공장운영의 어려움) 법인으로부터의 학교전출금의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2004년 이후 여름, 겨울 캠프 운영으로 2,589,885천원의 사업수익이 발생되어 매년 20억 이상의 법인전입금의 지원이 유지되고 있다.

상산고등학교는 지난 2년간 평균 법인전입금 수준은 2,862,347천원이고, 등록금 규모는 2,738,520천원이었다. 2003년에는 법인전입금 4,437,665천원 중에서 시설비 3,871,461천원이 대부분 이었고, 시설비는 신강의실 4층 건물 신축, 남녀기숙사 구조 변경 비용은 2002년도의 계속사업이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법인전입금은 04년도 1,287,128천원, 03년도에는 566,194천원이었다. 지난 2년간 평균 등록금 대 법인전입금 비율은 49:51로서, 자립형 사립고 평균 37:63에 비해 법인전입금 비율이 낮은 편이나, 지난 2년간 학교회계 세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27.5%로서, 자립형 사립고 평균 24.1%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었다.

포항제철고의 법인전입금 규모는 지난 3년간 평균 45억 7,540만원으로 자립형 사립고 중에서 가장 많은 규모이고, 그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등록금 대 법인전입금 비율은 평균 24:76으로 자립형 사립고 운영 요건인 등록금 대 법인전입금 비율 8:2 수준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이는 자립형 사립고 평균 비율인 37:63과 비교할 때 포항제철고의 법인으로부터의 지원노력은 자립형 사립고의 제도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도 62.5%로서 자립형 사립고 평균 44.4%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포항제철고의 등록금 세입 규모는 1,480,005천원으로 세입총액 대비 등록금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

은 20.2%이었다.

해운대고는 학생 1인당 납입금 수준은 지난 2년간 평균(2003~2004) 4,415,400원 으로서, 지역 소재 일반계 고교 납입금 1,471,800원, '04년도에는 1,522,800원의 3배 인 4,568,400원 수준이었다. 따라서 해운대고교는 학생납입금 징수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었지만 이는 6개 자립형 사립고 전체 평균 2,753,064원에 비해 납입금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현대청운고는 학생 1인당 납입금 수준은 지난 2년간 평균(2003년부터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지정) 2,831,320원으로서, 지역 소재 일반계 고교 납입금 1,415,660원 의 2배 수준이었다. 따라서 현대청운고는 학생납입금 징수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었 으며, 이는 6개 자립형 사립고 전체 평균(2,753,064) 수준이었다.

<표 V-6> 세액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및 등록금 비율 현황

(단위 : 천원, %)

	광양제철고	상산고	민족사관고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평균
법인전입금 규모	3,886,931	2,862,347	2,841,684	435,000	1,172,733	4,575,400	2,629,016
등록금규모	1,124,697	2,738,520	378,524	1,495,128	720,409	1,480,005	1,322,881
등록금:법 인전입금	22:78	49:51	12:88	77:23	38:62	24.76	37:63
법인전입금 /세입총액	64.4	28.8	44.4	11.2	55.1	62.5	44.4
등록금/세 입총액	18.6	27.5	5.9	38.3	33.8	20.2	24.1

주: 1) 등록금 규모는 수업료+운영회비(육성회비) 총액

2) 상산고는 2003년 시설비전입금 3,871,461천원을 포함한 2년간 평균 수치임.

출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현장방문평가 보고서

<표 V-7> 학생1인당 교육비 부담 수준

(단위: 원)

	광양제철고	상산고	민족사관고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평균
기숙사비 포함	2,500,340	5,578,300	7,796,618	6,749,325	4,330,125	2,498,563	4,908,879
기숙사비 미포함	-	8,938,300	15,386,763	9,149,325	4,672,125	-	9,412,528

주: 1) 학생1인당 교육비 부담 수준 = 납입금(수업료+육성회비)+수익자부담경비(기숙사비 포함)

2) 민족사관고는 기숙사비에 급식비 포함.

출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현장방문평가 보고서

시범운영중인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를 보더라도 결국 수익자부담 경비의 비중이 높고, 일부 학교의 경우 기본재산의 건실성과 안정성에서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지원 없는 납입금 위주의 학교운영으로 학부모에게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전가하게 될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립 중등학교 중에서 학교법인의 재단전입금이 0%미만인 학교가 전체의 4.34%이며 1%미만 학교는 전체의 77.96%인데, 향후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되는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경비의 상당부분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학부모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한다(성기선, 2006).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함으로써 사학의 자생력 신장을 위해 전입금 및 납입금에 대한 법적 자율성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학은 재정적 독립이 힘들며 또한 재정적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 반대논리의 핵심이다.

마. 공교육체제의 시장화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추진의 반대론자들은 가장 큰 문제가 공교육체제의 시장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2000년 현재 중학교 졸업자의 진학률은 100%에 가깝고 사립고교의 비중이 일반계의 50%를 넘어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공·사립고는 이미 하나의 공교육 체제로 묶여 있어, 자립형 사립고의 특징인 비싼 등록금, 학생수 30명 이내의 소규모학급은 그만큼 일반 학생의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만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찬성의 논거로 제시되는 교육선택권 확대,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평준화로 인한 학력의 하향평준화, 사립고의 건학이념 구현과 같은 사항은 자립형 사립고 운영의 필연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한다(송현, 2005).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은 교육의 기회균등 이념을 구현하는 ‘평준화’의 전면적 포기로서 이어지고, 이는 곧 공교육의 기본 틀을 위협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이다. 정부가 오히려 공교육을 포기한 채 교육을 시장 경쟁논리에 맡기게 되고, 전문직 석·박사가 교직에 입문할 수 있는 기회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안들은 자립형 사립고와 그 외 학교와의 실력 차이를 유발시킬 것이고, 이는 공교육 전체의 부실을 자초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정일환·김경선, 2002).

곧 자립형 사립고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교육의 복지 이념을 근본적으로 후퇴시키는 시도로서 교육을 시장화 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교육의 시장화는 학부모의 선택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학교만을 살아남게 하고, 경쟁력 없는 학교는 망하게 하자는 정책으로서 공교육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공교육의 이념을 무너뜨리고 교육의 책임을 각 개인에게 돌리게 되며, 더욱 큰 문제는 이 제도를 통하여 정부의 교육에 관한

투자 축소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이 우선 돼야 하며, 변화하는 교육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 그런데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여 공교육을 아사 상태로 몰아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전국교직원 노동조합, 2001.8).

따라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주의에 입각한 경쟁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말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한다. 질 높은 교육은 시장주의에 입각한 경쟁체제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교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의 민주화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것이다. 무상교육체제가 잘 갖추어진 프랑스의 예를 볼 때,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공교육 시스템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없다는 것이다(교육희망, 2001).

현재 전체 2100여 고등학교 중에 일반계 고교 대비 특목고 학교 수는 9%, 학생 수는 6%에 이르고 있다(한만중, 2008). 현재 특목고와 외국어고 및 시범운영중인 자립형 사립고의 입시경쟁 및 대학입시준비학교로의 변질과 같은 현상에도 알 수 있듯이, 국가교육과정과 현 입시경쟁구조에서 다양화와 특성화는 사실상 허울 좋은 이름에 불과하며, 자립형 사립고 역시 다양화, 특성화를 추구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류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한다고 말한다(김천기, 2002).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과 확대에 의해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나 반대론자들은 경쟁의 뜻이 이중적임을 주장한다. 학생 사이의 경쟁과 학교 사이의 경쟁이 포괄되어있다. 학생들은 소위 좋다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경쟁하고 학교는 좋은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경쟁하게 된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경쟁은 이를테면 평준화 정책이 가져오는 학교 교육의 무기력함을 떨쳐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쟁으로 얻게 될 교육적 소득은 필경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가 학생들에게 경쟁적인 선택 대상이 된다면 그것이 그 학교가 사회 전반의 교육 다양성 속에서 특정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학교가 명문 대학 진학 가능성을 높인다는 소문은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며, 학교들도 사실 이러한 소문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입 준비 교육에 사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입 준비가 아닌 교육 본연의 측면에서는 더욱 무리가 있음을 지적한다. 고등학교는 학제적 위치상 대학진학 문제에 골몰하게 마련이다. 우리보다 사회 문화적 조건이 훨씬 나은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소위 명문 사립학교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고, 유력한 집안의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학교로 몰린다. 미국에서 아주 명성 높은 16개 사립고등학교를 연구한 쿡슨(P.W. Cookson, Jr.)등은 이 점을 확인하면서, 그 학교들이 한결같이 매우 체계적인(9학년 부터 4년간 이어지는) 대입 지도 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입 준비 교육을 폄하할 이유는 무엇인가? 대입 준비가 사실상 고등학교 교육에 다름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항변하며 자립형 사립고에서 이루어질 교육의 질을 옹호할 지도 모르지만, 대입 준비는 교과외의 진정한 학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험에 나올 부분만 그것도 교과외의 정합성을 무시하고 전술적으로 연마하는 훈련이 될 따름이며,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도 진정으로 ‘배운 것은 없이 합격’만 하는 성과를 얻게 될 뿐이고, 사실 학생(학부모)들이 바라는 바도 이것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립형 사립고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최근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한 고등학교의 쏠림 현상에서도 뒷받침 되고 있다. 2009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배출 고등학교 중 전국 상위 20개 중 대다수를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가 휩쓸었다. 특히 일반 고교는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한 전국 10개 상위 고교에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올해 서울대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상위 20위 고교 24곳(5개교가 공동 20위) 중 상위 10개교는 모두 특목고 또는 자립형 사립고였으며, 일반고는 5곳에 불과했다. 상위 10개교는 서울과학고(94명), 서울예술고(90명), 대원외고(62명), 한성과학고(50명), 한국외대부속외고(44명), 선화예술고(39명), 전북 상산고(28명), 경기과학고·한국과학영재학교(각각 26명), 국악고(24명) 등이다. 일반고 중에서는 서울 휘문고가 가장 많은 21명의 합격생을 배출한 것을 비롯해 서울 세화고(17명), 서울 강서고·충북 세광고·안산 동산고(16명) 등 5곳이 상위 20위권에 포함됐다(파이낸셜뉴스, 2009.01.28).

평준화 정책은 입시 위주의 황폐화된 한국교육을 정상화하려는 이념으로 여겨왔는데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음에도 전면적 수정을 하려는 시도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 설립은 공교육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공교육의 민영화 전략에서 나왔기에 더욱 위험함을 지적하고 있다. 자립형 사립학교는 영국의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 교육전략을 반영한 정책으로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교육복지의 이념을 근본적으로 후퇴시키는 시도로서 교육을 시장화 하겠다는 전략이 들어 있다. 교육의 시장화는 학부모의 선택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학교만을 살아남게 하고, 경쟁력 없는 학교는 망하게 하자는 민영화전략에 기반하고 하고 있으나, 이런 민영화 전략에서 나온 자립형 사립고는 학교교육 또는 공교육 전체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공교육을 시장의 기제에 맡김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가능해진다고 낙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에게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근대 공교육의 이념이 무너지고 교육

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중세사회로의 회귀라는 반역사성을 띠기 쉽다고 주장한다(하병수, 2005).

또한 자립형 사립학교의 허용은 강한 계층상승 욕구의 속물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에게 ‘강한 선택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기에 학교를 비교육적으로 타락시킬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다. ‘소비자 주권’논리는 수요자의 강한 선택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으로 유도한다고 하지만, 시민권의 공익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는 일차원적 욕구만을 반영하기가 쉽다라고 결론 짓는다. 서구에서는 복지정책이 어느 정도 완성된 조건에서 최근 효율성이 떨어지자 교육소비자인 학부모에게 강한 선택권을 주어 공교육의 개혁을 시도하는 ‘교육의 민영화’ 전략에서 시도되었지만, 그러한 서구의 자립형 사립학교의 장점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발휘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가 사회진출을 위한 마지막 단계의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학생이나 그들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은 대학진학이라는 당면목표를 매달릴 수밖에 없고, 더구나 학부모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학교인 자립형 사립고는 비명문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명문대학 입학울 위해, 학생, 학부모, 나아가 학교가 총력을 기울일 것이 뻔한 현실을 지적한다. 반대론자들은 일류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면 시민적 자율성을 갖지 못한 치맛바람은 학부모들에게 날개를 달아 주어 학교가 더욱 비교육적 입시학원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은 곧 우리 공교육의 파괴로 직결될 것이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가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정책 반대논리의 한계

가. 고교평준화 정책 해체 가능성 주장의 한계

자립형 사립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의 고교평준화 정책이 해체되고, 이로 말미암아 고등학교의 서열화가 다시 시작되어 입시경쟁이 심화된다고 주장한다. 과연 이러한 논리는 타당한 것일까, 그 한계는 무엇인가.

자립형 사립고 정책이 추진되기 그 이전부터 이미 고교평준화 정책은 그 틀이 조금씩 흔들려 왔다. 주로 주요 상위권 대학 및 사립대학 총장등은 3불정책 이른바 고교등급제, 기여 입학제, 본고사 등에 대한 허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2009년도 입시에서 고려대는 고교등급제를 통해 학생선발을 하지 않았는지까지 의심을 받으며 법정논란에 휩싸이기까지 했다. 또한 수많은 학생들이 외국어고와 과학고와 같은 특목고, 영재학교나 자립형 사립고에 입학하기 위해 이미 수백만원에 이르는 사교육 시장에 내몰리면서 고교평준화 정책하에 제한받고 있던 학교선택권을 행사

하려고 무던히 노력중이다. 과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립형 사립고 정책이 고교평준화 정책의 해체의 주범인가는 여러 사회적, 교육적 정책들 간의 연관성을 따져 보아야 할 일이다.

현재 고교평준화 정책 하에서도 ‘선지원 후추첨’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서 가능한 높은 성적을 유지해야만 한다. 한국적인 교육상황 속에서 성열관(2008)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는 거리가 가까운 학교가 아니라 입시결과가 우수한 학교일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이미 같은 학군내 고등학교들 중에서도 소위 일류, 이류, 삼류라는 수식어가 붙는 학교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학교간 선호도 차이와 서열을 없애고자 했으나 뿌리 깊은 우리나라의 학벌중심의 문화와 입시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며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탓만도 아니다. 또한 평준화 정책과 비평준화 정책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고등학교가 자신이 속한 학군 내에 있지 않다면 높은 질적 교육환경을 갖춘 자립형 사립고 정책을 통해 흡수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평등일 수 있다. 그러한 교육평등을 막는 다는 것은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학군내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자립형 사립고의 등장으로 인해 고등학교의 서열화가 초래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미 앞서 언급한 대로 평준화 지역이든 비평준화 지역이든 암암리에 학군내 고등학교의 서열은 이미 굳어진 상태에서 매년 학교간 입시결과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되고 선호학교도 바뀌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기존의 평가를 뛰어넘기 위한 수단으로 야간 자율학습이나 0교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크지 않아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수많은 사립학교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학벌중심과 입시문화가 바뀌지 않은 한 그 어떤 교육정책을 펴더라도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게 된다. 명문대 진학률을 통해 학교의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각 학교에서는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 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학교운영 및 결과를 보고 부모와 학생들은 그들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이미 정착화 되어가고 있는 고등학교간 서열화의 문제는 자립형 사립고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가 등장한다고 하여 기존의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해체와 고등학교간 서열화 발생은 사회구성원들의 잘못된 사회적 인식과 문화에서 비롯된 문제로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지 이를 보완해 보고자 하는 자립형 사립고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그 한계로서 지적될 수 있다.

나. 자립형 사립고가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의 한계

자립형 사립고 정책으로 인해 무조건적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는 지나친 생각이다. 우선은 고교 평준화 정책이 도입되던 1974년에 비해 오늘날 국민 소득은 크게 높아졌고 그로인한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교육의 질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교육수요자들로 하여금 과거에 비해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함으로써 사교육비 증가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날 뿐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는 비단 자립형 사립고만을 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없다.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갈망하는 교육수요자들의 욕구를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동안 수많은 학생들과 엄청난 액수의 재화가 사교육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자립형 사립고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립형 사립고는 연간 300여만 원에 이르는 등록금 때문에 ‘신 귀족형 학교’라는 비난과 더불어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연간 160여만 원을 내고 있는 서울 소재 평준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별도의 학원비나 과외비 지출을 감안한다면 평준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야말로 귀족 대접도 못 받으면서 귀족보다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 지출액 가운데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이 24만 7673원으로 연간 3백만 원 가까운 교육비가 지출되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자립형 사립고를 선호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위 20% 계층의 2004년도 월평균 사교육비는 무려 83만 8,000원이었다는 조사결과를 놓고 보면 현실을 외면한 논리이다. 또한 자립형 사립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낮은 수준의 교육적 환경에 불만을 느낀 소비자들은 사교육시장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려 할 것이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 사교육비 시장이 공교육비 시장을 초과하는 추세와, 가계의 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하여 가계에 커다란 규모의 초과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좋은 예이다.

자립형 사립고 정책과는 별도로 사교육비의 증가에 대한 증거는 백일우(1999)의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유효한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면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사교육의 질이 공교육의 질보다 훨씬 뛰어나다면 공교육의 질 개선과 무관하게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 공교육의 질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대학진학을 위한 학생들 간의 경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사교육에 여전히 의존하게 되는 양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소수 학생에 그치는 것에 아니라 다수에게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학부모들이 과외가 성적향상에 주는 효과를 굳게 믿고 있다면, 학부모 모두가 과외를 시키고자 할 것이다. 이는 다른 학부모가 ‘과외’전략을 선택할 것을 예측하여 자신도 최선의 전략인 ‘과외’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채창균, 2006). 더욱이 학생들의 경우,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을수록, 모의고사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희망대학 수준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부모들의 경우, 자녀에 대한 희망 대학수준 보다 ‘장기적인 교육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교육비에 대한 희망대학수준과 장래 사회생활을 보다 오래한 학부모들이 학생들 보다 사교육을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학력 및 지위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임천수, 2008). 이는 자립형 사립고와는 별도의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자녀의 교육에 관해 관심이 높은 저소득계층도 부유층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막대한 사교육비를 투자하여 이제는 공교육비보다 사교육비가 더 많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빈부의 격차가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립형 사립고만이 교육적 형평성에 저해하는 요소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오히려 자립형 사립고를 통해 부유층의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공교육비의 부담을 높인다면, 그 결과로 조성된 공교육비 재원을 저소득계층에게 투입할 수 있게 되어 교육재정에 대한 빈부의 격차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효율을 감소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육적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으로 인해 사교육비가 훨씬 증가하게 되리라는 논리는 그 설득력을 찾기 힘들다.

다. 사학의 자립도에 대한 의구심 주장의 한계

앞서 자립형 사립고 도입 반대논리로서 학생납입금과 법인전입금에 관련된 여러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는 소수의 사례만을 가지고 일반화시켰다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그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라면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자율권을 돌려주면서, 이 자율권을 바탕으로 사립학교들이 ‘가고 싶은’ 학교로 발전하도록 해주어야만 한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전입금 및 납입금의 자율성 부여는 고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사 확보와 현대화된 학교시설, 설비 및 교육기자재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시범운영중인 6개 자립형 사립고를 살펴보면 학교간 편차는 있으나 다른 일 반계 고교에 비해 건학이념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는 교사 등을 확

보하고 학교시설·설비 및 수업기자재 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운고의 경우,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실험실 개선, 멀티미디어 학실, 도서실 개선, 체육관 건립, 잔디구장 구축 그리고 현대화된 학생 기숙사 건립을 완성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법인의 모기업인 현대중공업이 2003년에 체육관 건립비 1,219,823천원을 출연하였고, 2004년에는 기숙사(건립비 8,908,895천원)를 기부채납하였다. 상산고는 자립형 사립고로 시범 선정된 이후 기숙사 구조 변경 및 신축등 교육여건 개성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고, 2003년 시설비 3,871,461천원을 출연하였고, 특히 여학생 기숙사 건립을 위해 100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교원수급 및 학교시설, 설비 및 수업기자재 확보 등 교육여건은 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학생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박종렬, 2005).

이는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평가서에서도 잘 알 수 있다. 6개 자립형 사립고 모두 학생납입금 대비 20% 이상 부담하도록 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한 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들에서는 평균적으로 학생납입금보다 법인전입금의 비중이 더 높으며, 등록금 대 법인전입금 비율은 평균 12:88부터 77:23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시범학교 모두 학교현장에 제시된 학교 및 학급규모를 이행하고 있으며, 학교시설, 설비 및 수업기자재는 학교현장에 제시된 것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었다(김주후, 2005).

따라서 납입금 수준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3배를 받는다고 해서 적절성이 떨어진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이는 해당 학교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운영목적이나 특별 프로그램에서 더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방향으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실 있는 교과지도와 학사운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가 우리공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 마련에 있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김진영·박진(2008)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다. 2007년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예산 약 2.6조원 중 자립형 사립고 확대를 정부가 절감할 수 있는 재정을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한 재정결함 지원은 중단하나 기타지원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실업계고는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하지는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러한 가정을 기준으로 재정지원 절감액을 추정했다. 먼저 모든 사립고에 대한 재정결함지원금을 파악하여 이중 실업계고에 대한 지원금을 모두 제외하고 인문계에 대한 지원금만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시도별 전환비율을 적용하여 절감액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105개 자립형 사립고가 생길 경우 <표 V-5>에 보듯이 2006년도 결산기준으로 2,474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만약 위에서 설정한 대로 196개의 자립형 사립고가 생긴다면 4,643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2006년도 사립고

교에 대한 재정지원액의 9.7%(105개 기준) 내지 18.2%(196개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만약 이 절감액을 전액 공립고교나 자립형으로 전환하지 않는 사립고교에 지원할 경우 공교육 정상화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김진영·박진, 2008).

<표 V-5> 자립형 사립고 확대시의 지역별 재정지원 절감액
(2006년도 결산기준)

구분	인문사립고재정 결합지원(억원)	전체 사립고 중 전환비율(%)		재정결합지원금 절감액(억원)	
		최소(105개)	최대치(196개)	최소(105개)	최대치(196개)
서울	3,425	20.9	44.5	716	1,524
부산	1,072	13.6	20.4	146	219
대구	1,068	16.2	25.7	173	274
인천	506	34.8	45.9	176	232
광주	886	2.8	8.4	25	75
대전	538	182	27.2	98	146
울산	227	20.0	20.0	45	45
경기	1,927	15.1	35.5	290	685
강원	441	7.1	11.7	32	52
충북	325	20.0	26.6	65	86
충남	645	7.4	14.7	48	95
전북	1,374	5.3	16.2	72	222
전남	983	9.5	17.9	94	176
경북	1,405	17.4	29.0	244	47
경남	1,526	10.4	20.5	459	313
제주	213	42.9	42.9	91	91
계	16,561	15.1	28.1	2,474	4,643

주: 자립형 사립고의 공급 및 수요 예측과 교육재정 절감규모 추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학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독자적인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인정받게 되는 자립형 사립고의 제도화는 우리나라 전체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촉진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자립형 사립고 정책을 통해 잉여재원을

공립학교에 집중함으로써 공립학교의 재정을 보다 충실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나아가 자립형 사립고와 같은 우수한 사립학교들의 자극을 받아 공립학교에서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학의 자립도에 대한 의구심에 대한 주장은 이와 같은 이유로 한계를 지니게 된다.

라. 공교육체제 시장화 주장의 한계

정부의 독점에 의해서 관리·운영되는 완벽한 공교육체제는 적어도 자유자본사회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그 많은 교육기관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을 홀로 감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또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학교설립을 통해 공익적 교육 사업을 회구하는 사인들의 요구를 거부할 명분도 없다(신현석, 2007). 이러한 배경 속에서 몇몇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을 통해 전체 공교육체제의 시장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이다. 과연 공교육체제의 시장화가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는가도 그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교육제도 정착 이후 새로운 역학정립이 요구된 외국의 사립중등학교들에 대한 사상적, 제도적 분석을 통해 확인된 바로는 공교육의 체제정비가 확고한 선진국일수록 사립학교의 독자적 존재와 역할이 인정받고 있다. 특히 영국과 미국의 경우 공립학교가 국민 대중의 보편적 교육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충실한 반면, 사립학교는 보다 차별화되고 특수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 나라에서도 사립학교의 존재는 우리가 우려하는 사회적 위화감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통교육을 추구하는 공교육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엘리트 교육이나 특수교육, 때로는 공교육의 개혁을 선도할 실험적 역할을 이들 사립학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학교운명을 보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교육개혁 과정에서도 공립학교에도 자율학교의 개념을 도입하여 보다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질 높은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한유경, 2003). 이는 질 높은 교육을 교육수요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대안이지 공교육체제를 시장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자립형 사립고 정책은 공교육으로 흡수할 없는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줌으로써 고교평준화정책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공교육시장까지도 시장화 한다는 논리는 비약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보편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이란 명분은 국·공립학교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학의 경우 존립 근거가 국·공립과 다르기 때문에 특수성, 자주성, 그리고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안으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만 충족할 경우 원하는 사학들을 자동적으로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칙주의를 도입해야 하며,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자율학교를 대폭 확대하여 학교선택권과 학생선택권을 늘려야 한다(이주호, 2002).

이미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표면상 내세웠던 교육형평성을 보장하는 데에 실패했다. 확대재생산을 막고, 지역, 계층, 학교간의 교육격차를 완화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평준화정책은 계층 간, 학교간 교육여건의 불평등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으며, 학교간의 교육여건 불평등으로 인한 지역별 분쟁, 특정지역으로의 위장전입 증가, 일부 부유층의 이상 조기 유학 붐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 것은 평준화 정책이, 그 원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의 질 확보에 실패하게 되어 학부모와 학생들로 하여금 사교육에 관심을 갖게 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교육으로 인한 우리 교육의 시장화는 학벌중심의 사회적 인식이 문제이지 비단 자립형 사립고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사교육으로 인한 공교육체제의 시장화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어온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는 자신들이 원하는 교육을 갈구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 및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시범운영중인 자립형 사립고에서는 다양한 특별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계발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다. 학교별 특성화된 재량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계 고등학교로서 대학진학에 맞추어진 학교운명을 하고 있으나 전적으로 입시위주의 학교운영이라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김주후, 200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가 모든 교육을 통제함과 동시에 교육재원을 조달할 수는 없다. 또한 학교선택권의 강화는 전 세계적인 경향으로 법으로 막을 일도 아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공교육의 질을 높여 교육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는 자신들이 원하는 교육을 갈구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 및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다. 자립형 사립고 때문에 공교육의 체제의 시장화를 우려하는 논리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도외시하고 겉모습에 치중하고 있는 문제의식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VI. 요약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자립형 사립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교육현실과 공교육에 미치게 될 영향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그 찬반논리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한계를 밝히는데 있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자립형 사립고의 개념적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자립형 사립고의 찬성의 논리주장과 근거 및 그 한계는 무엇인가? 셋째, 자립형 사립고의 반대의 논리주장과 근거 및 그 한계는 무엇인가? 를 확인,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미 연구, 조사된 각종 연구 논문과 한국교육개발원의 시범운영 평가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신문기사등을 참고 하였다.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찬성과 반대 논리분석을 위해서는 자립형 사립고의 개념적 특징이 분명히 밝혀야 하므로 자립형 사립고의 등장 배경 및 현재 시범운영중인 6개 자립형 사립고들을 중심으로 그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자립형 사립고의 개념적 특징을 자율성, 다양성 및 학교선택권과 같은 세 가지 영역으로 분석하였으며, 또한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찬반 논리주장과 근거 및 그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분석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중등교육의 기회 확대, 학교간 서열화 현상의 완화,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이 정책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제한, 사립학교의 자율성 침해로 인해 교육의 획일화 등의 문제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자립형 사립고가 등장하게 된다.

둘째, 2010년까지 시범운영하게 될 자립형 사립고의 운영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전형과 특별전형등을 통하여 학생선발 방법의 다양화를 추구한다. 각 학교마다 독특한 건학이념을 가지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는 우수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교수를 초빙하고 산학겸임교사를 활용하고 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각 학교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학생납입금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3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법인 장학금은 학생 납입금 대비 2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장학생의 경우도 15%이상의 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셋째, 2008년 12월 31일 서울에 최초의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가 개교를 하게 된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자립형 사립고보다 국가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평가를 받는 등 자율성을 더욱 부여받게 되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 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

넷째, 자립형 사립고의 개념적 특징을 살펴보면 제도적 측면에서 학생선발, 학교제정, 장학생 비율,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교원자격 및 학사운영과 관련해 법적으로 그 자율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교육활동 측면에서 기존학교와는 차별화된 각 학교의 특성과 건학이념에 맞는 교육과정 및 수업방식등을 통해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요자측면에서 학부모와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섯째,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찬성 논리는 학력하향화의 주범인 고교평준화정책의 한계에 대한 대안이며 획일화 되어있던 교육과정에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지금까지 무시되던 사학의 자율성 신장과 건학이념 및 특수성을 보장함으로써 사학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학교선택권을 되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역설한다. 하지만 학력하향화에 대한 뚜렷한 실증적 논거가 부족하며, 인문계 고등학교인 자립형 사립고가 우리나라의 학력과 학벌문화의 변화가 없는한 입시교육에 치중하게 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며 결국은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더욱이 재정적인 자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힘든 현재 우리나라의 사학들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비리사학을 더욱 양성하게 될 것이며, 그 부담은 모두 학부모와 학생에게 되돌아 갈 것이다. 또한 학교선택권은 모든 교육수요자에게 평등하게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립형 사립고의 높은 교육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며, 그로인해 빈부의 격차는 교육의 격차로의 악순환의 반복과 함께 학교간 서열화로 인해 공교육의 붕괴를 초래 할 것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여섯째,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반대 논리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해체하게 될 것이

며 이로 인해, 학교간 서열화와 학벌 중심의 문화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서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법인전입금과 학생납입금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한다고 하여 사학의 재정적 독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것이라 예상한다. 더불어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은 교육의 기회균등 이념을 포기하는 도화선이 되어 공교육의 변질 및 왜곡을 심화시키고,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를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의 열풍으로 사교육비 증가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추진은 공교육의 포기가 아닌 고교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이 정책이 지닌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하는 경우 지역별 재정지원 절감액을 통해 공교육에 투자함으로써 교육을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도외시한 한계를 지적받는다. 아울러 교육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 정책이 전체 공교육의 변질 및 왜곡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는 한계를 지닌다. 사교육비 증가문제도 현재의 교육적 환경에 변화가 없는 한 자신들이 원하는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려 할 것이므로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을 자립형 사립고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것도 그 한계라 할 수 있다.

2. 제언

자립형 사립고 정책에 관한 찬반 논리의 실증적 분석에 앞서 자립형 사립고의 개념적 특징을 자율성, 다양성, 학교선택권등 3가지 영역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개념적 특징을 중심으로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찬반 논리주장을 분석하고 그러한 논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자립형 사립고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평준화 정책과 학업성취도간의 정확한 개념정리 및 교육재정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립형 사립고 정책 추진에 있어 논쟁의 핵심은 교육경쟁력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평준화와 학업성취도 저하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이에 대하여 단순히 평준화 찬반의 이분법적 논리로 대처하는 것은 평준화 효과 연구를 위한 적절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적절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려면, 학업성취에

대한 평준화의 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파악하고, 양극화된 논리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평준화와 학업성취와 관련된 실증적 증거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과 기존 분석 방법들의 타당성, 적절성을 검토함으로써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보다 정당한 연구 논리를 개발할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평준화 정책의 긍정적, 부정적 평가를 떠나서 무엇보다도 각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 단순히 몇몇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통해 현재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앞서 언급했던 여러 한계와 부작용이 예상된다. 선진국 수준의 충분한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더 이상 콩나물 교실이 아닌 학급당 학생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더불어 충분한 교원수 확보를 통해 내실 있는 수준별 수업의 확대, 학습부진아의 개별지도를 통한 학업성취도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2008년도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제위기로 세수가 줄어 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은 2조 2천억원이 결손된 상태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GDP 대비 교육재정을 6%로 확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의 다양화는 모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져야 한다. 교육과정의 다양화 방안도 자립형 사립고 정책을 통해 해결될 수 없는 한계는 이미 앞서 언급하였다. 무엇보다 뿌리 깊은 학벌사회와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에 변화가 없는 한 어떠한 정책도 공염불에 지니지 않는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실업계 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전문인, 기능인들 역시 그에 걸맞는 대우와 존경을 해 줄 수 있는 사회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들어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한 다양한 대입전형방법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이 역시 학교별 입학대상자 추천에 있어 뚜렷한 기준이 없다보니 성적이 우선시 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시범운영중인 자립형 사립고에서의 다양한 교육과정의 특성화, 특기·적성 교육, 재량활동등은 입시교육위주의 한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2010년도부터는 초·중·고에 있어 교장재량으로 20%내외에서 교육과정의 자율편성 및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이 통합운영 될 수 있다. 물론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이 더욱 가열되는 현상이 우려되는 대목이기는 하나, 국가차원의 철저한 준비와 눈높이 교육과정을 계획하여 일반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학생들의 특기 및 적성, 잠재력

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었을 때만이 자립형 사립고 정책을 통한 교육과정 다양화 방안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다. 자립형 사립고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들어가기엔 너무 힘든 현실적인 장벽이 많다. 자립형 사립고는 이미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함으로써 다른 학교보다도 학업성취도 분야에 있어 한발 앞서 있다. 자립형 사립고에서 특성화하고자 하는 여러 교육과정 역시 우수학생들의 수준에 맞춘 결과물인 것이다. 진정한 교육이란 앞서 나가는 학생들을 더욱 앞서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뒤쳐져 있는 학생들을 앞서 나가는 학생들만큼 발전시키는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를 통한 수월성 교육은 그 타당성을 인정받는지 모르나, 그러한 수월성 교육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도리어 역차별이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는 대학진학을 위한 수단이자, 명문고라는 인식보다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이 진학하여 그들의 자아성취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사학의 재단 이사장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와 인식의 변화, 더불어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각종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여론에 동조하여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과포리증적인 정책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이념적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교육정책은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하지만 자립형 사립고와 같은 정책은 우리의 교육 현실에 가져올 영향이 지대하므로 정책추진에 앞서 단기적인 안목이 아닌 장기적 안목을 통해 자립형 사립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여론을 호도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도시간, 지역별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학비와 급식비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가장 시급하고 기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도외시한 채, 무리한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추진은 비판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시범운영중인 자립형 사립고의 학교 운영 및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 기간이 불과 10년이 채 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내리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편협한 관점에서의 평가가 아닌 교육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분야에서의 평가를 위해 전 분야에 걸쳐 전문가와 실무자들을 통해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찬성과 반

대논리의 이념과 주관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정확한 학교운영 및 성과에 대해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인기영합 위주의 정치적 이유를 들어 우리 전체 교육의 틀을 뚜렷한 근거나 이유 없이 바뀌서는 안 된다.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립형 사립고 정책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한계가 극복하지 못할 것들은 아니다. 현재 우리 교육이 안고있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명 자립형 사립고와 같은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하나, 제대로 무르익지 않은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물론 이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올바른 시민의식의 향상, 제반조건들의 변화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민간주도의 시장경제체제에 우리교육을 맡기기 보다는 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정부주도의 교육정책이 절실하다.

참고 문헌

- 강상진(2005).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교육효과, 교육개발, 32(4), 한국교육개발원
- 강상진(2005). 고교 평준화 정책 효과의 실증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강영혜(2000).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강영혜 외(2005). 고교 표준화 정책의 종합적 검토, 교육개발, 32(4), 한국교육개발원
- 강영혜외(2005). 고교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강영혜(2005).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Ⅲ), 한국교육개발원
- 강영혜(2008). 사교육비 절감, 대안은 없는가?, 교육개발, 35(3), 한국교육개발원
- 강태중·성기선(2001). 평준화정책과 지적 수월성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KEDI 교육정책포럼, 한국교육개발원
- 강태중(2003).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관련된 논란의 성격, 교육정치학연구, 9(10), pp.1-25.
- 강태중(2004).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환상을 경계한다, 교육정책포럼, 85, 한국교육개발원
- 강태중(2008). 교육격차 해소와 기회균등, 교육개발, 35(1), 한국교육개발원
- 강태중(2008).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가 공교육을 바꿀 가능성은?, 교육정책포럼 169. 한국교육개발원
- 공은배(2003). 사학기관 건전 육성 대책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권순환(2005). 고교 평준화 정책의 엔트로피 감소를 위한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의 체제론적 분석,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김기석(2000). 실증적 분석 연구를 통하여 평준화 효과의 진실을 밝히자, 교육개발, 1(3), 한국교육개발원

김경근(200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진학수요 결정요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1(3), pp.21-38.

김경근(2003). 고교평준화제도 존폐에 대한 학부모의 태도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3(2), pp.21-45.

김달효(2006). 학생의 능력별 집단편성에 대한 비판적 접근, 교육사회학연구, 16(3), pp.25-42.

김미숙(2007). 평준화 제도 내에서 수월성 교육은 불가능한가, 교육정책포럼, 124.

김보엽(2006). 사학재정정책의 쟁점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4(3), pp.165-191.

김용호외(2001). 자립형 사립고교 운영 방향에 관한 연구, 사학연구, 24. 대한사학중
고등학교장회

김운태(1996). 학교선택정책에 관한 분석적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4(3), pp.232-264.

김성진(2003). 자립형 사립고의 정치·경제학적 특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성식(1999).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과 학교 팽창,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김성열외(2000).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에 관한 공청회, 한국교육개발원

김성열(2000). 자립형 사립고는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교육개발, 124, 한국교육개발원

김연구(2005). 고교 평준화 정책과 교육평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상명대학교

김영철(2002). 고교 평준화 정책과 학교선택권, 한국교육법연구, 6, pp.265-284.

김진영·박진(2008). 자립형 사립고의 공급 및 수요 예측과 교육재정절감규모 추정, 한국교육, 35(4), pp.153-173.

김정래(2001). 고교평준화 정책논쟁과 자립형 사립고 도입, 한국교육개발원

김정래(2003). 사립고등학교의 평준화 정책 적합성 연구(I), 한국교육개발원

김정원(2004). 고교교육다양화, 그 방향은 교육개발, 교육개발, 31(6), 한국교육개발원

김주후(2000). 자립형 사립고 어떻게 볼 것인가, 교육정책포럼, 123, 한국교육개발원

김주후외(2005).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평가보고서, 한국교육개발연구원

김천기(2002). 평준화제도의 왜곡과 자립형 사립고의 전근대성, 교육비평, 8.

김천기(2002). 평준화 왜곡과 자립형 사립고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12(3), pp.55-73.

김행수외(2005).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평가보고, 전교조 참교육 연구소,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실.

김홍주외(2008). 2008교육정책 분야별 통계 자료집연구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나병현(2001). 학교교육의 위기와 공교육 이념의 재검토, 아시아교육연구, 2(2), pp.139-150.

나병현(2002). 공교육의 의미와 교육의 공공성 문제, 한국교육, 29(2), pp.549-571.

노종희외(1999). 학교선택제의 실시현황과 시사점, 교육행정학연구, 17(1), pp.109-139.

노종희(2001). 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 확대방안, 교육행정학연구, 19(1).

류승하(2002).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문용린(2002).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 추구, 교육개발, 34(1), 한국교육개발원

박부권(2008).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대한 소고, 교육사회학연구, 18(1), pp21-38.

박종렬 외 (2005).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현장방문평가 보고, 현지방문평가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배태섭(2004). 평준화 해체 음모를 해부한다, 교육비평, 15.

성기선(1999).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교육연구, 26(2), pp.149-168.

성기선(2004).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효과에 대한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4(3), pp.87-106.

성기선(2005).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육사회학연구, 15(3), pp.179-204.

성상제(2008). 자율형 사립고 추진방안 및 과제, 교육과학기술부

성열관(2008).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 계급화를 넘어 평준화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정책에 대한 비판, 서울:교육비평사.

신현석(2007). 한국 고등교육의 시장화와 다양화: 국가, 시장 그리고 대학의 관점에서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5(4), pp.285-314.

심성보(2000). 자립형 사립고는 위기 극복의 대안이 아니다, 교육개발, 124, 한국교육개발원

송기창(1999). 한국에서 사교육의 성장과 공교육의 위기, 한국공교육체제의 평가와 전망, 한국교육연구소

송기창(2007). 학교선택제의 이상과 실상: 국내 적용 가능성 탐색을 위한 미국의 학교선택제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5(3), pp151-176.

송현(2005).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양정호(2004). 평준화와 학업성취, 교육사회학연구, 14(2), pp151-174.

이광현(2007). 학교선택이 수학적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PISA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7(4), pp.87-107.

이명균(2005).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의 법령 정비 방안, 대한교육법학회, 3차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p.147-168.

이병환(2001).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자율학교 운영방안, 지방교육경영, 6(2),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이병환(2002). 국내외 학교모형 비교를 통한 학교선택권 보장방안, 한국행정학연구, 20(2), pp.215-235.

이병환(2002). 학교선택권의 입장에서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한국행정학연구, 20(4), pp.275-295.

이일용(2004).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학운영체제 개선방안자율학교 및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교육행정학연구, 22(2), pp.135-161.

이일용(2006).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육성방안, 교육행정학연구, 24(4), pp.211-238.

이옥범(2001). 자립형 사립고의 재정 운영과 과제, 한국 중등사학의 전망과 재정적 과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이지영(2003). 비평준화 지역의 교육문제와 과제, 평준화 학술대회자료집, 범국민교육연대

이종태외(2000). 자율학교 운영 모델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이주호(2001). 고등학교 등급제: 내신 제도와 학교 차이의 인정, 한국교육논단, 1.

이주호 외(2002). 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 : 평준화 논의를 넘어서, 한국개발연구원

이주호(2002).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11(1), pp.237-269.

이종재(2004). 사교육비 경감의 근본적인 처방은 공교육의 교육력 강화이다, 교육개발, 31(2), 한국교육개발원

임천순 외(2008). 사교육 수요 분석 : 학습보충론과 미래투자론,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17(2), pp.1-27.

유은중(2003).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특수목적형 고등학교 운영실태 및 진단에 관한 세미나

윤정일외(2003).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납입금 책정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1(4), pp223-242.

윤정일외(1999). 자립형 사립학교 적정납입금 산출 연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부설 한국사학교육연구소

윤종혁(2004). 하향 평준화에 대한 우려, 결국 우려일 뿐이었다, 교육개발, 31(2), 한국교육개발원

오성삼(2006). 자립형 사립고, 미루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교육정책포럼, 123호, 한국교육개발원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방안 안내, 교육인적자원부(2001)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지침, 교육인적자원부(2001)

전일국(2004).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필요성과 학교 운영 방향에 관한 연구, 학위 논문, 명지대학교

전우홍외(2004). 학교선택요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KEEP Conference

정일환외(1998). 고등학교 교육체제의 개선방안 탐색-선발제도의 이념적 근거를 중심으로, 교육학논총, 19, pp.15-40.

정일환(2000). 교육정책론:이론과 적용, 서울:원미사

정일환·김경선(200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의 추진과정 분석과 보안방안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20(2), pp.259-281.

정일환(2003). 고등학교 평준화 보완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1(4), pp.69-90.

정수현외(2002). 자율학교 학교평가 편람, 한국교육개발원

정영수(2008).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교육개발, 35(1), 한국교육개발원

정진곤외(2005).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자체 평가 결과 보고, 자립형 사립고 협의회

정희상(2007).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의 효과 및 발전방안,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조석희(2004). 수월성 교육 이렇게 하라, 교육정책포럼, 94. 한국교육개발원

주철안(1999).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학교체제 재구조화 연구, 교육비 정책연구과제

천세영(2003). 사교육은 정말 사해야 하는가, 교육개발, 30(4), 한국교육개발원

최금진외(2003), 자율학교의 자율권 활용실태 및 교육효과 분석, 교육학연구, 41(2), pp.253-275.

최준렬외(1997).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부정책연구

채창균(2006). 고교평준화가 사교육비 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2), pp.163-179.

하병수(2005). 자립형사립고 절대불가 이유서, 교육비평, 18, 한국교육개발원

한만중(2002). 자율학교 · 평준화 해제의 우회로, 교육비평, 9, pp81-93.

한유경(2003). 고교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학교선택권의 점진적 확대, 교육개발, 30(2), 한국교육개발원